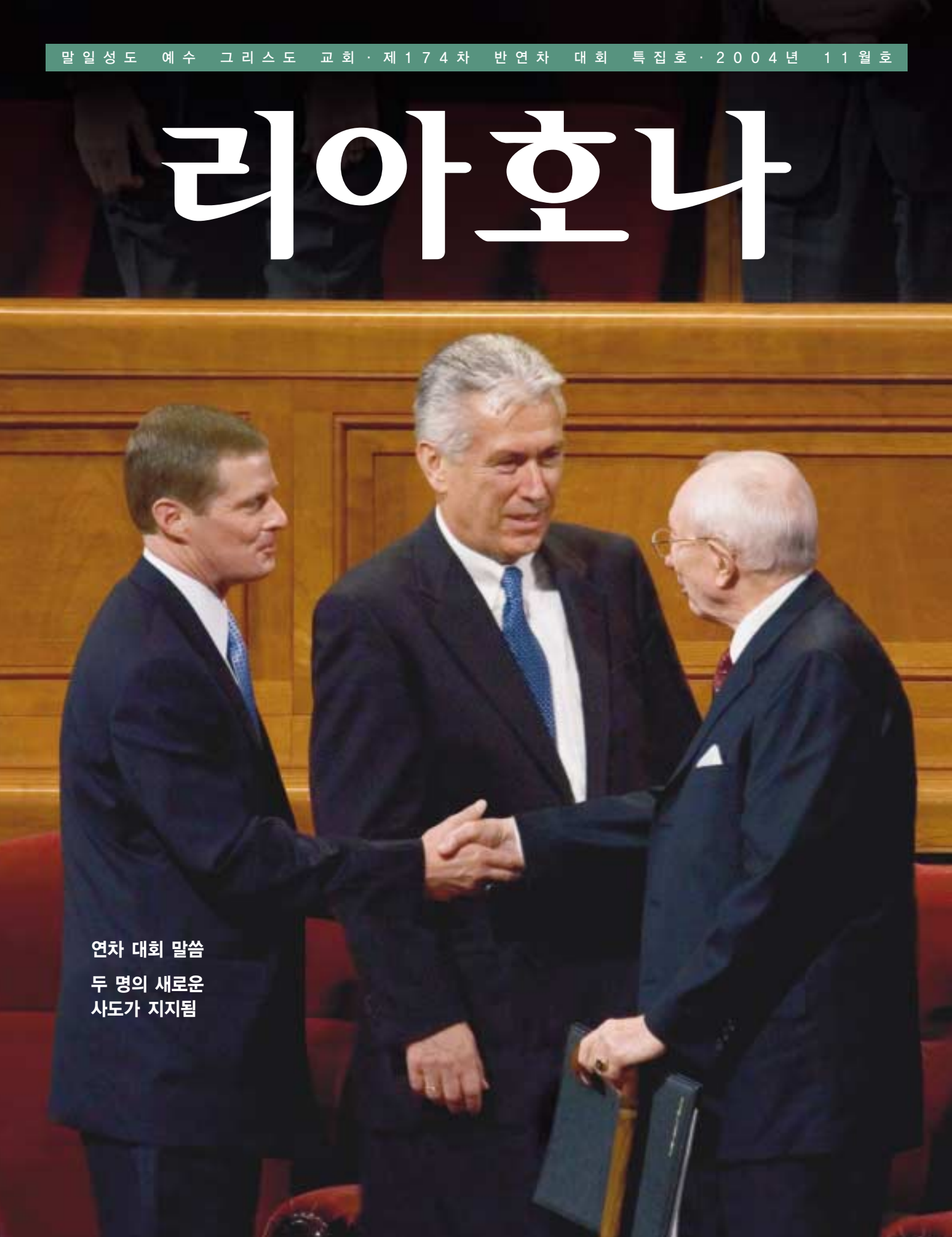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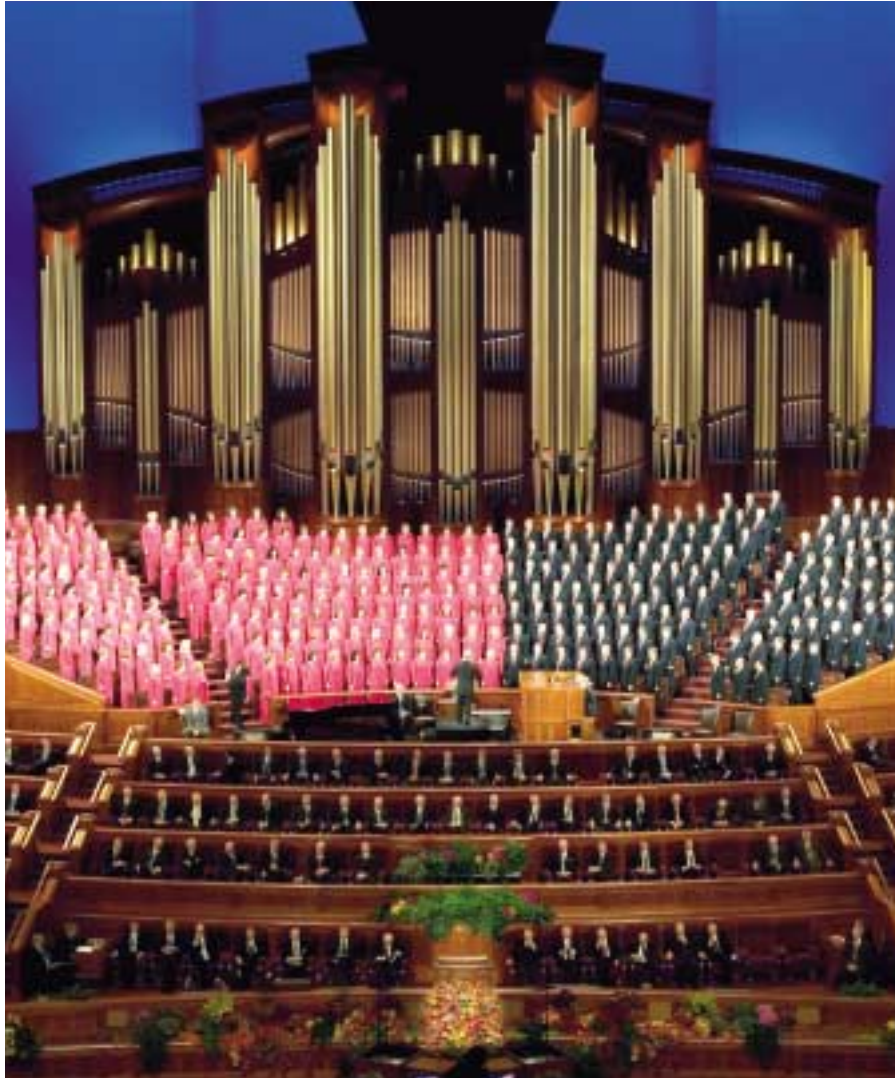


리아호나

A photograph of three men in dark blue suits and ties shaking hands in a formal setting, likely a church or conference. The man on the left is younger, the man in the middle is middle-aged with grey hair, and the man on the right is older with white hair and glasses. They are standing in front of a wooden panel wall. The man on the right is holding a blue folder and a cane.

연차 대회 말씀
두 명의 새로운
사도가 지지됨



앞 표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두 명의 새로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운데) 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왼쪽)를
맞이하고 있다. 2004년 10월 2일~ 3일에 열렸던 제174차 반연차 대회
의 개회사에서 힝클리 대관장님은 교회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더 뜨거운 생명력이 이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십이시도 정원회

앞열(왼쪽으로부터),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엘 톰 페리 장로, 러셀 엠 벨슨 장로,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조셉 비 워스린 장로, 뒷열(왼쪽으로부터),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테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핵심인 회장단

앞열(왼쪽으로부터), 알 시 텅기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찰스 디디에이 장로,
뒷열(왼쪽으로부터),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로버트 시 옥스 장로.

리아호나

2 제174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회 현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9 하나님 지니신 사랑의 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 12 영혼에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줌
데일 이 밀러 장로
- 15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18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2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3 "정원화란 무엇입니까?"
엘 톰 페리 장로
- 26 신앙과 열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30 내 양을 먹이라
네드 비 루에시 장로
- 32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 34 상호 부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보니 디 파킨
- 37 우리의 간증을 확고하게 함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 40 순수한 간증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신권 모임

- 43 속지 마십시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47 올바른 금식에서 오는 축복들
칼 비 프렛 장로
- 49 고통하는 시대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52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56 힘써 노력하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9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7 오늘 택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70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74 간증 기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76 주의 힘을 입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79 부부 선교사 그리고 복음
러셀 엠 넬슨 장로
- 82 우리 삶에서의 여성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6 이들 중 지극히 작은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89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일레인 에스 돌튼
- 92 우리의 성약을 지키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 95 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 98 거룩함도 더욱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101 전진하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104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상호부조회 총회

- 106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생득권입니다
보니 디 파킨
- 109 작은 일에서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1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 걸으며
앤 시 핑그리

113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17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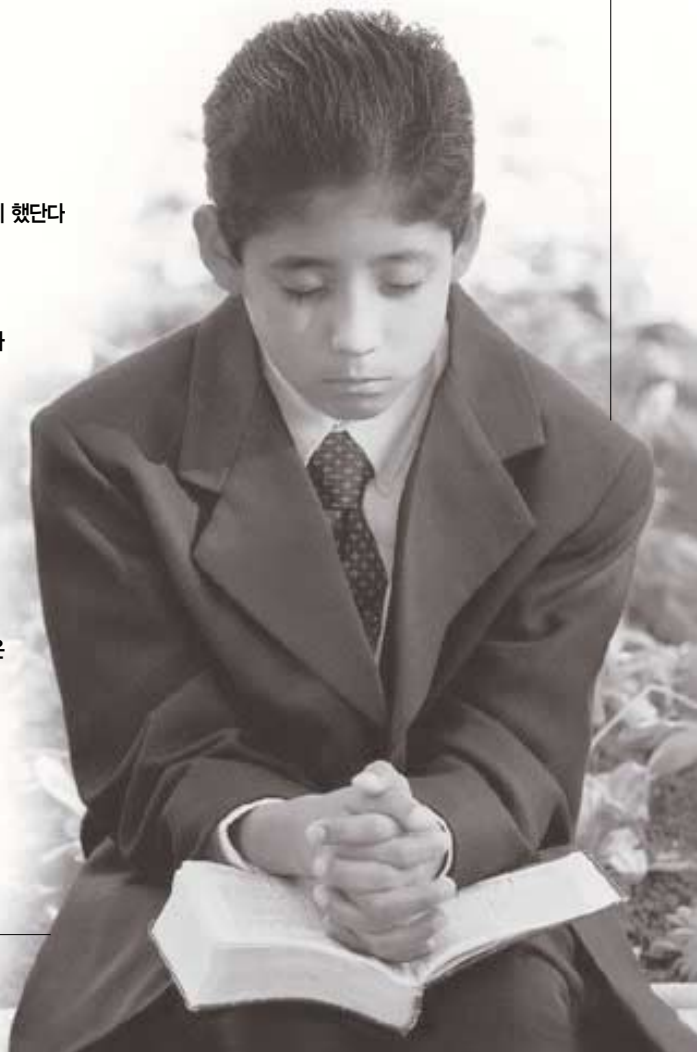
117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118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연차
대회를 삶의 일부로 삼음

120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121 아론 신권과 청년 참고 지도서

124 교회 소식



제174차 반연례 연차 대회 요약

2004년 10월 2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키스 크로켓 장로. 폐회 기도: 디 렉스 제렛 장로. 음악: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존 룡허스트와 클레이 크리스틴슨: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둥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선한 영향 주는 삶”, 찬송가 173장, 편곡 Cundick, pub. Jackman;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Come, Let Us Anew”, 찬송가 217장(영문),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2004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폐회 기도: 고든 티 와츠 장로. 음악: 유타 웨스트 조든 스테이크 초등학교 합창단; 지휘: 제인 누드슨 파울슨; 오르간 반주: 린다 마기츠: “Beautiful Savior”, 어린이 노래책, 62~63쪽(영문); 마기츠 편곡의 미출판 메들리(“주님도 한때 우리처럼”, 어린이 노래책 34쪽;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린이 노래책 35쪽;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43쪽);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마기츠 편곡의 미출판 메들리(“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17쪽;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87쪽)

2004년 10월 2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사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회 기도: 키스 비 맥멀런 감독. 폐회 기도: 메릴 시 옥스 장로. 음악: 몰몬 태버내클 남성 합창단과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존 룡허스트;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7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2004년 10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사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회 기도: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 폐회 기도: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 음악: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틴슨과 리차드 엘리엇;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주는 내 목자 되시어”, 찬송가 98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사랑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102~103쪽;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Still, Still with Thee”, 스토위와 셸리; “감사하는 백성이”, 찬송가 34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2004년 10월 3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발 알 크리스틴슨 장로. 폐회 기도: **앤디 헐** 장로. 음악: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기츠;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Adam-ondi-Ahman”, 찬송가 49장(영문),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플룻: 지니



저커리츠; 오보에: 미카 브런슨; 하프: 터머러 오우즈월드;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찬송가 74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보니 디 파킨. 개회 기도: 하이디 에스 스윈턴. 폐회 기도: 코니 디 캐논. 음악: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의 여성 단원들과 그들의 딸들 그리고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와 이전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의 여성 단원들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 지휘: 르베카 윌버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기츠;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찬송가 41장(영문),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Consider the Lilies,” 호프만, 라이온 편곡, 책만 발표;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Sing Praise to Him”, 찬송가 70장(영문), 윌버그 편곡의 미출판.

연차 대회 녹화 기록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대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전면: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후면: 사진 촬영: 매튜 레이어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몬드, 웰든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레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켈리 라슨, 탐러 에이치 라티에타, 스코트 데이비스, 마리오 루이즈, 에이미 피슬러와 돈 엘 설, 핀란드의 올리 헨니넨, 한국의 이민희, 타히티의 켄 왕 웨이 시앙과 엔 춘 아이가 촬영했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제11호

24991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미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더블유 롤프 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레스넬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홀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러트 네베카 오운, 수잔 브렛, 샤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윌렐, 킴벌리 웹,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64호, 제 41권, 제 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urch Copyrights and Permissions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04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

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59, 82, 104

네드 비 루에시, 30

맬린 에이치 옥스, 4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76

데일 이 밀러, 12

도널드 엘 스타헬리, 37

디미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74

러셀 엠 넬슨, 79

로널드 티 할버슨, 32

로버트 디 헤일즈, 70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92

리처드 지 스크트, 15

보니 디 파킨, 34, 106

보이드 케이 페커, 86

세실 우 사무엘슨 이세, 49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98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95

앤 시 핑그리, 111

엘 톰 페리, 23

엠 러셀 벨라드, 40

일레인 에스 톨튼, 89

제임스 이 파우스트, 18, 52

제프리 알 홀런드, 6

조셉 비 위스린, 101

존 에이치 그로버그, 9

칼 비 프랫, 47

캐서린 에이치 휴즈, 109

토마스 에스 몬슨, 22, 56,

67, 113

헨리 비 아이어링, 26

주제별 색인

가르침, 113

가족 역사, 89

가족, 34, 109

간증, 32, 37, 40, 47, 49,

70, 74, 76, 95, 101,

111

개종, 12

견해, 18

결혼, 82

겸손, 74, 76, 101

경건, 92

경전 공부, 37, 95, 109

계명, 92

계시, 6

교회 성장, 4

그리스도의 빛, 15

금식 헌물, 47

금식, 47

기도, 37, 47, 70, 109

물문경, 95

문맹 퇴치, 113

물질주의, 98, 101

병고침, 12

봉사, 23, 52, 56, 67, 74,

82, 106, 109

부모의 자격, 95, 98

부부 선교사, 79

사도직, 6, 23, 26, 74, 76

사랑, 9, 56, 82

상호부조화, 34, 106, 111,

113

선교 사업, 40, 79

선택의지, 32, 67

성신, 26, 32, 37, 40, 43

성약, 52, 92

성전, 4, 89, 104

성찬, 9

속임수, 43

속죄, 12, 76

순종, 92

신권, 23, 26, 52, 86

신앙, 18, 26, 67, 70, 86,

95, 104, 111

여성, 34, 82, 113

역경, 18

영구 교육 기금, 4

예수 그리스도, 9, 30, 32,

40, 49, 67, 70, 79

예언자, 6, 49, 70

은유함, 98

외설물, 59, 101

용기, 104

용서, 15, 30

우정 증진, 30

은총, 76

이혼, 82

인내, 101

자만, 101

자매애, 106

자비, 9, 34, 98

정원회, 23

준비, 106, 109, 111

중독, 15, 43, 59

책임, 56

청결, 59

청소년, 86, 89

평화, 12, 15, 32, 111

하나님 아버지, 9

함당성, 52, 86

활동화, 30, 56

회개, 15, 43, 59, 101,

104

회복, 6, 26, 40

희생, 89

교회 현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교회가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회는 시작되었지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과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매우 효과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별세에 조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장막 저편에서도 이 위대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건의 자연스런 과정에서 공석이 생길 경우 필연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 후 우리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그분들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을 잘 모르

시겠지만,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름에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이름도 대회 후반부에 있을 모든 역원들에 대한 지지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십이사도의 다른 분들과 함께 연단에 앉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일요일 오전에 말씀하실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이분들을 더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대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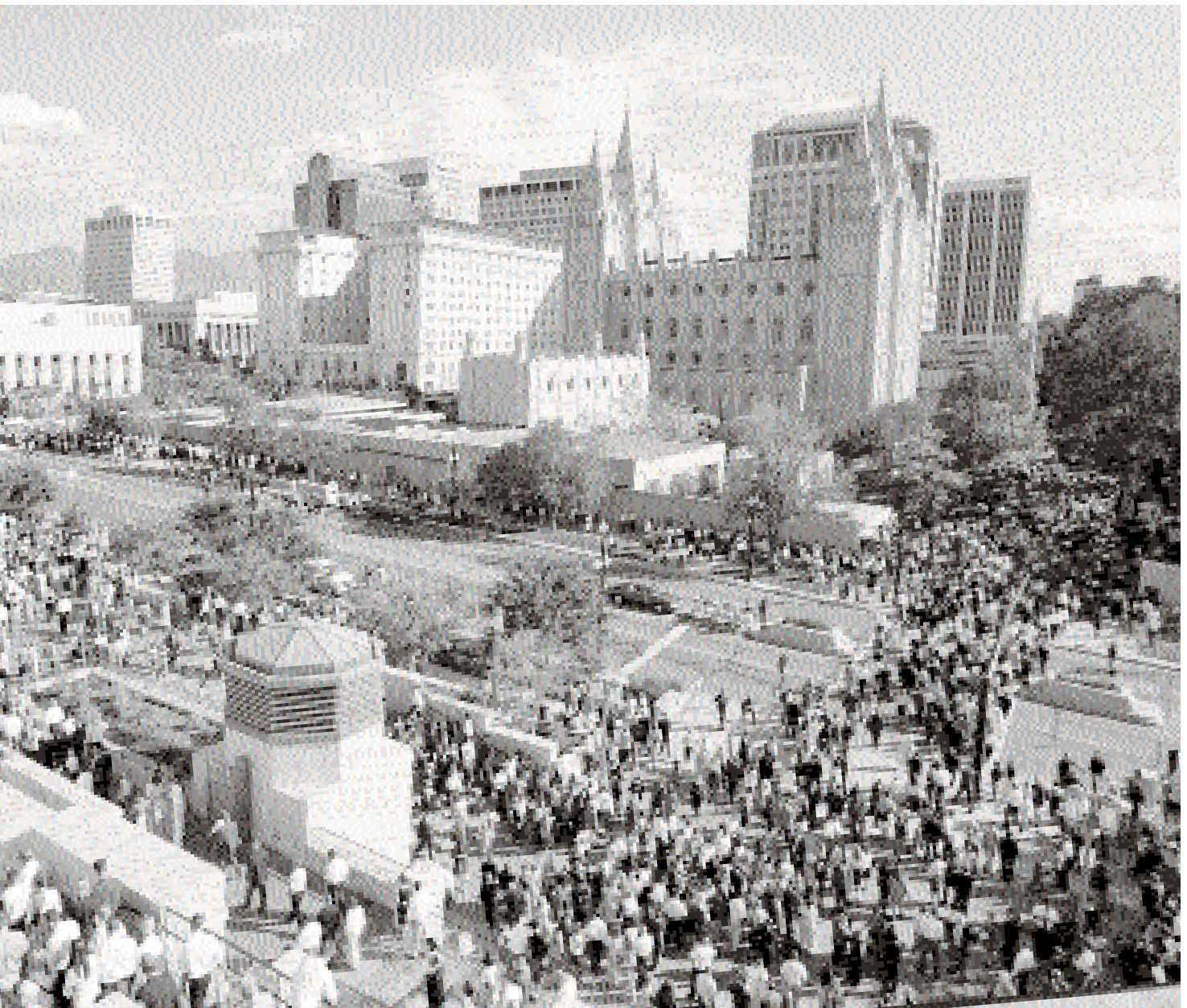
이러한 성장에 발 맞추어 지속적인 예배당 건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451개의 다양한 규모의 집회소가 건설 중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 프로그램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처럼 많은 건물을 지은 단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 건물들은 아름답습니다. 이 건물들은 해당 지역의 미관을 더해주고 있으며, 또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일에 오랜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전에 지어진 어떤 건물보다도 훌륭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건물들이 비슷해 보인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험하고 시도해 본 모험에 따라 건물을 짓기 때문에 회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수백만 달러를 절



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전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의 일곱 번째 성전인 새크라멘토 성전의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 곳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있는 주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에 소재한 성전들은 너무도 분주하여 때때로 과부하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트레이크 밸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곧 이 성전 부지가 발표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지역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현재대로만 계



컨퍼런스 센터에서 내려다 본 교회 행정 건물(왼쪽), 솔트레이크 성전(오른쪽) 그리고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의 건물들.

속 성장한다면, 아마 다른 성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이다호에도 다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그 곳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회원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렉스버그에도 성전이 건축될 예정이며, 트윈 폴스에도 또다른 성전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성전은 아이다호 폴스와 보이시 중간 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아바, 핀란드의 헬싱키,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와 새크라멘토, 그리고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로 파괴된 사모아 성전도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성전이 현납되면, 130개의 성전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현재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한 가지 주요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템플 스퀘어 주변의 환경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아주 거대한 건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업에 십일조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또는 개인적인 기부와 같은 자금을 통한 수입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솔트레이크 태버넌클은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건물은 137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독창적인 걸작품 중의 하나이며,

역사적으로도 광대한 흥미를 지닌 건물입니다. 실용성, 편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들이 잘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임을 하기 위해 만날 수 있는 컨퍼런스 센터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이 건물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영구 교육 기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 놀라운 사업의 수혜자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사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선교 사업에 더욱 커다란 영성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어느 곳이든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최근 물문경은 미국에서 발행된 가장 영향력 있는 20권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리 출판업체와 협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거물인 이 성스러운 책을 더욱 많이 보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 역사를 통틀어 어떤 시기보다 더욱 나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변천사의 약 95년을 함께했으며, 개인적으로 그 역사의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신앙, 더 많은 봉사,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큰 고결함이 있는 것에 흡족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더 뜨거운 생명력이 이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거만하거나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전능하신 분의 이 장엄한 사업에 빛을 더하고, 세계 만민이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강함과 선함의 근원으로서 빛을 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 지지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일 먼저 십이사도로서의 새로운 부름을 받고, 앞으로 있을 새롭고 아름다운 교분을 쌓게 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을 환영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십이사도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부름이 “서로 간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갖기 위한 것”¹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부드러운 말씀대로, 저

또한 사랑하는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과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작고 시 우리 모두가 느꼈던 개인적인 큰 상실감과 “죽음보다 강한 애정”을 포함합니다. 그 두 형제님께,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인 루비 자매님과 콜린 자매님께 각각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여러분의 봉사와 삶을 통해 보여 주신 모범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우리 각자는 두 분을 알게 된 것과 두 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의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소중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 전진해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기에 저는 오늘 아침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 직분과 그 영속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구세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직접 명명하신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의 부름인 그 직분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도 계속 그분의 인도 하에 지속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¹

“밖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²

훗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세주께서 “사도들과 선지자

들의 터”³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형제들과 교회의 다른 역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시 하에 봉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⁴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사도와 예언자의 터 곧 반석은 모든 시대에 축복이 되지만, 특히 역경이나 위기의 시대에, 어린아이같이 느껴지고 혼란스럽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며 약간 두렵다고 느끼는 시대에, 또한 인간의 사악한 손이나 악마의 악의가 우리를 뒤흔들거나 잘못 인도하는 시대에 축복이 됩니다.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여러분에 의해 지지됩니다. 교회 대관장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선임 사도로 지지 받으며, 교회의 모든 계시와 행정적인 열쇠를 행사할 권능을 지닌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신약 시대와 몰몬경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반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⁵, 즉 바울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위대한] 사도[요] 대제사장이시며”⁶ 모퉁잇돌이신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에 기초를 둔 그러한 토대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여러분을] 휘몰아 칠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었고 항상 보호해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더 많게, 혹은 더 적게라도 항상 있을 인생의 폭풍은 “[여러분이]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⁷

3주 전에 저는 애리조나 주 프레스코트에 있는 아름답고 작은 산간 마을의 스테이크 대



새로 부름 받은 두 명의 십이사도들에 대한 지지를 묻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말의 즐거운 행사들이 끝난 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눌 때 한 자매가 조용히 쪽지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쪽지에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에 대해 약간 망설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보다는 이 자매님이 가르치는 교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랜드 장로님, 이번 대회에서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1년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분께 사도들과 참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전히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산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일년도 안 되어 하나님 아버지는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저에게 보내 주셨고, 저는 비로소 그 모든 소망들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 때때로 장로님이 지치거나 힘들 때, 이 쪽지가 왜 장로님의 목소리를 듣고 장로님과 악수하는 것이 저에게, 또한 저와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글로리아 클레멘츠 자매.”

클레멘츠 자매님, 자매님의 다정한 쪽지는 저로 하여금 한때 비슷한 희망과 거의 같은 말이 언급되었던 저의 집안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나라의 초기 정착시 격동의 시대에 민첩하고 단호했던 저의 10대조 할아버지 로저 윌리엄스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사추세츠 주 베이 콜로니를 벗어나 오늘날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분은 그 곳의 수도를 그가 평생 추구해 온 성스러운 중재와 하늘의 나타내심을 뜻하는 프로비던스신의 섬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초기 신약 시대의 교회와 같이 참되다고 느낄 수 있는 교회를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실망한 구도자에 대해 유명한 카튼 마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마침내] [그의 추종자]들에게 자신도 오도되었으며 자신이 [그들을] 잘못 인도했고, 자신은 침례나 [복음의 어떠한 의식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 없음을 안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류하고 새로운 사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⁸ 로저 윌리엄스는 고대하던 새로운 사도들이 오는 것을 살아서 보지 못했지만, 저



는 미래에 그의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그러한 것을 살아서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성한 인도의 필요성에 대한 갈망과 기대는 복음의 회복을 위해 발판을 놓은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잉글랜드(초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시면서도, 결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말씀도 들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모순되게 보입니다.”⁹

훗날 거장 랄프 왈도 에머슨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뉴잉글랜드에서 정통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새로운 계시가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영감에 대한 교리가 상실되었습니다. 기적, 예언, 그리고 성스러운 삶은 [단지] 고대의 역사로서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듯 계시에 대해 다소 오래 전에 주어지고 행해졌던 것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참다운 교사의 직분입니다.”¹⁰ 본질에 있어 에머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빵을 달라는 사람에게 계속 돌을 준다면, 그들은 결국 빵집에 오

지 않게 될 것입니다.”¹¹

글로리아 클레멘츠 자매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역사의 거목들이 한 놀라운 비평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선교사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그 강력한 메시지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1820년과 1830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200년간 뒤따른 사건들은 계시와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오래 전에 주어지고 행해졌던” 것이 아님을 밝혀 줍니다.

에머슨이 신학 대학에서 암시적으로 그렇게 간청하는 연설을 한 바로 그 해 초, 영국에서 이 나라로 이주해 온 젊은 존 테일러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한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누가 참된 종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인간의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모순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계시의 원리를 거부하고 회의론과 불신앙에 그렇게 깊게 빠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계시 없는 종교는 조롱거리와 코미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경멸하고, 종교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 놀라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계시의 원리는 우리 종교의 참다운 토대입니다.**”¹²

현존하는 계시의 원리와 우리 종교의 참다운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 토대들로부터 21세기, 지금 이 곳의 현재로 돌아가 봅시다. 성직자들, 역사가들, 그리고 평신도들 개인이나 전체에게 그 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고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밝히십니까?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에 단호히 선언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거의 200년 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중요성은 그 선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질문인 동시에 답이었습니다. 요셉이 38년 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통해 이룬 다른 모든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성한 계시라는 확고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나 결과 없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모든 선한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잔잔한 영감의 일종도 아닙니다. 좋은 친구요 충실한 말일성도 학자가 간명하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근원이 합리주의 계몽 운동의 힘에 의해 공격 받던 시대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교를 그 근원으로 돌려 놓았습니다.”¹³

많은 날들을 풍파와 세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¹⁴ 우리는 1820년 봄날 아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의 아들이 영광 중에 14세 소년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신권의 열쇠들과 그에 따른 직분들을 회복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43년 전인 1961년 9월 30일 이 주말에(당시) 고든 비헝클리 장로가 이 경륜의 시대의 75번째 사도로 부름 받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도의 직분은 이와 같이 이어져서, 구세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정치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있는 떡과 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안전의 위대한 방패이시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초석이시며, 살아 계신 그분의 교회의 닦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계속하여 교회의 토대를 이루며, 만민의 구세주의 인도 하에 현재, 그리고 우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임무와 계시를 받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진리들과 이 사업의 성스러움에 대해 증거합니다. 저는 그 증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istory of the Church*, 2:197.
2. 누가복음 6:12~13.
3. 에베소서 2:19~20 참조.
4. 에베소서 4:14.
5. 할라맨서 5:12.
6. 히브리서 3:1.
7. 할라맨서 5:12.
8. *Magnalia Christi Americana*(1853년), 2:498.
9.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18권, The "Miscellanies" 501~832쪽, ed. Ava Chamberlain(2000년), 89~90쪽.
10.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ed. Brooks Atkinson(1940년), 75쪽, 71쪽, 80쪽.
11. 루이스 카슬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영적인 기근", *Ensign*, 1973년 1월호, 64쪽
12. "Discourse by John Taylor", *Deseret News*, 1874년 3월 3일, 68쪽
13. 리차드 엘 부시맨의 수필, "A Joseph Smit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Believing History* [2004년]. 인용은 274쪽에서 발췌했지만, 수필 전체를 읽어 보기 바람.
14.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참조.

하나님이 지니신 사랑의 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회장단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두려움을 없애고, 거리낌 없이 용서하고, 논쟁을 피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는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이 왜 이처럼 보편적인 기쁨을 불러일으킬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지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참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전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유대감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그분들을 극진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으

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된 사랑을 느낄 때면 부정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느낀 사랑이 이곳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선천적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채우며, 따라서 우주에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느끼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 (누가복음 10:27)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큰 사람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도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더 불순종하고 더욱 이기적인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더 적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빈 컵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는 시늉을 할 수는 있지만 갈증은 그대로 남

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 골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리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모로나이서 7:47~48)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선교사로서 저는 남태평양의 외딴 지역에 있는, 주민이 70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에서 봉사하도록 지명 받았습니다. 더위는 숨막힐 듯했고, 모기도 끔찍했으며, 어디를 가나 진창이었고, 언어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으며 음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달 후,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 닥쳐 우리가 사는 섬은 엄청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가옥이 바람에 날아가고,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신국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작은 배가 일반적으로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오기를 희망하며 4~5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아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매우 친절한 행동들이 있었지만, 적은 식량으로 여섯째 주와 일곱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본토인인 제 동반자 페키는 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8주째가 시작되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그늘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읽었으며 여러 시간 동안 영원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9주째가 되었을 때에도 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느꼈으며 그분의 사랑이 “어느 것보다도 얻고자 하는 것[이며] ...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니파이일서 11:22~23)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쯤, 저는 떠난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큰 경외심으로 심장이 고동치는 것과, 폐가 호흡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놀라운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하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구세주의 사랑, 속죄의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두 원소의 영원한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너무나 영감에 차고 만족스러운 것이어서 신체적인 불편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권력, 명예, 혹은 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실제로 속는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이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로켓이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 중력을 극복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해와 사랑의 영원한 영역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필멸의 삶이 그 선교 임지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삶은 계속되며 이생이든 내세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을 지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세와 영원에서의 우리의 기쁨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 영혼을 채우고 고양시켜

줄 때, 저는 어떤 흥분된 목소리를 차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반자인 페키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콜리포키, 배가 왔어요. 음식을 가득 실은 배입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장로님은 흥분되지 않나요?” 저는 확실치 않았지만 배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에 틀림없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기뻐했습니다. 페키는 제게 음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자, 먹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음식을 바라보고, 페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전처럼 지상에서 저의 삶이 계속되리라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도경하는 듯한 느낌 곧 연기됨에 대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아주 멋진 석양의 찬란한 빛을 덮어 갈 때, 그러한 아름다움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때처럼 말입니다.

제가 눈을 뜨고 싶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으나 눈을 떴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위, 진창, 모기, 사람들, 언어, 음식들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며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된 시기와 해, 달, 별, 지구, 아이의 탄생, 친구의 미소와 같이 그분의 사랑을 일깨워 주는 많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전, 기도의 특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일깨워 주는 성찬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뜻을 가지고 성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지혜와 사랑”이나 “지극히 날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고”(찬송가, 107장, 112장)와 같은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부풀게 하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 기도를 할 때,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그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



이번에 새로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왼쪽)와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시도록”(교리와 성약 20:77, 79)과 같은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벽찬 소망으로 채울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빵과 물을 취할 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와 같은 가장 놀랄 만한 말씀을 느끼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느낌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세상의 유혹은 강하며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나서 몇 달 후, 우리에게 또다른 태풍이 불어왔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있을 때였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거세어 우리의 작은 배는 전복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세 명은 노하여 요동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성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놀라고, 두렵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선교사는 수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살기 위해선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불평을 할 때마다 저는 물속에 파묻혔고 그래서 곧 불평은 그쳤습니다. 매사는 그 순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불평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고 해안까지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글 스카우트 상을 받은 저는 수영에 꽤 자신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과 파도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을 향해 가라앉고 있을 때, 주님은 제 생각과 마음에 매우 특별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느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를 보고 그녀(특별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멀리 12,8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 사랑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머나먼 거리를 달려와, 깊은 어둠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서 저를

끌어냄으로써 빛과 생명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건져 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힘으로 저는 해안까지 갈 수 있었고 배에 같이 있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참된 사랑의 힘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참된 사랑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행하거나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고,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두려움을 없애고, 거리낌 없이 용서하고, 논쟁을 피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자신에게조차도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잔인함, 그리고 부당함을 우리를 위해 견디어 내셨듯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통해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취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잔인함, 그리고 부당함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곳에서 지금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완전한 온유함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소 짓고 계시며, 동정심과 사랑을 가득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온유함, 친절, 자비, 그리고 돕고자 하는 소망을 가득 지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될 때, 그분은 그분의 순수한 사랑으로 즉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손길을 미치시고, 우리가 요동치는 어둠의 깊은 바다, 죄, 슬픔, 죽음 또는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올려 빛과 생명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혼에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줌

데일 이 밀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개종이 성숙해지고 성신의 역사를 통해 지속될 때, 평안과 치유가 영혼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곳 교회 본부에서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 있었던 한 모임에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지역 지도자의 지도력 발전에 대한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계셨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맥스웰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감독님들이 성도들에게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 주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그 분의 관심사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사무실에서 혼자 맥스웰 장로님은 평안과 치유를 얻는 것과 관련된 교리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제가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

한 말씀을 하는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이기심 없는 사랑의 훌륭한 모범이셨으며 또 그렇게 남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분의 염려는 강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분을 만나보고 사무실을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그 분은 구세주를 사랑했으며, 참으로 참된 사도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그립습니다.

그 분은 오직 영혼의 온전한 개종을 통해 완전한 평안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통찰력 있는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분은 완전한 개종에 이르는 단계에 관해 오래 전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으로부터 배운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 분은 롬니 부대관장님이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1963년도 연차 대회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개종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개종된다는 것과 간증을 갖는다는 것 역시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성신이 진리의 증거를 줄 때 생깁니다. 강한 간증은 신앙에 활력을 줍니다. 즉 그것은 회개와 계명에의 순종을 유도합니다. 반면 개종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 곧 보상입니다.(대회 보고, 1963년 10월호, 24쪽)

경전에는 극적인 개종의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종은 대체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경전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합니다.(대회 보고, 1963년 10월호, 23~24쪽 참조)

물론경에서 우리는 이노스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는데 그는 영생에 관한 부친의 가르침을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라” 이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이노스서 1:5~6)

우리는 예언자 엘마 이세가 그의 아들 힐라 맨에게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전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와 잘못을 명백하게 깨닫게 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부친 엘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마는 영원한 고통과 죄책감을 경험했으나 속죄를 통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

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앨마서 36:12~20 참조)

앨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죄를 없애 주시리라는 지식을 통해 영혼이 치유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치유되었을 때, 그는 내적인 평안을 얻었습니다. 앨마는 이러한 개종의 결과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힐라맨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이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앨마서 36:21) 그는 이노스의 부친이 했던 것처럼 영원한 평안과 기쁨에 이르는 모형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죄와 영생에 관해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아버지들이 따라야 할 모형입니다.

앨마의 개종에 대해 몇 가지 교훈적인 점들이 생각납니다.

1. 그는 이노스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과거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2. 그는 이노스처럼, 부친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한 속죄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3. 그는 이노스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개인적으로 간구했습니다.

4. 그는 이노스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한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속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대한 치유는 완전했으며, 그것은 생각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비통함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노스처럼, 즉시 주님과 그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주님은 이노스와 앨마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해 주시겠습니까?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구하시기 위해 무한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분에게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개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Mere Christianity* [1943년], 131쪽)

이러한 개종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기록이 경전에 있습니까? 많은 예가 있습니다. 베냐민 왕 시대의 성도들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왕인 예언자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친 것을 들은 후에 성도들이 보인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읽

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 믿나이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더 이상 악을 행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

“이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의



대관장단(가운데)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계명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께 언약하여 ... [끝
없는 괴로움을 자초하지 ... 앓게 하려 하나
다 하니]"(모사이야서 5:2, 5)

여러분은 그들의 말이 여러분이 침례 성약
에서 맺는 결심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37 참조)

개종의 축복과 약속은 침례와 확인 그리고
모든 신권 의식과 성전 의식을 통한 성약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
및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으로써, 개인의 삶에
서 개종의 열매가 성장하고 무르익어 갑니다.
개종이 성숙해지고 성신의 역사를 통해 지속될
때, 평안과 치유가 영혼에 오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롬니 부대관장님에게
자신이 개종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
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습
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성령의 권세로 치
유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자신이 느끼는
방법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
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모사이야서 4:3)(대회 보고, 1963

년 10월호, 25쪽)

베드로는 완전한 개종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신
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 또
한 1~3, 5~9절 참조)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함
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듯 완전한 개종
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주님의 종일뿐 아니라 그분의 친구가 되는 방
편이기도 합니다. 초기 회복의 시기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
의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친구여,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
려니와”(교리와 성약 84:77)

작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제프리 알 홀런
드 장로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에 관해
가르치시고 자신의 느낌을 전했습니다. (“하나
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73쪽 참조)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영원한 중요
성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중재
의 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인용했습
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요한복음 17:3)

그는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의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
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알기 원
하며, 그분과 친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History of the Church, 6:305)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은 개
종의 과정에서 옵니다. 이노스와 엘마는 그것
을 알아냈습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들도 그것
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계명에 순
종하는 자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종은 무한한 것이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
입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내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일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교리와 성약
84:45~46; 88:11참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성신의 느낌을 일깨우는 것을 의
미합니다. 성신의 느낌은 우리를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침례 성약을 받
아들인 후에 성신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신의 은사는 제자로서의 우리를 인도하고 위안
을 주며, 구세주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해 줍니
다. 그러면 구세주께서는 아버지에게 대해 우리
의 증보자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요한복음
14:6; 로마서 8:17; 교성 45:3~5)

우리는 성스러운 예언자들이 남겨 놓은 위
대한 가르침과 사상이라는 풍족한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
니다.

그들의 간증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줍
니다. 그들의 말씀과 간증에 귀를 기울이십시
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평안을 찾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실제하며 틀림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
지와 그분의 아들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분들이
며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영
의 권세로 그러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 모든
진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와 행복은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증가되는 이 시기에,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고민과 고뇌와 고통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와 행복은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축복의 근거가 되는 원리들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 각자가 양심의 평안이라는 최상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¹ 평화로운 양심은 고뇌, 슬픔,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불러옵니다. 그것은 행복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상태이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너무도 빈번히 양심의 평안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저는 양심의 평안을 너무도 풍족히 받았기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견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양심의 평안은 마음의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양심의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인 마음의 평화를 지닐 수 없습니다. 양심의 평안은 여러분의 내면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심의 평안은 의롭고 순종적인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평화는 빛나간 자녀, 경제적 압박, 실제적 또는 가상의 마음의 상처, 퇴보하는 세계 정세, 또는 적은 시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염려 등의 외적인 힘에 의해 너무도 빈번히 영향을 받습니다만 불안정한 마음은 일시적이며,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그것을 어지럽히는 외적인 힘을 해결함으로써 회복됩니다. 그러나 고통 받는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일을 해결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범법을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멈추지 않고 항상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술과 마약, 외설물, 기타 나쁜 것이 주는 유혹에 굴하여 마음과 육신을 자

극함으로써 어지럽혀진 양심을 일시적으로 달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받는 양심을 진정시키겠다는 거짓된 노력에 대한 증가된 욕구에서 초래된 것으로 잔인한 중독의 위험을 불러 옵니다.

양심의 평안을 되찾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양심을 갖는 능력은 여러분이 이 필멸의 삶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신성한 권세 또는 영향력입니다.² 그것은 만물에게 빛과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이성을 가진 지상의 모든 개체들로 하여금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활성화시킵니다.³ 그 영향력은 범법과 중독으로 약해질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회개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영향력이며 그것에 따를 때 사람은 성신의 인도와 영감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⁴

양심의 평안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외적인 염려들로 인해 방해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의 많은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주님의 가르침에 일치시킬 때, 여러분은 고통을 주는 사항들을 해결함에 있어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 해결책을 찾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보다 큰 개인적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스런 느낌을 일으키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은 종종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적인 동요를 일으킨 개인적 범법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은 양심의 평안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근심 걱정과 마음의 고통을 일으킨 외적 압력을 해결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고통 받는 양심에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깨어진 율법을 개인적으로 만족시키기 전에는 영속적인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필요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용서 받기에 충분히 회개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양심의 평안이 토

대를 두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죄나 범법으로 깨어진 율법은 상처 받은 양심으로 인해 마음과 정신의 고뇌를 일으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분의 영의 자녀 모두가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그분의 율법을 범할 것을 아셨기에 그런 행동의 결과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크건 작건 간에 해결책은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한 완전한 회개입니다.

때로 완전한 회개는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함, 죄를 버림, 보상, 순종, 용서를 구함과 같은 회개의 고전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감독과 상의하거나 김볼 대관장님의 명작, *용서가 낳는 기적*과 같은 자료를 공부하십시오. 그런 요건들을 완전히 갖추는 것 외에 때때로 인식하지 못한 또다른 절차에 조심스럽게 주목할 때 양심의 평안이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용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점을 구세주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해야 하니, 나와 그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대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시게 하자 하라.”⁵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⁶

다른 사람이 무죄한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심각한 잘못을 했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것에 대해 증오나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백한 경우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런 용서란 참으로 힘들지만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치유에 이르는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행해진 심각한 범법에 징계가 요구되더라도, 그것을 교회와 사법 당국에 맡기십시오. 보복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에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공의의 맺들은 천천히 들겠지만 그 기능은 아주 좋습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율법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범법의 결과로부터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



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회개하지 않은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 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회개에 필요한 모든 단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직 그분의 조건에 따라서만 용서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⁷ 그것은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심각한 범법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믿도록 만들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성신을 거스리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범법의 결과가 회개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세주께서 목숨을 바치셨음을 간증합니다.⁸

참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용서이며, 그것은 이 지상에 주어진 모든 성약과 의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는 문을 열어 줍니다. 회개가 온전하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삶의 새로운 비전과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다음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⁹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현재도 충실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뜨린 율법으로 양심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고 간청 드립니다. 개인적인 순수함이라는 시원하고 활기 있게 해 주는 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온정과 보호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때 오는 양심의 안정과 평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론경을 주의 깊게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를 가로막는 장벽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구가 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마는 시블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에서 연차 대회 방송에 참석한 천 가족.

“이에 사흘 밤낮을 심한 영육의 고통과 피로움 속에 지냈으며,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구할 때까지 죄 사함을 얻지 못했었나니, ... 주께 간청하매 영육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느니라.

“나의 아들이야, 내가 이미 네게 이른 대로 너희가 배워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니, 너는 지혜를 배우라. 또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 배우라. 보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며, 의와 진리의 말씀이시니라.”¹⁰

여러분은 고통이 용서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의 은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주러 온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 들일지니, ... 그러므로 ...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으지어다.”¹¹

물론경의 가르침을 적용하십시오. 구세주에 관해 언급하는 구절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

오. 그분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을 마치도록 도움을 주시는 자상한 감독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양심의 평안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질서 잡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곁에서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디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의 판사가 여러분이 이미 적절하게 회개했다고 인정했는데도 과거의 심각한 범법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자주 되새김으로써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저는 온 영혼을 다해 여러분에게 구세주의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간청드립니다.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 회개하는 자는 자

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¹²

적절한 회개가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괴롭히는 것은 구세주의 속삭임이 아니라 여러분을 눈멀게 하고 예속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속임수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행동이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과거 잘못의 세세한 내용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다시 체험하도록 여러분을 내몰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여러분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꽂꽂 묶으려 시도합니다.

간중 드리건대, 감독님이나 스테이크장님이 여러분의 회개가 충분하다고 확인했을 때,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이 깨뜨린 율법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점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부디 그 점을 믿으십시오. 충분한 회개 후에도 죄의 괴로운 결과를 지속적으로 겪는 것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치른 구세주의 속죄의 효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전 잘못된 기억이 암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용서의 기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통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구세주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고마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¹³ 가서 부디 이처럼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그것에 부수되는 모든 축복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아서 4:2~3 참조.
2. Topical Guide, "The Light of Christ", 290쪽 참조.
3. 모로나이서 7:16 참조.
4. 요한복음 1:9; 교리와 성약 84:46~47 참조.
5. 교리와 성약 64:10~11.
6. 마가복음 11:25~26.
7. 니파이서 9:22~24; 엘마서 11:40 참조.
8. Unpardonable-히브리서 6:4~8; 엘마서 39:6; 교리와 성약 76:31~38; 132:27; Unforgivable-교리와 성약 42:18 참조.
9. 교리와 성약 58:42.
10. 엘마서 38:8~9.
11. 니파이삼서 9:21~22.
12. 교리와 성약 58:42~43.
13. 엘마서 26:17~20 참조.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로님과 베드나 장로님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제 말씀이 오해되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 충실하도록 노력하여 주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생에서 걸로 보기에 아픔과 고통, 재난과 비탄 등이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권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는가?”

“나의 부친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항상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잔혹하고 사람을 무능하게 하는 뇌졸중에 걸려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는 모친을 두 번이나 잃어야 했는가, 한 번은 치매의 영향으로 두 번째는 사망으로?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의 어린 딸을 죽게 하셨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핑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기는 금보다는 납으로 가득 찬 시기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제가 이 곳에 앉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신경을 꼬집듯 아프게 했던 디스크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고하신 십이사도 평의회 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이 훌륭히 봉사하심으로써 세상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실감은 크지만, 힘과 신앙의 형제들로 우흐트도르프 장

가? 그 아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왜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인생은 공평치 않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일을 했는데도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더 웬트워스 휴이트 박사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난 모른다. 둘째,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 그분은 우리의 행복 못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모든 선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재앙을 겪어야 한다면, (종종 그 반대인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인격의 파괴가 될 것이다.”¹

김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완전한 형벌이 즉각 뒤따른다면, 아무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기쁨과 평안과 보상이 주어진다, 세상에는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행에 대한 공정함 때문에 선을 행할 것입니다. 능력의 시험도 없을 것이고, 성품의 발전도 없을 것이며, 힘과 선택의지의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 또한 기쁨, 성공, 부활, 영생 및 신의 성품도 없을 것입니다.”²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이기적인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모든 고통은 참으로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1막짜리 연극과 같지 않습니다. 인생은 3막의 연극입니다. 전세의 존재로 있을 때 우리는 1막의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필멸의 존재로 2막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3막을 펼칠 것입니다.³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⁴ 우리는 시험을 받기 위해 필멸의 세상에 왔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⁵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고난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영원한 세상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⁶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느니라.”⁷ 그러므로 환란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원한 계획에 대해 신앙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비참해지고 희망을 잃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19세기의 작가로서 유머와 유쾌한 문장력으로 성공과 부를 성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종교적인 가





정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싶어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1893년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그는 큰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회 강연을 하는 동안 큰딸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악화되어 19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딸은 1909년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한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작품은 이제 그의 비통함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낙담하고, 냉소적이고,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1910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석했음에도 그는 역경을 이겨 내는 내적인 힘이 부족했으며 결국 자신의 불운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마서에 있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오랜 전쟁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강박하여졌으나, 한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⁸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상반되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작가는 자신을 지탱할 만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필멸의 준비 기간의 한 부분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 도움을 줄 신앙의 창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1844년에 교회에 가입한 웨일즈의 개종자 토마스 자일즈도 그의 생애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광부였는데 하루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다가 커다란 석탄 덩이에 머리를 맞아 23센티미터나 되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를 살펴본 의사는 그가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완쾌될 것이며 “맹인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일즈 형제는 회복되어 살아났으나 여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교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1856년에 자일즈 형제와 그의 가족은 유타 주로 이민했습니다. 조국을 떠나기 전에 웨일즈 성도들은 그에게 하프를 선사했고 그는 매우 훌륭한 하프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카운슬 블러프에서 그는 서부로 향하는 손수레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맹인이었으나 그는 손수레를 끌고 카운슬 블러프에서 솔트레이크까지 왔습니다. 평원을 횡단하는 동안 그는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무척 컸으며 크게 상심했으나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고대에 어느 사람이 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⁹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은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자일즈 형제에게 웨일즈에서 그의 하프가 도착할 때까지 값비싼 하프를 빌려 주었습니다. 자일즈 형제는 유타 주에서 이 마을저 마을을 다니며 감미로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¹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선택들 중 일부는 좋은 나쁜 보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보에 의거한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에 의거한 선택에는 부적절한 성관계, 약물, 알코올, 담배 등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정보에 의거한 선택은 선교 사업을 하러 가거나 성전 추

천서를 받는 일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성 과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 어렸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나중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어디에 위치를 정해야 합니까? 매일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 보일 때,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생은 시험의 시간이며 완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련에 직면합니다. 교회 초기의 각 회원들은 자일즈 형제가 신앙을 갖고 모든 것을 포장마차나 개척자 손수레에 실은 채 미대륙을 횡단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을 때처럼 시험 받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지니고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험과 완전케 되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미묘합니다. 우리의 공공 통신 기관에서도 성스럽게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성약에 대한 결의를 갖고 항상 서 있을 곳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자”¹¹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탄은 주님으로부터 욥을 유혹하고 시험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욥은 부유했으며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으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¹²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¹³ 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¹⁴ 욥은 주님이 다른 모든 걱정을 보살피 주시리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이생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은 욥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건디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구세주와 함께할 수 있는 무한하고 값진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구절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¹⁵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¹⁶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실지 정확하게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에서 많은 굴곡과 커브와 갈림길에 직면합니다. 그 길을 여행할 때 많은 가르침과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건디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¹⁷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¹⁸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의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행이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¹⁹ 낮게 하는 일들 중 일부는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왜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어떤 이유들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일부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는 통찰력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될 모든 예지의 존재들은 영광과 승영을 얻기 위해 예지의 존재들이 경험하도록 예정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장차 주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자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온갖 재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 온 시련과 경험은 모두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입니다.”²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경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무한히 가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세주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실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와 승영을 누릴 것을 기대하십시오.”²¹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의 예언자이시고, 이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한 편지에서 발췌.
2.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1982년), 77쪽.
3. 전도서 12:7.
4. 요한복음 14:2.
5. 아브라함서 3:25.
6. 로마서 8:18.
7. 교리와 성약 58:4.
8. 앨머서 62:41.
9. 욥기 1:21 참조.
10. Andrew Jenson, *Latter-day Saint Biographical Encyclopedia*, 4 vols. (1901~1936년), 2:507~508쪽 참조.
11. 욥기 1:1.
12. 욥기 13:15.
13. 욥기 13:16.
14. 욥기 19:25~26.
15.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7절.
16.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64쪽.
17. 교리와 성약 136:31.
18. 히브리서 12:6.
19. 열왕기하 20:5.
20.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존 에이 윗소(1954년), 345쪽.
21. “Remarks”, *Deseret News*, 1871년 5월 31일, 197쪽.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문졌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으로 인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에서 그리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수고하신 이 레이 베이트먼, 발 알 크리스텐슨, 키스 크로켓, 메릴 시 옥스, 고든 티 와츠, 그리고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들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이 제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형제님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에서 해임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후완 에이 알바라데조, 홀리오 이 알바라도, 모데스토 엠 아미스타드 이세, 호레이시오 피 아레이아, 로버트 케이 빌즈, 해럴드 시 브라운, 브이 프란시스코 친차이, 아만도 가오나, 에드와도 에이 라마틴, 게리

에스 마트수다, 홀리오 이 오타이, 카를스 엘 페드라자, 조지 에이 페드레로, 자웅 알 시 마틴스 실바, 이라자 비 소아리스, 헥터 엠 버두고, 조지 에프 제발로스.

지지하시는 분은 감사의 뜻으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시 옥스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엠 포드 형제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정원회란 무엇입니까?”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 소유자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는] ...
신권 정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원 회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일으키리라.

“이 교회는 너희 주의 천팔백삼십 년 넷째 달 곧 사월의 여섯째 날에 조직 설립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21:2~3)

이 날은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그리고 스미스 가족과 휘트머 가족이 뉴욕 주 세네카 군 페이테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적절한 노래와 기도 후에 교회의 조직에 관한 계시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신권의 반차와 교회에 있는 역원들의 의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형에 따라 오늘날 교회의 모

든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전에 주어진 계명에 따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참석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있어서 자신과 올리버 카우드리를 그들의 교사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계명에 따라 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에 가까이 동의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Vol 1., 196쪽)

이렇게 하여 우리는 초창기에 확립된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간절한 기도와 굳은 신앙으로써 교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수행되어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신앙으로써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6:2)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힘차게 올려진 그 손들을 보노라면 제 온 몸을 격동시키는 듯한 특별한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십이사도 정원회에 두 명의 새로운 회원들이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서, 그리고 지상의 거의 모든 곳에 중계되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그리고 위성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과 베드나 장로님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과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부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지지 받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두 팔을 벌려 우리가 가진 이 성스러운 부

름의 일부가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물론 지금 헤이트 장로님, 그리고 맥스웰 장로님과 가졌던 교분이 그림기도 합니다. 헤이트 장로님은 지난 28년 동안 이러한 대회들에서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오랫동안 헤이트 장로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헤이트 장로님의 열정적인 정신이나 맥스웰 장로님의 정교한 언어 능력을 갖고서 제가 이 두 훌륭한 형제님들과 경험했던 오랜 교분에 대한 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은 제 인생에 너무도 많은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같이했던 이 교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십이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세계를 다니면서 행한 사업에 대해 풍부한 전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37년 6월 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히버 시 김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45년], 104쪽에서 인용)

영국을 향해 집을 떠나는 히버 시 김볼과 브리감 영의 이야기는 그들이 받았던 부름에 대해 가까이 치른 그들의 희생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39년] 9월 14일, 브리감 영 회장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몬트로스에 있는 집을 떠났다. 그는 너무 몸이 아파도 움 없이는 150미터 떨어진 미시시피 강으로 갈 수조차 없었다. 강을 건넌 후 그는 이스라엘 발로우가 모는 말의 뒷자리에 타고 우리 집으로 와서는 18일까지 계속 아팠다. 그는 병든 아내를 태어난 지 겨우 3주 된 아기와 함께 두고 왔고, 다른 모든 자녀들도 아파서 서로를 도와줄 수도 없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물 한 통을 길러 우물로 갈 수 없었고, 미주리에서 폭도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도 없었다. 17일에 한 소년이 매리 앤 영 자매를 마



차로 실어 집으로 데려 올 수 있었으며 그녀는 그 곳에서 영 형제를 간호하고 위로했다.”(*Life of Heber C. Kimball*, 265쪽에서 인용)

히버 시 김볼의 가족 또한 병에 걸려 있었다. 찰즈 허바드는 두 사람이 여행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한 아들을 구조팀과 마차와 함께 보냈다. 김볼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과 다름 없는 그런 상태에 가족을 두고 떠나는 순간,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느꼈다. 마부에게 멈추라고 부탁하고는 브리감 형제에게 말했다. ‘이렇게 떠나면 너무 모질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저들에게 용기를 줍시다.’ 우리는 일어섰고 머리 위로 모자를 세 번 흔들며 소리쳤다. 만세, 이스라엘 만세” 영 자매와 김볼 자매는 문으로 나와 작별을 고했고, 그것은 브리감과 히버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으며 그들은 “전대나 지갑 없이” 영국을 향해 여행을 계속했다. (*Life of Heber C. Kimball*, 265~266쪽 참조)

성경 사전에는 사도란 “... 보내진 자”이며, 사도의 부름은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특히 그분의 신성과 죽음으로부

터 살아난 그분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숭고한 부름을 지닌 열두 명의 형제들은 사역에 있어 행정적 평의회를 구성한다. ... 오늘날 이와 같은 신성한 부름과 성임을 받은 열두 명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612쪽)

오늘날도 사도는 계속해서 “보내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행할 때 당면하는 상황은 초기 사도들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여행하는 방법도 초기 사도들의 방법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구세주께서 그분이 직접 부르신 십이사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20)라고 가르치실 때 주신 임무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새로운 사도에게 저는 정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로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의회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존경심이 교회의 모든 정원회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 교사, 제사, 장로, 대제사 정원회 여러분들은 신권 소유자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것에 잠시 귀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 특별한 축복은 바로 신권 정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님은 오래 전에 교회 행정에 관한 훌륭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의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의 독특한 특성은 평의회를 통한 행정입니다. ... 저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평의회에서 봅니다. 그것은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로 일하면서 우리는 의견상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 견해들과 매우 다른 배경을 갖고 만나, 그 영의 작용 아래에서 서로 권고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대로 평의회에서 논의한다면,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께 주저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 (Conference Report, 1953년 10월, 86쪽)

그리고 여러분이 정원회에 속함으로써 경험

하게 될 커다란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정원회는 세 가지가 함축된 것입니다. 첫째, 공과 반입입니다. 둘째, 우애입니다. 셋째, 봉사 단위입니다.”(Conference Report, 1938년 10월, 118쪽)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기능에서 이 독특한 특성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왕국의 교리를 함께 공부할 때 우리는 한 반입입니다.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에스라 테프트 벤슨 장로,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또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로부터 복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도들 중에서 누구를 편애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끝낸 형제님들만 거명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축복을 여러분의 각 정원회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사도들의 말씀을 경전과 연차 대회 말

씀, 교회 잡지, 영적인 모임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왕국의 교리들의 권세를 여러분의 정원회 공과 시간에 가져오기 위해 그 말씀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복음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정원회를 공과 반으로 만드십시오.

정원회에서 우리는 특별한 형제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서 부름의 영으로 서로를 고양시켜 주고 영감을 주며 축복해 줍니다. 무거운 짐을 진 한 형제가 있다면, 그 짐을 들어올려 주고 나누고자 하는 열한 명의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취감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때엔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 결코 문제를 홀로 직면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정원회에는 언제나 권고, 지지, 도움, 그리고 격려가 존재합니다.

신권 및 교회 행정 책자에는 신권 정원회에 있어야 할 형제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권은 복음의 뼈대를 구성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율법들에 의해 유지되는 위대한 형제애입니다. 형제애의 느낌은 정원회에 스며

들어야 합니다. 형제애가 정원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물질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는 모든 회원들을 도와야 합니다. 형제애의 정신은 정원회의 모든 계획과 운영에서 지시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이 현명하게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다른 어떤 조직도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러더저 클로슨, *A Guide for Quorums of the Melchizedek Priesthood* [1930년의 서두, 3쪽; 존 에이 윌소, comp., *Priesthood and Church Government* [1939년], 135쪽에서 인용) 교회의 각 정원회가 그러한 형제애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국 정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책임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느낌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평의회 의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윌포드 우드러피 쓴 1886년 10월 26일자 서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에게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무르익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시은은



신앙의 재림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의 영으로 가득찰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의를 이루며, 끝까지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사업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오늘날 보다 더 충실한 간증과 수고를 요구했던 때가 없었습니다.”(Deseret News Weekly, 1886년 11월 24일, 712쪽)

여러분의 정원회 하나하나를 정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위대한 봉사 조직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경전에서 경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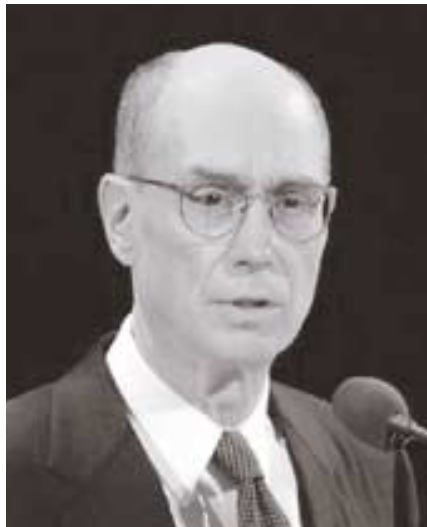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99~100)

십이사도 정원회에 이제 막 들어온 두 형제님과 하나님의 신권에 속한 모든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부름에 따라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의 안에서 봉사하며, 충실하게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강화되기를 빕니다. 영원한 진리의 샘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의 간증이 더 커지기를 빕니다. 필멸의 삶을 헤쳐 나가면서 우리의 정원회에 있는 형제애를 통해 위안과 힘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 안에서의 봉사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신앙과 열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봉사하는 분들이 신권 열쇠를 지닌다는 것을 영감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솔 트레이크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예배당에서, 즉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도들이 거의 가지 못하는 곳에서 한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이름을 부르고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분이 사도님이시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냥 귀한 방문객을 만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음을 그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신권 열쇠가 지상의 주님의 교회에 있다는 확신을 아들이 느끼기를 아버지는 바랐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거듭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가 결코 보지 못했던 장래의 어느 예언자로부터 자신을 선교 사업에 부르는 편지를 받게 될 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나 아내 또는 부모를 땅에 묻을 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지시를 따르기 위한 용기를 낼 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원히 묶어주는 인봉의 권세를 받을 때 오는 위안을 위해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오늘날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구도자들에게 감독이나 지부장을 만나라고 권유합니다. 선교사들은 구도자들이 좋은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는 정도 이상의 느낌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서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구도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구도자들은 침례의 물가로 갈 때 그런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일조를 낼 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독이 영감을 받아 그들에게 부름을 줄 때 그런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독이 성찬식을 감리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양육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나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의 종들이 신권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영구적인 간증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간증을 심어주고 강화시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몇 가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신권 권세의 축복을 주는 일에서 끈기 있고 관

대하십시오. 둘째, 그분의 자녀들은 스스로 그런 축복들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것들을 받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의의 적인 사탄은 신권 권세에 의해 가능하게 된 그 축복들을 받는 데 필요한 신앙을 없애기 위해 태초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거의 25년 전에 한 현명한 교사에게서 그런 원리들에 관해 배웠습니다. 저는 에베소에 있는 고대 극장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 있던 대지에 밝은 햇빛이 내리쬐었습니다. 제 말씀 주제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수백 명의 말일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천년 훨씬 이전에 에베소인들이 앉았던 여러 줄의 계단형 돌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 중에 두 분의 살아계신 사도,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상상하시듯, 저는 주의 깊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두 책 모두 바울과 그의 동료 사도들에 관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한을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울과 그의 직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아 계신 두 분의 사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파우스트 장로님께서 저를 따로 데려가시더니 미소를 띠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몇 주 후에 말씀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 후로도 제게 큰 가르침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귀중한 간증을 갖고 또 그가 지녔던 열쇠의 권세를 갖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사도들이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다시 살펴보게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서 그분의 사도를 거쳐 주님의 교회 회원들이 에베소인들에게 이르는 신권 열쇠의 고리가 지닌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싶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열쇠에 관한 간증을 쌓아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신권의 모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구세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및 모범의 분명함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배도가 올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지상에서 거두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관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쓰며, 주님께서 하

실 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¹

바울은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될 시대에 있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성역을 고대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왔고 필멸의 인간에게 아론 신권과 천사의 성역 및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고대의 사도와 예언자들이 돌아와 그들이 필멸의 세계에 있을 때 갖고 있던 열쇠를 요셉에게 부여했습니다. 1835년 2월에 필멸의 인간이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1844년 3월 말경에는 신권의 열쇠가 십이사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소중한 신권 열쇠와 사도의 직분이 다시는 잃어버려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던 윌포드 우드럽은 나부에서 예언자가 십이사도들에게 말씀할 때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이런 기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 요셉은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살아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 있을 때 결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인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열쇠, 권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원리들을 인봉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로 가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왕국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²

요셉 이후, бри감 영부터 힝클리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그 열쇠들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행사해 왔으며 또한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처럼 우리를 위한 신권 열쇠의 권세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권 열쇠를 지닌다는 것을 영감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교회를 이끄신다는 우리의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신권 열쇠를 회복하셨음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쇠들이 중단 없이 살아 계신 예언자들에게 전해져 왔으며,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언자와 사도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스테이크장과 지방 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감독과 지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신권 열쇠의 권능선을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성신의 증거로써 자주 새롭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 확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인된 종을 알아보는 것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의 명량한 기질을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풍모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도를 기만하여 신권 열쇠를 믿는 신앙을 깎아 내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간증을 약화시키고,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결속시켜 우리와 우리 가족을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신 신권 열쇠의 권능선으로부터 우리를 느슨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요셉 스미스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허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눈과 귀를 통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은 신권 열쇠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더 이상 간증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약점을 찾는다면 항상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들의 약점을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 약점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쓸 때, 우리는 그들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것을 즐기는 잔혹한 운동경기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선거 전략의 기본이었습니 다.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의 주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신문이 팔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결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충실하게 남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 그분의 권세를 인식하는 눈을 훈련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신이 동반하실 만큼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갖고 있을

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봉사에 온전하게 참여할 때 그런 기도가 여러 차례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난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6월의 어느 날, 아이다호에서 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물줄기가 그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덮쳤습니다. 대부분이 말일성도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이 힘겨운 복구 작업에 직면했을 때 저는 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스테이크장이 감독들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외부에서 어떤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연방 재난 단체의 한 책임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지역 지도자들의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임을 인계 받으려 했으며, 큰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각 항목을 소리 내어 읽었을 때, 스테이크장이 “우리는 이미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분 후에 연방 관리의 잠잠해지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테이크장이 감독에게서 보고를 받고 지침을 주는 동안 그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임을 위해 다음 날 그 연방 재난 담당 관리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스테이크장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보고를 받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몇 분 후에 자신이 속한 훌륭한 단체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갖고 왔던 그 연방 관리가 말했습니다. “릭스 스테이크장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권세를 인식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권세를 여는 열쇠와 신앙의 증거를 인식했습니다.

댐이 무너진 직후에 한 남편과 아내가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그들의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감독은 진흙 투성이가 되어 회원들의 가정을 청소하면서 회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갔습니다. 한참 후에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들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독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마다 가서 일했습니다. 그 부부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어디로 가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스테이크가 어떻게 하여 안전한 장소가 되는지를 저는 그 때 배웠습니다. 스테이크는 서로를 돌보아 주는 단합된 하나의 대가족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앙으로 그들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계속해서 지킬 때 그 은사는 지속적이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통 사람들 속에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 보기가 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낯선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시민이 됩니다.

그런 행복한 상태는 꾸준히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독은 스테이크장과 마찬가지로 해임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따랐던 사도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곁으로 떠날 것입니다.

커다란 기회는 그런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열쇠를 전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 그런 경험을 거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대개 브리감 영이 말씀을 할 때 순교한 예언자 요셉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던 때처럼 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확신과 함께 평

안과 권세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이며, 그분이 성임하신 종들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며,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행사하고 그런 확신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들어올리시고 우리 생활과 우리 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십시오]. ...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까?”³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이 교회, 즉 그분의 참된 교회의 반석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베소서 1:10.
2. “왕국의 열쇠”,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42쪽.
3. 에베소서 2:20.



“내 양을 먹이라”

네드 비 루에시 장로
칠십인 정원희

우리 모두는 ...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점 은 선교사로서 멕시코에서 봉사할 때, 저는 베라크루스 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작은 우리 지부의 회원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집사로 성임을 받았으나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한 형제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에게 모임에 나와서 신권 책임을 다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다음주 일요일이 되자 그는 단정한 복장을 하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성찬 전달과 같은 성스러운 신권 의무를 행할 때 청결하고 단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 후로 그는 충실하게 봉사하면서 삶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지

부는 귀환 전에 선교부에서 저의 마지막 임무를 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부를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 훌륭한 형제가 다가와서 저를 얼싸안더니 들어올리며 빙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도와 줘서 고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잃고 방황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다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결과는 동일하며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축복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신, 기만, 낙담, 그 외 많은 유형의 죄들은 마음의 변화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름으로써 제거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며 그분에게로 나아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선한 소망의 불꽃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불꽃을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영의 간증으로 먹고 양육한다면, 그 불꽃은 반응을 보이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밝게 빛나 우리를 충만한 진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불꽃은 사랑과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타올라야만 하며, 그런 후에도 계속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들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

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부드러운 보살핌과 양육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용서는 또한 아버지의 왕국에서 행복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목표인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의 규범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태복음 6:12)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 받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가 깊고 오랫동안 견뎌야 할 때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일에 구세주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옛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8~10) 우리가 이 권고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길을 벗어나게 한 것을 용서하고 놓아 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던 큰 짐이 들려져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강한 열정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의 큰 파도가 기쁨과 행복으로 여

러분을 전진시켜 줄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낱아빠진 현웃처럼 던져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가 너희를 그의 울 안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의 양이 됨이요”(앨마서 5:60)

구세주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되돌아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내어 필요한 단계를 거친다면 사랑이 넘쳐 나리라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우정의 손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육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11, 13)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식탁으로 나아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영적인 만찬을 함께 들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하며 취하고 봉사할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아시며,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느낌과 고통과 시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해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로 인해, 여러분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맞게 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세주께서 우리 어깨 위에 놓아 주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이 책임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첫째 지체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통해서나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부담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들을 찾아 온전한 우

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간증을 듣고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 줄 영원한 진리를 알았던 때의 느낌을 상기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길 잃은 그분의 양들을 모으는 데 힘써 노력하여 그들이 주님의 우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권세로 구하시느니라”(니파이이서 31:19)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칠십인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한 사교 모임에서 수년 간 알고 지냈던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은퇴한 이 친구는 교육도 많이 받고 크게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자신이 일하던 분야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옆 자리에 앉은 그는 제게 교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다소 놀랐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지했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그것에 대해 줄곧 생각해 왔던 것

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회복에 관해서,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권과 권능이 세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그에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그를 지켜보며, 저는 그가 제게서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약간 몸을 기울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전한 내용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자네도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다네. ‘자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 참 마음과,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권세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실 걸세.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자네는] 온갖 진리를 알게 될 걸세.’”¹

그는 계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손님들이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바람에 그 소중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그가 듣고 느낀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니파이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달램을 받아 “육육의 안식처를 좇고

있습니다.”² 그들은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사람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따를 때 오는 보상은 무엇일까? 대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철학이란 그것이 만든 문명과 함께 사라지고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도 없이 과거의 먼지로 남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주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떡으리라”³

문을 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과거의 믿음과 인생 행로의 기초를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활동 회원은 물론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잖네”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의 선택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하며 그분들에 대해 알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⁵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

씀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들 중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 전해준 지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즉 그것을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이끌어 들일 때 여러분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제게 확신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에 따라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경륜의 시대에 밝혀졌으며 복음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회복되었다고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절정의 시기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원리와 부합”⁷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⁸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을 가지 없는 것으로 여기길 원하며, 스스로 계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탐구하는 정신, 개방적인 정신, 찾고자 하는 정신, 진리와 지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성적인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에 민감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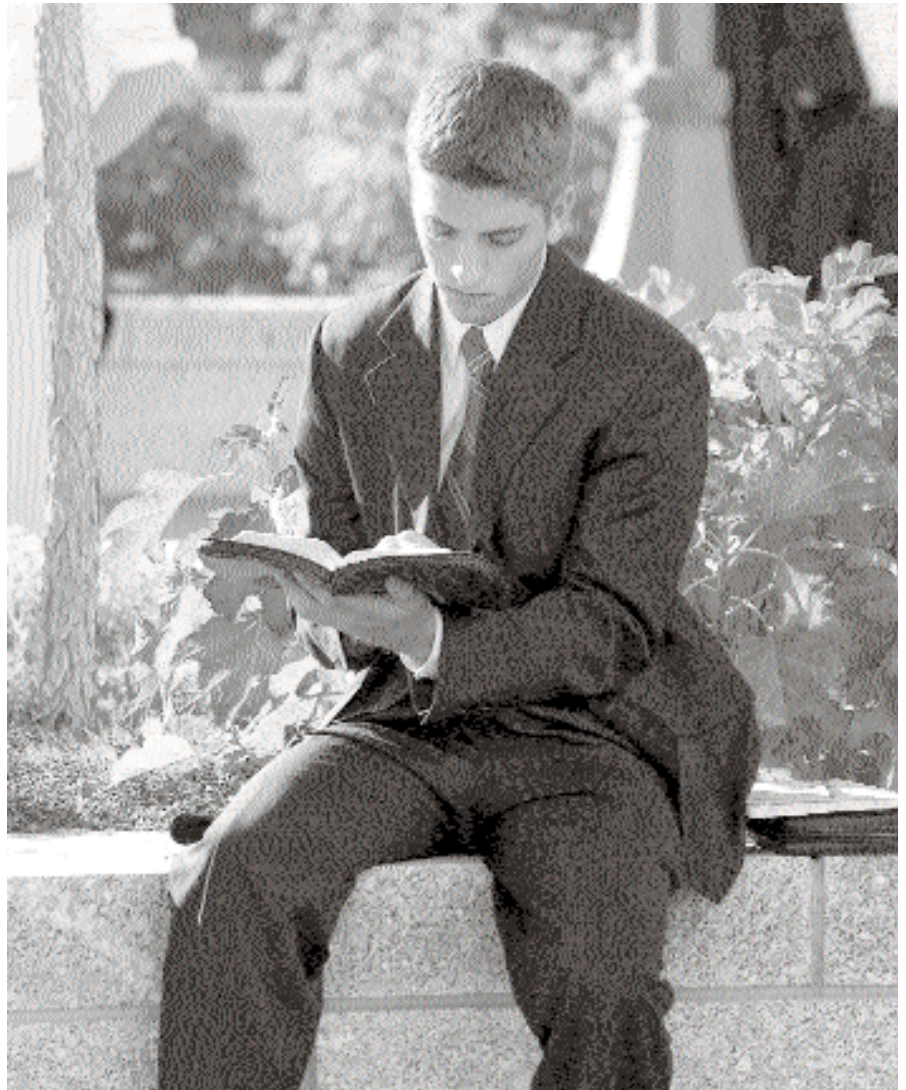
“또 거듭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백성들을 속이려 다니는 연고니라.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나의 의식을 준행하면 내가 받아들이리라.

“상한 심령으로 덕을 세우는 온유한 말을 하는 자로서 나의 의식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⁹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고 유다에게 배반 당하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중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며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¹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아 선을 위해 변화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연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키울 때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게 되며, 그리하여 침례의 물에 들어서서 그분에게 성스러운 성약을 맺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 각자를 염려하십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¹¹

그분이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신 위대한 사랑, 즉 신성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서 친히 경험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¹² 그분은 “제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¹³ 순수한 평안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재정적으로도 축복하실 것

입니다. 그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 평강”¹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때, 그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영적, 지적 및 정서적인 성장과 확신이 옵니다. 그러한 확신과 기쁨은 자라서 완전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¹⁵

저활동 회원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와 선한 성품을 지닌 여러분, 자기 만족과 어리석은 만족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이는 “이것이 길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¹⁶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분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속죄와 부활의 실재뿐 아니라 이 위대한 사업의 신성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사 10:4~5.
2. 니파이이사 28:21.
3. 요한계시록 3:20.
4. “인간이 자유의지로”, 찬송가, 175장, 1, 2절.
5. 요한복음 7:17.
6. “What is Eternal Life”, *Instructor*, 1968년 3월호, 97쪽.
7. 데이비드 오 맥케이, *Instructor*, 1968년 3월호, 98쪽.
8. 신앙개조 제3조.
9. 교리와 성약 52:14~16.
10. 요한복음 17:3.
11. 교리와 성약 18:10~13.
12. 요한복음 15:11.
13. 요한복음 14:27.
14. 빌립보서 4:7.
15. 교리와 성약 42:61.
16. 니파이이사 31:21.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는 여성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축복하도록 신성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몰랐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때로 낙담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와드의 자매님들이 어머니의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로 봉사하지는 않으셨지만, 언제나 모임에 참석하셨고, 그 곳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을 상호부조회 자매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머니의 친자매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살폈고,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남자 형제와 아들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필요로 하고 원하시던 자매들을 와드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그분들과 나누셨다는 걸 압니다. 그 땐 그분들 중 어느 누구도 ‘상호부조회’ 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상호부조회였다는 걸 압니다.”¹

상호부조회에 관한 이 아들의 추억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부조회의 회원들은 여성입니다만, 상호부조회가 자매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최 근 한 형제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교회에서 저활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분이 나쁠 때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로 어머니가 와드에서 봉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8년간 초등학교에서 봉사하셨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또한 청년에서도 봉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고, 결혼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헝클리 대관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관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을 약 7대에 걸쳐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 초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와 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해 해야 할 의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가사 기술을 배우고, 영적인 발전을 격려 받았으며, 여성으로서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의 대부분이 상호부조회에서 일어났으며, 그 영향력은 가정에까지 미쳐 저의 가족 개개인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²

저도 할머니께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누비 이불을 만드시며 바느질을 하실 때 누비 이불틀 밑에서 놀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이 일이 바로 상호부조회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애정 어린 가르침으로 저는 상호부조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를 사랑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제가 구세주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배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렸으며, 제 삶에서 성약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제 가족을 강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어쨌 보겠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브라질의 선교사 훈련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선교사들에게 “상호부조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장로는 “찜 요리요”라고 말했고, 또다른 이는 “어머니와 누이들이 속해 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입니다.” 그 선교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복음의 근본적인 일부입니다.”³

1842년은 요셉 스미스에게 매우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예전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적들은 그를 나부에서 납치하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고 “영혼을 구하기 위

해”⁴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요셉 스미스] 이런 시련들 가운데 절실히 필요로 했던 영혼의 고양과 위로를 받기 위해 자매들에게 의지했다”⁵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자신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⁶라는 사명을 준 자매들로부터 위로를 구했다는 것에 감동과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골고다에서 구세주와 함께 슬퍼했던 여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예언자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가정과 가족의 안전은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이 상호부조회에 속해 있을 때 더욱 강화됩니다.”⁷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새로워지고, 강화되었으며, 더 좋은 엄마와 아내와 하나님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음에 대한 이해력과 구세주의 사랑,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상호부조회에 가입시오. 그것은 가정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 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양육하고 강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의로운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저는 임무 지명자 페루를 방문했을 때 모랄레스 형제와 자매의 겸손한 가정에 초대 받았습시다. 이 집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세 자녀의 부모였으며 교회 회원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모랄레스 자매는 상호부조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시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와 선교사로 나간 아들을 돕기 위해 설거지와 다리미질을 하며, 직장에 나가야 하는 이웃의 아이들 두 명도 돌보았습시다. 그녀는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남편을 도왔습시다. 그가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들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가르침을 함께 토론했습시다.

저는 그녀에게 “방문 교사인가요?”라고 물



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그럼요, 파킨 자매님. 저는 네 자매를 방문한답니다. 두 명은 저활동이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데려올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면서, 저는 문 위에 걸려 있던 손으로 쓴 표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경전을 읽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이 가정과 와드와 이웃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상호부조회에 속하는 것은 새로 침례 받은 자매들,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에게도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제 남편이 잉글랜드 런던 남부 선교부를 감리할 때, 저는 남편과 함께 봉사하면서 새로운 개종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 글로리아라는 여성은 홀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회원이 되면서 상호부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곳은 그녀가 새로 찾은 신앙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마음을 터놓고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성전에

갔으며,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여성들이] 신앙을 강화시키는 환경에 함께 있을 필요가 있다.”⁹라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한 상호부조회 자매의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젊은 이천 용사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과 모범으로 축복 받았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되었을 무렵, 저는 방문 교육과 가정 복음에 대한 부모님의 노력과 모범으로부터 가정 복음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권에 대한 어머니의 신앙은 저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 합당한 장로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¹⁰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상호부조회로 인해 변화되고 축복 받았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딸들이 더 활기차게 참여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지지하고 딸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준비하도록 부모가 돕기를 기도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딸들을—젊

긴, 나이 들었던 간에—회복된 복음의 많은 기적 중 하나인 상호부조회의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신성한 조직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축복하도록 신성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분의 순수한 사랑인 박애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주님의 회복된 복음에서 기본이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개인 서신.
2. 개인 서신.
3. 조셉 필딩 스미스, “The Relief Society Organized by Revelation”, *Relief Society Magazine*, 1965년 1월호, 4쪽.
4. *History of the Church*, 5:25 참조.
5. “The Prophet’s Sailing Orders to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1949년 12월, 797쪽.
6. 모로나이서 7:46.
7. 대회 보고, 1998년 4월; 또는 *Ensign*, 1998년 5월호, 73쪽.
8. 앨머서 32:27 참조.
9. 개인적인 대화.
10. 개인 서신.

우리의 간증을 확고하게 함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주 읽고, 깊이 생각하고, 경전의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 기도와 결합될 때, 강하고 살아 있는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일에서 이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선교 사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한 젊은이와 흥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와 경전 공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짐이라 부르는 이 젊은이는 자녀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랑받는 부모와 함께 선교 임지에 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 선수였으며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학교에서 몇 안 되는 말일성도 학생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가족을 키운 저는 재빨리 짐의 어려움, 즉 좋은 친구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그와는 다른 가치관과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도 복음 원리에 충실해야 하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회복에 대한 보다 확실한 자신의 간증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짐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 즉 자신의 간증에 관해 확신이 없지만 인생 여정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헤쳐 나갈 때 그들을 인도해 줄 강하고 힘찬 간증을 발전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한 인생에서 복음의 영을 깊이 느끼지 못한 성인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활기찬 간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복음의 빛이 주는 영향력을 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잘 묘사하셨듯이, “제자로서 충실하기보다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겉돌거나, ‘힘써 노력’(교

리와 성약 76:75; 58:27)하는 대신에 대충 관여하는 명에 회원”(성도의 벗, 1993년 11월호, 65쪽)들도 포함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찬사에 귀 기울이면서, 저는 이 훌륭한 두 형제님의 삶이 보여준 간증과 제자로서의 비범한 모범을 더욱 온전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범이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훌륭한 두 제자는 히클리 대관장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권고를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된 최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1쪽)

분명히 히클리 대관장님의 권고와 격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적용됩니다.

참된 간증은 우리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빛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별적인 간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리고 각각 다른 시기에 옵니다.

짐과 같이 젊었을 적에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니파이일서 1:1)과 지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훈과 모범으로 가족에게 복음 원리와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저는 간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때 개인적으로 몇 가지의 영적인 경험이 신앙과 기도, 경전 공부, 특히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주어졌는데 그것은 제가 배우고 믿었던 여러 원리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것들에 관해 좀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

니다. 그 소중한 영적인 경험들 속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부모님께 영원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그리고 제 간증의 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셨습니다.

조램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엘마는 분명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27)

그 후 엘마는 계속해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 때 어떻게 “씨앗

[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풀어”(엘마서 32:28) 오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마는 성공적으로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꿈과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퍼리니, 영생으로 뿔어 오르는 나무가 되리라.”(엘마서 32:41)

그리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 때엔 너희가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얻으리라.”(엘마서 32:43)

형제, 자매 여러분, 엘마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믿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는” 등과 같은 표현들은 우리 편에서의 일관된 노력을 의미하는 행동 언어들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른다는 엘마의 표현은 성령의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로나이가 약속했듯이, “... 성신의 권세로써 [여러분은] 온갖 진리들”(모로나이사서 10:5) 알 것입니다.

그 영이 계속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함과 신앙과 인내”로 키워야 한다고 엘마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 부지런함, 인내, 오래 참음의 보상이 영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엘마서 32:41; 또한 43절 참조)



엘마처럼 말일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서 우리의 간증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의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곳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이라는 빌려온 빛에 크게 의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지도자, 친구들이 전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영적인 느낌들은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겠다는 소망을 더욱 크게 해 줍니다.

어디에 있던 모든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이 도와 주시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속삭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영향력과 속삭임을 인식하거나 느끼게 될 때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용서와 특별한 도움 그리고 지시를 구하며 매일 열심히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간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급하고, 중언 부언하고, 무심하거나 잘 잊게 되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영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가족 기도는 우리의 개인 기도와 간증에 더 많은 축복과 관세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경전을 가까이할 때 신앙, 소망, 그리고 매일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생깁니다. 자주 읽고, 깊이 상고하고, 경전의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 기도와 결합될 때, 강하고 살아 있는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일에서 이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인 경전 읽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 저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해지며 ... 그분이 저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 그 때 다시금 몰두하여 경전을 상고하면 주님과과의 간격은 다시 좁혀지고 영성이 회복됩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135쪽)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훌륭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인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간증은 우리 예언자와 경전에서 오는 권고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옵니다. 그와 똑같이 값진 축복을 열심히 구하는 우리 각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젊은 친구 짐과 자신들의 간증의 힘에 대해 가끔씩 걱정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매일 여러분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손을 뻗쳐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잡으려 노력할 때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참된 최선”을 다하라는 예언자의 호소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개인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보다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증은 강하고 확고하게 됩니다.

강한 간증은 우리 각 사람이 “훨씬 더 잘” 행하게 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그것들은 갑옷에 달린 찔리지 않는 방호물이 되어 세상의 무자비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에게는 애정으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과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회복을 이루도록 소년 요셉에게 나타나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예언자이십니다.

우리가 용기와 확신을 갖고 예언자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은 확고해 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순수한 간증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간증, 즉 영에 의해 생겨나고 성신에 의해 확인된 진정한 간증은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저는 최근 임무 지명을 받고 아시아의 충실한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수도 지역에서 가졌던 한 모임에는 약 21,000,0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약 14,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한 비율을 이 모임에 적용시킨다면, 이 컨퍼런스 센터에 있는 20,000명의 회중 가운데 단지 13명의 회원이 참석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경험은 세계 우리 모두가 암흑과 배도 시대 이후에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놀라운 시현을 보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분명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과,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다고 믿는 간증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유례 없고 진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 간증을 갖는 커다란 축복은 헤아릴 수 없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할 때 말할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원들의 삶에서 독특한 것이 되게 하는 구속력 있는 힘입니다. 회복의 교리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만들고 위대한 의미를 불어넣는 것은 복음의 회복을 받아들이고 매일의 생활에서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고 애쓰는 전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간증은 성신을 통해 개인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인상을 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증거 혹은 확신입니다. 성신의 주요한 성역은 진리,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성하게 임명된 이 과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그것은 즉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엘마 이세에 따르면, “씨앗은 너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라.”(앨마서 32:28)

간단히 말해서, 간증, 즉 영에 의해 생겨나

고 성신에 의해 확인된 진정한 간증은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모든 우선 순위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참되고 지속적인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몸에 지”니는 것이며, “놀라운 변화를 마음으로”(앨마서 5:14)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거의 대부분의 것과 마찬가지로 간증은 경험과 봉사를 통해 성장하고 커 갑니다. 우리는 종종 회원들, 특히 어린이들이 감사하는 것들, 즉 가족, 교회, 교사, 친구 등에 대한 사랑을 나열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시작입니다만 간증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주 일찍 복음의 첫째 원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미치는 속죄의 영향에 대한 간증은 회개하고 성신의 동반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영혼에 이 말일에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이 귀중한 진리에 대한 참된 간증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과 기도, 경전 공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및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는 순종을 포함하여, 진지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한 후에 성신의 증거로 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그것을 영원히 굳게 간직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받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간증을 하면서 “저는 ... 에 대해 감사합니다.” 혹은 “저는 ... 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겸손하고 진지하고 분명하게 “저는 ... 을 압니다.”라고 간증하는 사

람이 너무나 적은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간증 모임은 영혼을 감동시키고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의 삶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적인 힘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 모임은 좀 더 구세주와 복음 교리, 회복의 축복, 경전의 가르침에 역점을 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와, 여행담과 강의를 순수한 간증으로 대치시켜야 합니다. 모임에서 말씀을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할 교리적인 권세로 그렇게 하여 영들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성도들을 교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냐민 왕이 백성에게 전한 강력한 설교의 중심에는 그 당시 아직 육신으로 탄생하지 않은 구세주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왕이 설교를 하던 한 순간, 백성들에게 간증을 했을 때,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만해지니 ... 이는 저들이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은 신앙으로 인함이라.”(모사이야서 4:3)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간증을 전할 때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그의 간증에 의해 너무나 감동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빈아다이와 엘마를 기억하십시오. 아빈아다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용기 있는 간증으로 사악한 노아 왕을 격노케 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선교사는 자신의 간증과 신앙을 위해 최후의 희생을 했지만, 그의 순수한 간증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노아 왕의 제사들 중 하나였던 엘마는 “자기의 죄와 간악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은밀히 백성들 가운데로 다니면서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가르쳐 전하기 시작하였”(모사이야서 18: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 곧 엘마가 믿었던 구세주에 대한 아빈아다이의 강력한 간증의 직접적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



십이사도 정원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로 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전했으며 선교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실력자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사도행전 26:28)

저는 간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참된 개종을 할 때, 간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고대의 사도와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랬듯, “진실로 믿어 진리인 줄”(교리와 성약 80:4) 이는 것을 외치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요, 엄숙한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항상 훌륭한 일이지는 않지만, 그러

한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믿음의 불이 피어나게 하는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성신의 권세로 증거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지식이나 믿음에 근거를 둔 진리에 대한 엄숙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경전 지침, “Testify”, 241쪽)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지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십시오. 구원의 계획은 구세주의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찬만한 복음을 회복했으며, 몰몬경은 우리의 간증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회원들이 선교사와 함께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순수한 간증을 나눌 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마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반면, 앰올레크가 일어서서 엘마의 간증에 그의 간증을 더했을 때, “백성들은 ...

증거하는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님을 보고 놀라기 시작”(앨마서 10:12)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양들과 우리의 간증을 나눌 때 주님은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더 많은 양들을 찾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오래 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한 초기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

습니다. 영 대관장에 따르면, 이 장로는 “결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나 드리고 떠나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요셉은’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예언자입니다’라는 말이 잇따라 튀어 나왔으며, 그 순간부터 그는 혀가 풀려, 혀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영 대관장은 “주님이 간증하라고 하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활용했습니다.(*Millennial Star*, supplement, 1853년, 30쪽)

예언자의 형 하이람은 이것을 이해했으며, 그의 동생 요셉에게 계시된 신성한 진리를 두려움 없이 간증하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팔리 피 프랫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팔리가 처음으로 몰몬경을 접했을 때, 하이람은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가르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겔옷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몰몬경의 참됨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로 하이람은 자신의 필요 사항을 옆으로 제쳐 두고… 팔리와 함께 나아가 그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Autobiography of Parley Parker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년], 35~42쪽 참조)

우리는 하이람이 팔리 피 프랫에게 일대 일로 간증을 전한 큰 효과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팔리의 충실한 후손들 외에도 그의 사도로서의 증언과 선교 사업은 무수한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흥미 있는 것은 캐나다에서 행한 그의 성역의 직접적인 결과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는 조셉 필딩과 그의 여동생인 매리와 머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람은 첫번째 아내인 제루사가 세상을 떠난 뒤 매리 필딩을 만나 결혼했으며 그들 사이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하이람의 경우처럼 모든 간증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영국 태생에서 새로 개종한 겸손한 조셉 김버는 이웃에 있는 농촌 일꾼에게 그의 단순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한 김버 형제의 간증이 17세 된 헨리 벨라드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일으켰으며 그가 침례를 받았다고 요구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벨라드 가족의 후손들은 그 겸손한 간증의 수혜자들입니다.

오늘날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성신은 우리가 속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을 실현하려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될 준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제게 브라질에서 90분 동안 버스를 탔던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으로 가서 그가 속한 사업가 그룹의 안내자로 동승한 젊은이에게 말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부친의 지인 한 사람이 그를 따라 버스 뒤로 가서 회복된 복음의 참됨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간증을 들었을 때, 온 몸으로 이것이 참되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 토론 내용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외우거나 기계적인 발표가 아니라, 정리된 방법으로 복음 원리들을 요약하고, 영이 영에게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구도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지시하도록 주님의 영에게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 선교사와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귀중한 간증을 나누고 모든 기회에 영광스런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간증의 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권세로 간증할 때, 결코 여러분이 지닌 간증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개인적인 복음 공부,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간증을 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가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과, 물몬경이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큰 기쁨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간증을 할 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전 세계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살아온 필리핀의 현재 시간은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중에는 소년들은 없고 신권 소유자들인 청년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깨달았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적었습니다.(고린도전서 13:11 참조) 청년 여러분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다른 성인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1.

여러분이 처한 인생 행로의 현재 위치에서

보면 청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노력할 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며 결정해야 할 선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몇몇 유혹의 장본인입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에서 벗어나 저속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자 우리를 혼동시키고 속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한 강력한 영이 모반의 결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사탄이 되었나니, ...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4) 그와 그를 따르는 영들은 여전히 세상을 속이고자 합니다. 현대의 계시는 “사탄도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힘써 속이려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50:2~3 참조)고 선언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속임수와 유혹의 방법, 즉 음악, 영화, 기타 매체, 쾌락의 화려한 반짝임은 유혹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거짓이 성공하면, 우리는 그의 힘에 공격 받기 쉽게 됩니다.

다음은 악마가 우리를 속이고자 노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그러한 각각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합니다.

1. 속임수의 한 종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말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태복음 24:4~5)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 또는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할 것이며 따라서 구세주나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없다고 말하여 속이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유혹하려는 사탄의 힘”(니파이삼서 2:2)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사탄은 또한 옳고 그른 것에 관해 우리를 속여 죄 따위는 없다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우화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한 번만 해 봐. 맥주 한 잔, 담배 한 개비, 음란 영화

한 편이 널 해치진 않아”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은 죄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가 자신의 선택 능력 일부를 포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치닫게 될지 알려 줍니다. 악마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며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엮어 땀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니파이서 28:22)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릇된 목적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오랜 친구가 저와 얘기하는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언제나 “모범생”이던 자신의 남편이 자신이 처한 일부 문제들을 잇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술을 조금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으며,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무능합니다. 술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는 술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3. 예언자 니파이는 또다른 종류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서 28:21)

이러한 속임에 빠져 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분의 계명이나 공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변영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셨다고 결론짓습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에게 좋으리라 하며,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 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서 28:7~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을 교실과 복도에서, 여러분이 읽는 것에서, 그리고 인기 있는 연예 프로그램을 보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존재를 부인하며 죄나 악마가 있



다는 생각을 비롯합니다. 또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면서도 그분의 정의는 무시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가르침을 가르칠 자가 많을 것이요”(니파이이서 28:9)

사도 바울은 말일에 닥쳐올 “위험한 시기”에 대해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디모데후서 3:1~4) 그는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13절)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악을 어떻게 피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속는 것에 대해 또다른 경고를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도적질, 술취함,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에 대한 고대 및 현대의 예언적인 경고들에 주의하십시오. 기만자가 이러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영성을 파괴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에베소서 4:14) 멋진 포장지와 화려함으로 치장된 좋은 시간을 조심하십시오. 악마가 즐거움으로 묘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II.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속임수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명한 관리들이 자신들의 비밀 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스포츠 영웅들이 자신들의 경기 결과를 놓고 한 도박이나 자신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약물에 대해 거짓말 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덜 유명한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는 결코 하지 않을 악한 행위를 비밀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이 지붕에서 이야기 되고 저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교리와 성약 1:3; 또한 몰몬서 5:8; 교리와 성약 38:7 참조) 때가 올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8)

다시 말해, 만일 우리가 마약이나 외설물이나 사도가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이라 부른 다른 악들을 탐닉한다면, 영원한 율법에 따라 우리는 영생보다는 썩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자비가 공의를 도둑질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율법이 깨진다면, 그 율법에 부속된 형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구세주의 속죄로 충족될 수 있지만, 더럽혀진 죄인을 자비롭게 씻어낼 수 있는 정화는 회개를 통해서만 옵니다.(앨마서 42:22~25 참조) 일부 죄의 경우, 회개는 길고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은 공의 요구의 법에 따라 심판 받을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리라.”(앨마서 34:16)

다행히 회개는 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 우리는 감동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찬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잘못을 끼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



다면, 그 짐을 지고 가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잘못을 고치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III.

이제 저는 우리 각자가 영원한 중요성을 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속는 일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에서 두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첫 구절은 앞에서 인용한 구절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후에 가르친 구절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알며”(디모데후서 3:14)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의를 배워 왔으며 그 진실함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머무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은 그 젊은 친구에게 이와 같이 상기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세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15절) 경전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가르침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혼인 잔치에 초대 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중, 단지 절반만이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의 두 번째 보호의 근원은 이 비유에 대한 영감에 찬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우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

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교리와 성약 45:57)

나머지 절반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 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명을 통해 지시 받은 대로 (교리와 성약 59:8~9, 12 참조) 매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의 영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시”(교리와 성약 20:77)리라는 신성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신으로서, 그분의 사명은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4:26, 15:26, 16:13; 니파이삼서

11:32, 36 참조)

속는 것을 피하려면, 또한 그 영의 속삭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만사에 아낌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그대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며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나는 너희가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기 바라노라. 그리하여 악령이나 악마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말미암아 피임을 받지 않게 하라 ...

“그러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속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 구하며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46:7~8)

성신은 우리가 속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을 실현하려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며,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 참석하며, 매주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신을 몰아내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외설물과 알코올, 담배, 마약을 피해야 하며, 언제나 순결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몰아내어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어떠한 것도 섭취하거나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른 미묘한 형태의 속임인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듣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그 속임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모사이야서 4:10)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78:7)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에 따라 행함으로써 높은 길을 따라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름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대회에서 배운 것들은 단지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행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참됨을 간증하며, 악마의 속임을 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올바른 금식에서 오는 축복들

칼 비 프랫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일에 금식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핑클리 대관장님께서 두 명의 새로운 사도들을 발표하려고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아차리셨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개인적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 가끔씩 하는 특별 금식 이외에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일요일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금식일 준수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연속적인 두 끼, 다시 말해 24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째는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고, 셋째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는 것입니다.

프랫 가족에게 있어 정규 금식은 항상 토요일 점심 식사 이후부터 시작해 일요일 점심 식사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끼 동안, 즉 토요일 저녁 식사와 일요일 아침 식사 동안 금식을 합니다. 24시간 동안 두 끼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금식에 관한 표준이 비록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금식이 끝날 무렵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계명입니다. 매달 갖는 금식일에 관해 언급하시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합리적이고 지적인 기준으로 금식을 제정하셨고 ... 할 수 있는 자는 ... 순응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 [그것은] 지혜와 선택의 자유로 행사하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금식하여, ... 어떠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곳에서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성도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복음 교리, 218~219쪽)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일에 금식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

일을 당연히 여기거나 완전하게 두 끼, 즉 24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일요일 아침 식사만 금식한다면,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참다운 금식을 통해 올 수 있는 훌륭한 영적 경험과 축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단지 24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고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라면, 영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한다면 그 금식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금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식주일 전주의 가정의 밤이나 가족 기도 시간에 간단한 가족 모임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때는 배고픔을 감수하고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개인적인 결점과 죄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리하여 약점이 장점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덜 교만해지고, 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더 관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더욱 명확하게 보도록 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우리 금식의 초점을 우리 가족의 어려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가족 금식은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를 증진시키고 가족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 불화를 줄이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부로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이 보여 주신 것처럼,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하는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부름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가족들 중 어느 한 가족을 돕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와 함께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 금식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이다.”라는 말은 주님의 권고입니다. (교리와 성약 88:76) 기도 없는 금식은 단지 24시간 동안 굶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는 금식은 더 큰 영적 권세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한 소년을 고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태복음 17:19, 21)

우리의 금식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금식을 시작하면서 식탁 주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금식의 목적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금식을 기도로 끝냅니다. 우리는 금식을 끝내면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기 전에 식탁 주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있었던 그분의 도움에 대해 그리고 금식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운 것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와 마치는 기도 이외에도 금식하는 동안 자주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권고된 두 끼의 식사를 금식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금식의 원리는 가르칩시다. 가정에서 금식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 또는 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들이 금식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금식의 목적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시작하고 끝내는 가족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적절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금식하기를 몹시 바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덟 살에서 열두 살 사이의 자녀들에게 한 끼만 금식할 것을 격려함으로써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후 그들이 열두 살이

되어 아론 신권을 받거나 청년반에 들어가면 두 끼를 완전히 금식하도록 권고합니다.

부적절한 금식에 대해 고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 주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올바른 금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할 목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생활 속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고자” 분명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의 목적이 복음을 가르치는 면에서, 그리고 교회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보다 효과적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분명 우리는 “멍에의 줄을 풀러 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주님의 도움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분명 “압제당하는 자를 자

고통하는 시대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철십인 정원희

이 고통하는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시다는
신성한 확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인도에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유”롭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식의 목적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이기심, 교만,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라면, 우리는 분명 “모든 명예를 켜[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올바른 금식에 대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 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7)

우리의 금식 헌금을 통해 배고픈 사람을 먹 이고, 집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주고, 벗은 사 람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 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금식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 하 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8~11)

금식을 향상시켜 우리가 약속된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의 소망 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고리와 성 약 88:63 참조)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형 제 여러분, 고대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들이 미리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들의 관심사이자 열망의 초점이었던 시대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은 위안이자 어쩌면 걱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룰”(디모데후서 3:1) 것이라고 말한 다음, 대중 매체와 연예 홍보물에서,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서 현재 우리가 매일 보는 많은 것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협의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피하기란 아무래도 어렵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이 지상에서의 시험의 기간을 위한 필멸의 삶 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나 영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은 독특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사방에서 왔으며 또한 가족, 배경, 어려움, 기회, 경험, 승리 및 실패이라는 면에서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모든 인간 가족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혈통과 영적인 잠재력을 알려주는 특성들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약속된 축복뿐 아니라 DNA, 또는 유전적인 신체적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공통의 기원과 특성뿐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품성, 경험, 독특한 어려움들이 특별하게 뒤섞여서 현재의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일을 만들어 줍니다. 개별적으로 처해 있는 특별한 고통의 요소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고통하는 시대”라고 묘사할 만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시대”를 묘사하며 바울은 일들이 더 쉬워지거나 꼭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는 우리 시대의 더 열악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위안과 확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의 예언과 예측이 명료하고 정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의 지침 또한 매우 적절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디모데후서 3:14)

이번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 해 온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회복된 복음에 대해, 물문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분명함과 간증에 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과 헌신 및 교회의 대관장단 계승자들, 특히 위대한 권세와 영성과 통찰력으로 가르치고 간증하시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다른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음으로써 오는 힘과 위안과 축복들에 대해 배웠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서 그것들이 참됨을 확신합니다.

엘마는 자신이 누구에게 성역을 베푸는지를 알았고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권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드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간증하는 특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때,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기 위해 오셔야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고 분명했으며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여준 전체적인 신앙과 충실함에 기쁨을 표시하고는, 그들이 “장차 일어날 [많은] 일”(엘마서 7:7)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다가올 일들에 관해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더욱 중대한 일이 있으니,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어 주의 백성들에게로 오실 때가 멀지 아니한 일이라.”(엘마서 7:7)

그 시대에 엘마는 몇 십년 후에 구세주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흘렀고 엘마의 예언은 대체로 성취되었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더욱 중대한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의 요점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참되며,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관련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필

수적입니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마와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 예언”(모사이야서 13:33) 했던 모든 예언자들이 메시야의 오심과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는 그분의 사명에 관해 가르치고 간증했던 것처럼, 그분과 그분의 성스러운 사업, 즉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에 관해 우리도 간증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봉사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분명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중요한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이해는 단번에 오지 않으며 이 필멸의 삶 동안에 완전하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울 때, 구세주의 공헌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늘어나고 그 참됨에 대한 지식과 확신은 커갈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에 있어서 힘이 있었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을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권고와 격려와 간증을 제공하는 이 익숙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11~12)

수년 전에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명과 약속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얻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목격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고대의 사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참여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드로전서 1:16) 요한도 사마리아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요한복음 4:42) 현대의 증인들인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3)(“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Savior”, *Ensign*, 1976년 11월호, 59쪽)”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그같이 행하는”(교리와 성약 46:9)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시다는 약속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교리와 성약 46:11)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또는 은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교리와 성약 46편의 다음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은사를 주시며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어 계속하여 충실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를 주시며”(교리와 성약 46:13~14)

우리가 항상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베드로전서 3:15)해야 한다고 말한 베드로의 조언과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지식과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과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인용하여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력이 열릴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50장)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시다는 신성한 확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인도에 크나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멜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다시 앉아 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일 시적으로 등에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통증을 겪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고통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권세로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오늘 밤 여러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그 열쇠에 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며 또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¹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신권이 없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멜기세덱 신권 ... 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된다고 말했습니다.²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예수가 구세주임을 진정으로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값진 보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모든 지식에 대한 열쇠를 갖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³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말하며 이 위대한 열쇠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또 더욱 큰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나는 선조의 축복과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직분에 안수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더라. 나는 의를 좇는 자니, 위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고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가 되며 더욱 위대한 지식을 가지며 ...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으므로,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능을 지닌 정당한 후사 곧 대제사가 되었느니라.”⁴

의롭고 더욱 위대한 지식을 갖고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신권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

와 성약에 주어져 있듯이 그렇게 행하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⁵

혹자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가 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복음 성약을 맺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보통으로 사람과 주님 사이의 거룩한 계약입니다.⁶ 때때로 여기에는 배우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침례, 신권 부여, 성전 축복, 결혼,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정말 신성한 약속과 결심이 포함됩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성신이 모든 사람들 위에 부여될 때 옵니다.⁷ 남녀를 막론하고 성신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⁸

이런 신성한 축복을 충분히 얻고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매리온 지롭니 부대관장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필멸의 생활이 계획된 목적은 멜기세덱 신권을 얻어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⁹ ... 신권에 있어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염두에 두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1. 복음의 지식을 얻는다.
2. 개인적인 생활에서 복음의 표준에 따른다.
3. 헌신적으로 봉사한다.”¹⁰

각 신권 소유자는 두 가지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¹¹ 아론 신권은 아론 신권 소유자를 멜기세덱 신권의 더 큰 의무들에 대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며 신권의 맹세와 성약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킵니다.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모두를 지니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아들들에 대해 갖고 계신 충만한 축복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런 거룩한 권능을 지닌 대리자로서의 두 번째 성약은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앙으로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충실하는 것입니다.¹²

신권의 맹세와 성약의 일부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아들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습시다”¹³ 먼저 신권 소유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¹⁴ 됩니다. 저는 히클리 대 관장님이 이에 대한 훌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¹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¹⁶가 됩니다. 그분의 대리자로서 그들은 우리 시대에 지상에서 이 거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넷째,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¹⁷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다

섯째, 주님의 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¹⁸ 여섯째,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¹⁹ 일곱째, 그들은 또한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입니다.²⁰ 여덟째, 그들은 또한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²¹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이 여러분은 커다란 권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의 지시 아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최소한 두 가지 의식을 집행하는데, 그것들은 속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으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구세주의 피와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

다.²² 둘째는 침례입니다. 제사들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집행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정말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한 젊은이는 이 권세를 행사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거의 없는 어느 와드에 참석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드는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와드 회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권의 권세를 가장 훌륭하게 행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권세는 제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제사의 모든 의무를 행하고 자신이 속한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



다. 그들은 사교적인 방문을 하는 장로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그 전에 나는 그 때와 다른 상황에서 이들

네 명의 제사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 다. ... 모든 세미나리 교사들은 그들 때문에 2, 3개월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년단 활동을 하면서 지방 주민들에게 혼란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

이 중요한 선교사 부름을 받을 만큼 신뢰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신권 봉사를 가장 훌륭하게 행하면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감독이 그 와드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천사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갖춘 상태까지 발전 하라고 당부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태 까지 발전했으며,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격려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을 강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와드의 다른 회원들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원회 회원들도 강화되었습니다. 와드 전체에 단합의 정신이 퍼졌으며, 모든 회원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 신권이 올바르게 행사된 결과였던 것입니다.”²³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성역의 보호”에 의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놀라운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²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전상으로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의 후손이 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축복을 받으리라는 성약을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²⁵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고, 성전 결혼을 하고, 그들의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지상의 온 나라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그의 자손이 되고 약속된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는”²⁶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축복이 있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충실함을 통해 충만한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

로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²⁷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명을 받습니다.²⁸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권 및 성전 의식, 성약을 받고 지키는 일, 복음 전파, 가족을 갖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끝까지 충실함 등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자손”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만국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성약의 축복을 증가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후손보다 더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²⁹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³⁰

아브라함의 의로운 후손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되는 특권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에서 영원한 성약을 받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로써 합당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으로 조직되고 그 안에서 승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³¹ 또한 여기에는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이 포함됩니다.³²

죽장의 반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권 권능선을 따라 그것은 우리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시대를 거쳐 오면서 축복과 약속들이 아버지에게서 그들의 충실한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현대적인 예를 칠십인 정원회의 존 비 디슨 장로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주님께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할 만큼 살 수 있는 확률도 그리 높지 않았습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부친은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제가 멕시코 선교부에서 봉사할 것이며 일생 동안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고 가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 오른팔의 팔꿈치 윗부분은 잘라내야 했지만 생명은 잃지 않게 되어 제게 주어진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 하나가 없으면 참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슨 장로는 항상 오른손잡이였지만 이제는 왼손으로 모든 것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침실에서 손에 넥타이를 든 채, 어떻게 이 넥타이를 맬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으로 고정하는 넥타이를 차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께 도와 달라고 할까 했으나, 마땅히 제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어머니께 도와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치아를 이용해서 매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 방법으로 넥타이를 매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³³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성도들의 박애 정신을 요구할 모든 것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점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신권 소유자들은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세계 지도자가 최근에 지적했듯이, “모두에게 공통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치명적인 위협은 인간 생활의 고결함과 문명화 된 국가가 소중히 갖고 있는 원리들을 무조건 경멸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파괴적인 힘과 국적 없는 조직망에서 옵니다.”³⁴

우리는 모두 시련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영원한 약속의 의로움 속에서 정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집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변함 없이 꾸준히 충실한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어두워지지 않고 아니할 것이요, 몸이나 사지나 관절도 피로하지 아니할 것이며, ...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³⁵ 저는 주님의 교회와 그 회

원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지에 관해 낙천적이지만 우리는 의로움 속에서 정진해야 하고 “모든 일에 ... 충실”해야 합니다.³⁶ 멜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 관리되는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4:19.
2.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sel. Joseph Fielding Smith(1976년), 166~167쪽.
3. In Brian H. Stuy, comp., Collected Discourses Delivered by President Wilford Woodruff, His Two Counselors, the Twelve Apostles, and Others, 5 vols.(1987~1992), 2:355~356.
4. 아브라함서 1:2.
5. 교리와 성약 42:61.
6. Carlos E. Asay, “The Oath and Covenant of the Priesthood”, *Ensign*, 1985년 11월, 43~45쪽 참조.
7. 니파이삼서 20:25~29 참조.
8.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150쪽 참조.
9. 교리와 성약 84:33~42 참조.
10. “The Oath and Covenant Which Belongeth to the Priesthood”, *Improvement Era*, 1962년 6월, 416쪽.
11. 교리와 성약 84:33 참조.
12. 교리와 성약 84:33 참조.
13. 교리와 성약 84:40.
14. 교리와 성약 84:33.
15. 교리와 성약 84:34.
16. 교리와 성약 84:34.
17. 교리와 성약 84:35.
18. 교리와 성약 84:36 참조.
19. 교리와 성약 84:37 참조.
20.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21.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22. 마태복음 26:26~28;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26:22~24 참조.
23. Quoted in Victor L. Brown, “The Vision of the Aaronic Priesthood”, *Ensign*, 1975년 11월, 68쪽.
24. Quoted in Jason Swensen, “Priesthood Restored Directly from Heaven”, *Church News*, 2004년 5월 22일, 3쪽.
25. 창세기 18:18; 갈라디아서 3:8; 니파이삼서 20:25, 29 참조.
26. 아브라함서 2:9.
27. 갈라디아서 3:29.
28. 요한복음 8:39; 요한복음 8:32~50 참조.
29. 아브라함서 2:9.
30. 교리와 성약 132:30.
31. 갈라디아서 3:29 참조.
32. 아브라함서 2:11.
33. “친구가 친구에게”, *리아호나*, 1996년 6월호, 진6~7쪽.
34. Colin Powell, “Of Memory and Our Democracy”, *USA Weekend*, 2 May 2004, Internet, <http://www.usaweekend.com>.
35. 교리와 성약 84:80.
36. 교리와 성약 84:80.

힘써 노력하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정원회 회원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원회 회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성스러운 특권에 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은 엄숙하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저를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 컨퍼런스 센터에 참석해 있거나 세계의 다른 여러 장소에 앉아 있는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들 외에도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의무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다른 길을 따르기로 한 신권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구조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

히 완수하게 하라.”고 선언하셨을 때 주신 주님의 신성한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¹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 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선택]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²

성스러운 경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³ 그리고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분의 영속적인 교훈과 놀라운 기적은 대체로 그분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때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분은 살과 뼈로 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취하셨으며 자신의 신성에 대해 간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전에, 그분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한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가르치고 간증하고 다른 사람

을 구해 주는 일로 늘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 신권 정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1980년 4월 6일에 발표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언문에는 간증과 진리로 가득 찬 다음과 같은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행하실 때 세우셨던 교회를 회복한 것이며,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을 모퉁잇돌로 하여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옛날에 그 신권을 지녔던 자, 즉 아론 신권은 침례 요한에 의하여, 멜기세덱 신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회복되었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합니다.”⁵

1889년 10월 6일에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신권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 저는 이 힘과 권세가 신권의 전체 조직까지 확산되어서, 위로는 교회 대관장에서 아래로는 이 교회의 가장 작고 또 가장 낮은 집사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또 즐겨 가져 하늘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며 그의 의무에 관한 지식, 곧 그의 신권을 통하여 그에게 지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업의 특정 부분에 관한 지식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⁶

저는 오늘 밤 인생에서 겪은 두 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소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제 친구에 관한 경험입니다.

저는 아론 신권 교사에 성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문인 해롤드 형제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우리는 그 점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툼, 너는 비둘기 기르는 것이 즐겁지? 그렇지?”

저는 관심을 보이며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제의했습니다. “내가 네게 순종 버밍햄 롤러 비둘기 한 쌍을 주면 어떻겠

니?”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형제님!” 여러분,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비둘기는 그랜트 초등학교의 지붕 위에서 잡은 평범한 비둘기였습니다.

그 분은 다음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은 제 어린 시절 중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집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 분이 직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분은 저를 뒷마당의 조그만 헛간 위쪽에 있는 비둘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까지 본 비둘기 중 가장 아름다운 비둘기를 보았을 때 그 분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수컷을 하나 고르면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비둘기와도 다른 암컷을 주마.”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제 손에 귀여운 암컷 비둘기를 놓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그 분은 “주의 깊게 보거라. 그러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보일 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비둘기는 눈이 하나 없었는데, 그것은 고양이 가 목쓸 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했습니다. “네 비둘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한 열흘 동안 집에서 잘 키운 다음 밖으로 날려 보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보거라.”

저는 해롤드 형제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비둘기를 날려 보내자 수컷은 자기 집 지붕 위 근처를 뿔내며 걸어 다니다가 먹이를 먹으러 집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외눈박이 암컷은 순식간에 가 버렸습니다. 저는 해롤드 형제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외눈박이 비둘기가 형제님 댁으로 돌아갔나요?”

“어서 오너라 같이 보자꾸나.”라고 그 분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역문으로 나와 비둘기 집으로 걸어갈 때, 형제님은 “툼, 너는 교사 정원희 회장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사 정원희에 있는 밥(사람 이름)을 활동화시키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겠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정원희 모임에 밥이 올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 다음 그 분은 특별한 등지로 올라가서 제게 외눈박이 비둘기를 건네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잘 보살피고 다시 노력해 보렴.”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다시 한번 그 비둘기는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 “어서 와서 비둘기가 돌아왔는지 보자꾸나.”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집으로 걸어갈 때 고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밥을 정원희 모임에 오게 한 것을 축하한다. 밥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너와 밥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음주에 오게 할게요.”라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거듭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제 고문 해롤드 형제님이 특별한 비둘기, 날려 보낼 때마다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유일한 비둘기를 제게 주셨다는 것을 다 커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주마다 교사 정원희 회장과 개인 신권 집견을 갖는 영감 받은 이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외눈

박이 비둘기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고문에게는 더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인내심을 갖고 제 앞에 놓인 책임들에 대해 준비하도록 잘 도와 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들과 손자를 인도할 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며, 우리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비평가들은 거의 필요 없고, 따라야 할 더 많은 모범들이 필요하다는 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참석이나 모든 교회 활동들이 자신들의 습관과 삶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수련 장로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 신권 시절에 저활동이 된 아론 신권 정원희의 어린 소년들과 성인이 되어 침례를 받고 장로에 성임되기에는 활동이나 신앙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한 집회소에서 열린 인권 모임 방송에 참석한 대만 타오 유완 스테이크 소속의 아버지와 아들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 격려의 말 한마디, 들어 올리고 쌓아 나가겠다는 소망과 간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 간증을 기다립니다.

저의 친구 셸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훌륭한 회원이었지만 그에게 침례와 신권 축복을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셸리는 너무도 슬픈 나머지 장례식을 치르던 영안실의 특별실에 혼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혼자서 애도할 수 있도록 그 방으로 장례식 진행을 음성 중계했고 그 곳에서는 누구도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연단으로 가기 전에 제가 그를 위로했을 때, 그가 저를 껴안았으며 저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셸리와 그의 가족은 그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해 삼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셸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독님, 슬트레이크 성전에서 제 아내와 제

가족과 저를 인봉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셸리, 먼저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형제님 모르게 살짝 해 버렸지요. 우리 집을 정교적으로 방문해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확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 안전 지도원인데 어린아이들이 매일 아침 등교할 때와 오후에 하교할 때 길 건너는 것을 도와 줍니다. 그가 제게 그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길 건너는 어린이가 없을 때 그는 교회와 관련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이 기적을 보고 마음과 영혼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인봉이 집행되었고, 한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셸리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장례식에서 말씀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전복을 입고 관에 누워 있는 셸리의 육신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를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낮게 생활하고, 충실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보다 구세주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영

적인 시력을 얻고 잠시 영원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된 그들은 예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맹인의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이이다”⁷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잠자던 사람들에게서 왜 이렇게 활동이 늘어날까요? 죽음에 대해 말하며 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니 그가 잠들 었도다.”⁸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탄생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니 그들이 깨어났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태도와 습관과 행동의 이런 변화에 대해 대체로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영원한 가능성을 보고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단 탁월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범한 것에 오랫동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구세주의 훈계에 따르고 이웃을 자신 처럼 사랑했으며, 이웃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이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속주의 능력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오라”⁹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의식의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죄의 슬픔에서 나오십시오. 불신앙의 죽음에서 나오십시오. 삶의 새로움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우리의 발을 향하게 하면서, 예수께서 주셨던 간증을 기억합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¹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¹¹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정원회 회원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원회 회원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밀턴은 그의 시, 리시더스(Lycidas)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고픈 양이 쳐다보니 ... 먹지를 못하는도다.”¹² 주님은 친히 예언자 에스겔에게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니 ...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¹³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맙시다.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기적을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의심을 대치할 때, 비이기적인 봉사가 이기적인 노력을 없앨 때,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연극 *쉴난도*에는 영감을 주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됩시다.¹⁴ 주님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모범을 따릅시다.

옛적에 구세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권유에 응할 수 있기를 빕니다.¹⁵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07:99.
2. 교리와 성약 58:26~28.
3. 누가복음 2:52.
4. 사도행전 10:38.
5. “Proclamation”, *Ensign*, 1980년 5월호, 52~53쪽 참조.
6. *Deseret Semi-Weekly News*, 1889년 10월 29일, 5쪽.
7. 요한복음 9:25.
8. Alfred, Lord Tennyson, In Memoriam A. H. H., section 85, stanza 5, line 4.
9. 요한복음 11:43.
10. 니파이삼서 11:10, 11.
11. 교리와 성약 110:4.
12. “Lycidas”, line 125.
13. 에스겔 34:2~3.
14. 야고보서 1:22 참조.
15. 마태복음 4:19.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외설물]은 마치 성난 폭풍과 같이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한때 건전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을 소유한 이렇게 많은 형제들과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예언자 요셉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한 방에 모였다고 윌포드 우드럽이 기록했던 모임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저녁 우리는 훌륭한 권고를 들었고, 이제 저도 그것을 여러분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연사로서 엘마의 다음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됨이 나의 영광이리니, 이가 곧 나의 기쁨이라”(앨마서 29:9)

오늘 밤 제가 말씀하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그것에 대해 말씀한 바가 있고, 같은 주제로 몇 년 전에 말씀한 것이 *리아호나* 9월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난 폭풍과 같이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한때 건전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형태의 외설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내들로부터 제가 받은 편지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본인의 동의 하에, 불과 몇 주 전에 받은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신분을 노출시킬 만한 부분은 모두 삭제했으며, 내용의 흐름과 투명성을 위해 수정은 최소화했습니다.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힝클리 대관장님께,

“35년을 함께했던 저의 남편이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에 수술을 마친 후 가능한 한 서둘러 우리의 훌륭한하신 감독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 날 밤 저에게 와서 자신이 외설물에 중독되었다고 말했습



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다른 주인의 지배 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의 [많은 중요한 부름을 받아 봉사했습니다.]

“저는 놀랐고 상처 받았으며, 배신당하고 능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에게 용서를 약속할 수 없었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고, 외설물이 [어떻게] 우리의 결혼 초기부터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

다. 우리가 결혼한 지 불과 두 달 되었을 때, 남편은 [외설] 잡지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너무 상처 받고 화가 나서 그를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수년 동안 그는 아주 무자비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우 낙담하게 되었고 결국 심한 우울증에도 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최신포르노 배우와 비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은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는 저를 흠 잡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와 차도 함께 탈 수 없었고, 시내를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 자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저는 죽는 대신 제 자신을 보호하는 장벽을 쌓았습니다. 저는 남편과는 다른 목적 때문에 살았으며, 저의 자녀를 통해서나 완전히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고백과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가진 후에, 저는 그에게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결혼했으며, 그 마음을 결혼 생활 동안 지켰고, 그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지키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저를 위해 똑같이 할 수 없었을까요? 제가 바랐던 것은 일종의 소유물처럼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중하게 여겨지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친절한 언행으로 대우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슬픈 것은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름다울 수 있었던 관계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외설물은 보는 순간에만 흥분과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은 성스러운 관계를 파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커다란 상처를 내며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히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얼마나 애처롭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일부 상세한 내용을 생략했습니다만, 그녀의 깊은 상처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읽어드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는 죄로 얼룩진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외설물을 보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악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거룩한 신권에 성임된 사람의 삶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유일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확신할 만큼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외설물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생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오늘날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인터넷은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설물의 사업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5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중 120억 달러를 순진한 사람들의 돈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악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외설물에 의한 미국 내 매출이 모든 프로 미식 축구, 야구, 농구 관련 사업 매출이나 방송 3사인 ABC, CBS, NBC의 매출 총액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인터넷 외설물 통계: 2003년”, 인터넷, <http://www.healthy-mind.com/5-port-stats.htm>)

그것은 직장에서 직원들의 시간과 재능을 빼앗고 있습니다. “남성의 20%와 여성의 13%가 직장에서 외설물을 본다고 시인했습니다. 성인 남성 10%는 인터넷 외설물에 중독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2003년 인터넷 외설물 통계)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니만큼,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국립 어린이 및 가족 보호 연합은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인터넷을 통해 외설물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10~17세 사이의 어린이 다섯 명당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성인 사이트 방문자들 중 300만 명이 17세 이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주제어 1위는 ‘섹스입니다’ (NCPCE 온라인, “현재 통계치”, 인터넷, <http://www.nationalcoalition.org/stat.html>)

계속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에 달려든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되고 그들의 삶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은 거짓된 개념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지속된 노출은 거의 헤어날 수 없는 중독으로 빠져 들게 합니



다. 많은 남성들이 혼자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은 이 저속하고 추하며 부질없는 오락에 소진되고 맙니다.

너무 쉽게 외설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는 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광풍이 일며 폭설이 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겠지만, 폭풍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적절한 옷을 입고 피난처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추한 것으로 가득 차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청결, 미덕, 깨끗한 생활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의 피난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이고 꾸밈 없이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DVD, 비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잡지 판매대 외에 인터넷이 외설물을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파괴하는 환상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 때때로 질병, 그리고 학대와 관련된 범법 행위

로 이어집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8)

누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품위와 자제력 있는 건전한 생활의 고결한 길이 노소를 막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모든 남성의 길입니다. 청남들에게 저는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회복한 침례 요한이 외설물을 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인 형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엘마서 37:47) 또한 이 악마의 것을 밟고 설 수 있도록, 이 악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외설 잡지를 보아서는 안 되며,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찬 서적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표준보다 낮은 TV를 시청해서도 안 되며, 추잡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에 있는 외설물을 가지고 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성스럽고 훌륭한 선물이며, 세상의 모든 헛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설물은 그것을 찾는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신권의 효능의 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온 영혼을 다하여 그분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독에게 사랑 어린 인도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

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이 악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 사악한 악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도덕한 오점은 평생 동안, 심지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첫번 죽음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며 이미 불사불멸의 몸이 되어질 때에 ... 의로운 자는 의에 머무를 것임이요,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울 것임에 ...”(니파이에서 9:15, 16)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구세주께서 죽은 자들의 영들을 방문하신 것에 대한 시헌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에게는 가지 아니하셨으며,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의 몸을 더럽힌 불의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영들에게 그의 음성을 높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교리와 성약 138:20)

형제 여러분, 저는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낙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합시다. 더 나은 길로 방향을 바꿉시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취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사람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축복들은 [주]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덕 있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의 약속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유혹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8:67~68)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한 집사, 교사, 제사 여러분, 성찬을 집행해야 하는 훌륭한 청남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33:5)

신권에 관한 다음 계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떼어 낼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6)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이 죄악과 상관 없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테이크장이나 감독 또는 지방부장이나 지부장이라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인도, 그리고 영감과 사랑을 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형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셨던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은 미덕과 의지의 햇빛 안에서 흠 없는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길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2004년 10월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헨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홀턴



조셉 비 윈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벤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토르프



데이버드 에이 베드나

취임인 회장단



알 시 스킵기



다avid 크리스토퍼슨



데이버드 이 소완슨



장스 디에이



메릴 제이 베이트만



존 에이치 그루버그



로버트 시 옥스

칠십인 제일 정원회



카를로스 에이치 에이도



남 윌 리드슨



모트 케이 브라프



셀던 에드 저워드



엘 워트니 블러이븐



저리 케이 브라운



스피서 제이 폰디



진 일 콰



폴리우디오 일 엠 코스타



로버트 케이 엘런버츠



존 비 더슨



크리스토퍼 콜론 이세



윌터 콘웰릭스



맬린 게이 겐슨



부루스 시 하켄



도널드 엠 용스트롬



에프 웨민 하먼드



해럴드 지 윌링



에프 버틀 하워드



제이 이 쥘슨



테니스 비 노디스만더



케니스 존슨



더블류 톨포 카



오시워프 기파퍼



존 엠 매드슨



리처드 케이 매이날즈



린 에이 미켈슨



세임 오 사무엘슨 이세



글렌 엠 웨이스



부루스 닉 포터



칼 비 포켓



로버트 에이 라스버드



린 지 로빈슨



스티븐 이 스노우



프랜시스 케이 바이스



랜스 비 워단먼



더블류 크레이그 즈양모



리처드 시 에글리 제1보좌



로버트 제이 넬슨



리처드 에이치 완켈



로버트 에스 우드



데이비드 힐 스펠



포버트 힐 슈루어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데이비드 힐 스펠



앨 콘라드 솔츠



윌리엄 일 윌러



머빈 비 애번즈



더블류스 엠 폴라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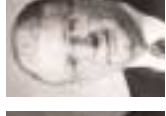
크레이그 시 크레스턴슨



셀리 더 크레스턴슨



다윈 비 크레스턴슨



아더마 더마너



제임스 엠 던



대릴 에이치 간



디 텍스 제렛



에이치 더그리저 칼라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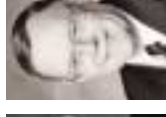
로돌프 더 펠버슨



키스 케이 램프



스탠시 바이 존슨



제임스 앤 핀드



클라트 더블류 마스코 이세



테밍 시 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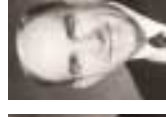
로버트 에프 오를



스티븐 비 오바슨



윌리엄 더블류 필리



웨이니스 피터슨



에이치 브라이언 리터즈



던드 비 루에시



알 콘라드 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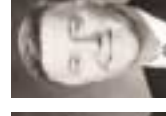
더블류 더블류스 쟈웨이



테니스 이 시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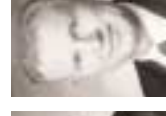
도널드 엠 스티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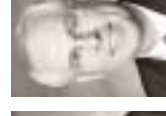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데이비드 힐 스펠



윌리엄 일 윌러



폴리우디오 일 엠 코스타

감리 감독단



리처드 시 에글리 제1보좌



키스 비 맥말린 제2보좌



키스 비 오바슨

칠십인 제이 정원회



오늘 택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세계 전역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과 지명에 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신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최근에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문은 작은 경첩에서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¹

우리가 전세를 떠나 필멸이라고 부르는 어려움이 있는 이 무대로 들어오으로써 우리는 모두 멋지고 중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은사인 선택 의지를 갖고 왔습니다. 예언자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개인적인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늘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님은 루시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것을 보존하고 수호하셨습니다. 이 선택 의지로 인해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인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 생활,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²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선택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을 행사할 선택권이 있으므로 그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³

경전은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 택할 수 있는”⁴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리라
의 안에 너의 마음 떠맡길 때
진리 빛 비쳐 주리라*

*의의 일 선택할 때 화평 있고
마음에 참 안정 깃드리
너 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아
주 축복 얻게 하여랴*

우리에게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위험한 길을 피하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인이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 있는 책상 맞은편 벽에는 하인리히 호프만이 그린 구세주의 사랑스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가 22살에 감독으로 부름 받은 이래로 어느 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든 갖고 다닌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다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세주를 따를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다른 선택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그대로 따를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데 결코 잘못된 일이 없을 지침서를 한 권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합본이라고 부르는 경전으로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었습니다. 이 경전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충고를 따른 소중한 딸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경전 안 표지 공간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손수 적어 준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머린에게,
“인간들의 철학의 진리와 오류를 판단하는 불변의 표준을 갖고, 네가 그러한 지식 안에서 성장할 때 영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평생 이 거룩한 경전을 자주 읽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너에게 준다.

“사랑하는 아빠,
“해롤드 비 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해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루이스 캐롤의 고전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번역사 박환수 형제가 전세계적으로 방송되는 연차 대회를 한국에서 통역하고 있다.

스에서, 앨리스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은 그녀가 각 길이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두 갈래 길 앞에 이르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채서 고양이를 만나고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그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⁶

앨리스와는 달리, 여러분 각자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우리가 가는 길로 인해 다음 세상에서 가게 될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신앙을 부여 받고, 용기를 지니고, 기도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전에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깝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⁷

때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성취의 적, 즉 “자멸”의 원인이 우리의 열망을 축소시키고, 꿈을 파괴하고, 비전을 어렵게 하고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적이 우리의 귀에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너무 어려.” “넌 너무 늙었어.” “넌 아무 것도 아

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커다란 힘과 권세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 일원으로 오래 봉사하신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들의 인쇄 준비를 도우면서 저는 값진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경건하게 숙고하시던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 액자에 넣기에 적절한 사진을 인쇄하도록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진은 파괴된 도시의 폐허를 지키는 퍼스폴리스의 사자상이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선택한 좋아하는 여러 개의 성구를 그 그림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쇠퇴한 문명의 아치 사이에 삽입해 인쇄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선택한 구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세 개의 성구가 있었는데, 두 개는 전도서에, 그리고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전도서에 있는 성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⁸

둘째,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⁹

셋째,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¹⁰

오래 전에 살았던 예언자 모로나이드 지금의 물문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 이를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와 더불어 함께하시게 하라.”¹¹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투는 여러분의 영혼, 즉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그 조용한 순간에 가족과, 교회와, 국가와,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¹²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거룩한 숲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힘이 필요합니까? 각자 자신의 “거룩한 숲”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방해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러한 숲입니다.

신약전서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¹³

구세주께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으실 때, 회당에서 볼 수 있는 독선적인 무리 가운데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버나움의 어부들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해변에서 가르치시면서 물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군중들이 몰려 방해 받지 않기 위해 그는 한 배에 오르셔서 물가에서 좀 떨어지기를 그 배 주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친 후에 그는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¹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¹⁵

어부 시몬은 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심 많고, 불신하고, 교육 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고, 성급한 시몬에게 주님의 길은 쉬운 고속도로도 아니었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적은 자여”¹⁶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¹⁷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심 많은 시몬은 신앙심 깊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열성과 힘 있는 선교사를 택

하실 때,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신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¹⁸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수한 교회 회원들이 매일 비이기적인 봉사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지만 광파레를 울리거나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조용한 사랑과 부드러운 보살핌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봉사하기 위해 것처럼 간단하지만 숭고한 선택을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몬슨 자매와 저는 한때 제가 선교부장이었을 때 살았던 토론토 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초대 스테이크장의 아내인 올리브 데이비스 자매는 몹시 아팠으며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 그녀에게 필요한 간병을 해

줄 수 있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의 유일한 딸은 멀리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스 자매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미 위로해 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긴장한 손자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할머니를 보살피 드리기 위해 대학 공부를 제쳐 두고 여름의 대부분을 그 곳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 자네는 결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걸세. 할머니는 자네가 여기 온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실 걸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할머니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도움을 받고 또한 병원에 있는 각 직원과 모든 환자에게 그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으며, 또한 그는 밤이면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올리브 데이비스 자매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충실한 남편을 만나 영원한 여정을 함께 계속할 것입니다. 손자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리라.”¹⁹

그러한 것이 사람이 개인적인 자신의 성전을 짓는 데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²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을 인도하는, 단순하지만 원대한 공식을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봉사로 삶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 구세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²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여호수아 24:15.
2. In Brian H. Stuy, comp., *Collected Discourses Delivered by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그리고 다른 아들*, 5 vols. (1987~1992년), 1:341.
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존 에이 윌소, [1954년], 54쪽.
4. 니파이서 10:23.
5. 조셉 엘 타운센드(1849~1942),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6.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개작(1992년), 76쪽.
7. 디모데전서 4:14; 6:20.
8. 전도서 12:13.
9. 전도서 1:2.
10. 요한복음 17:3.
11. 이터서 12:41.
12. 대회 보고, 1967년 4월, 84~85쪽; 또는 *Improvement Era*, 1967년 6월, 80쪽.
13. 마태복음 25:40.
14. 누가복음 5:4~6, 8.
15. 마태복음 4:19.
16. 마태복음 14:31.
17. 마태복음 16:15, 16.
18. 사도행전 9:15.
19. *찬송가*, 163장.
20. 고린도전서 3:16.
21. 마태복음 25:2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화평, 희망, 그리고 이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와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여서 그것은 복음의 첫번째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¹에 해당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약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얻을지? 우리가 보지 못한 구세주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얻을지?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은사를 주시며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어 계속하여 충실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를 주시며”³

태초로부터,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지상의 성역,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그분의 속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수천 년 동안의 예언들, 즉 구세주의 첫번째 강림과 이주 분명하게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날인 재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예언자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들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구세주의 강림에 대한 신앙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고대 미대륙의 레이멘인 예언자였던 사무엘은 구세주의 탄생 전날 밤에 대해 “하늘에 큰 빛이 있어 사람들에게는 마치 낮과 같을 것이요”라고 예언했습니다.⁴

많은 이들이 사무엘의 예언을 믿었고 니파이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침례 받았습니다.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크게 기쁜 소식을 전하매”⁵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니파이인들은 “마음이 강박하여져서”⁶ 시대의 표적과 기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표적들은 “[사람들이] 곧 이르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⁷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니파이인들은 “저들의 지혜만을 믿어 이르기를, 몇 가지를 더러 바르게 맞힌 [믿는] 재들도 있으나, ... [그러나] ...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은 이

치에 맞지 아니하니”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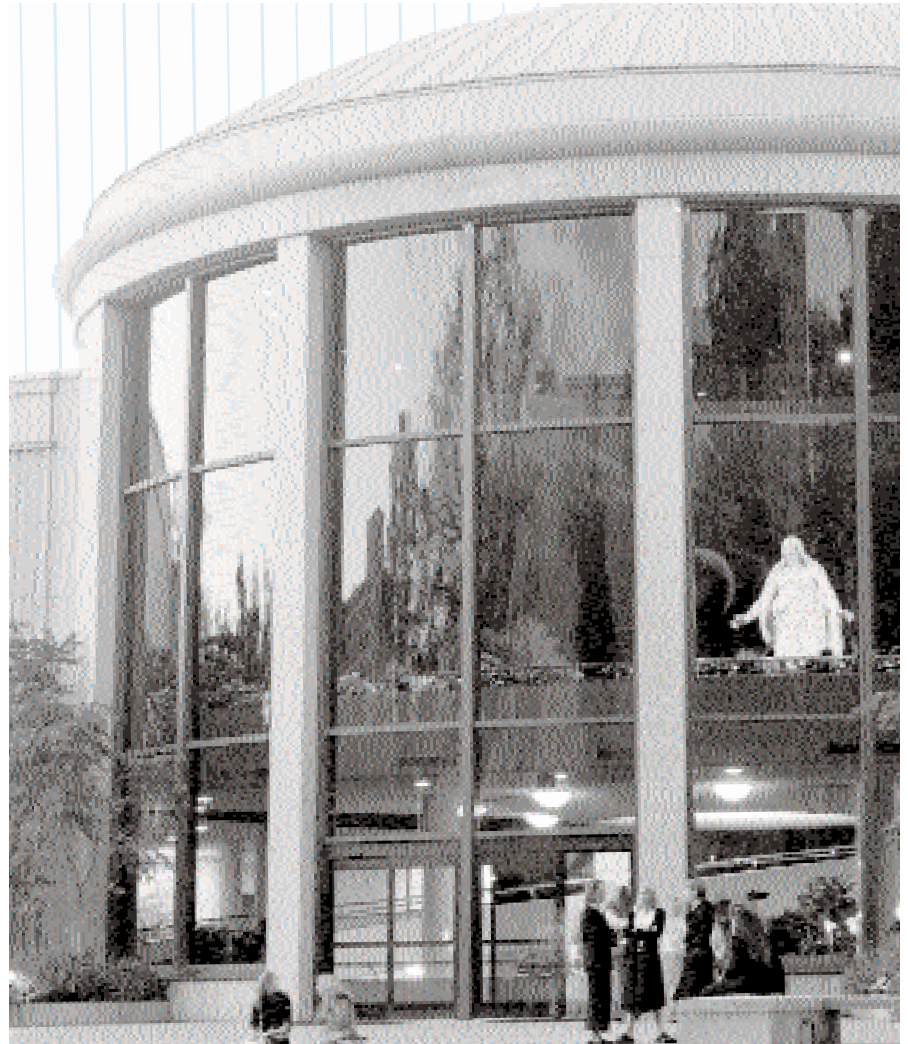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 반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부 회의론자들은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다른 이들을 현혹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한 낮과 밤과 그 다음 낮이 모두 한 날 같을” 때⁹, 예언자들을 믿었던 이들의 가슴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몰려 왔겠습니까! “만사가 예언자의 말씀대로 일획도 어김 없이 다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새로운 별이 나타났느니라.”¹⁰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구세주의 생애와 성역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헌신적인 추종자들의 신앙도 종종 시험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도마는 구세주의 제자들로부터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는 대신에,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¹¹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랑 받는 사도는 구세주 손에 박힌 못 자국을 만져 볼 기회가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¹² 그러자 주님은 그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¹³

미대륙의 믿는 자들도 비슷한 신앙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큰 “천둥과 번개”¹⁴가 일고 암흑이 “[사흘 동안 땅을 뒤덮]”¹⁵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영접하[고] 돌로 치지 아니한”¹⁶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구세주의] [이미 보여진] 죽으심의 표적”¹⁷임을 알고 성전에 모여 함께 놀라워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우리가 땅에 엎드렸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리라고 한 예언된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였음이라.”¹⁸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번째 강림에 대한 예언은 “일 획도 어김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의 많은 이들이 구세주가 오셨고 그분이 절정의 시기에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대회와 다른 대회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증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즉 “대낮에 어두움 속을 걷고 있고”

¹⁹ 현대의 계시의 빛을 통해 보기를 부정하며 세상의 빛이 우리들 중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시리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선하고 관대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세상의 구세주이며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믿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의 의식이 자신의 삶에 가져올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게 다음과 같이 친숙하고 다정하게 질문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헤일즈 장로님, 난 믿고 싶습니다. 언제나 믿고 싶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그 질문에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



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²⁰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또는 이 대화의 말씀들을 읽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는 첫번째 단계는 그분의 종들, 즉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구세주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²¹ 바꾸어 말하면, 듣는 것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신앙]은 죽은 것이니라”²² 그것은 배운 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이노스가 배운 것처럼, 복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마음 깊이 스며들게”²³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신앙을 키웠던 이노스의 경험에서 몇몇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노스는, 여러분이 이 대화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의 부친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그는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²⁴에 관한 부친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셋째, 그는 그러한 가르침이 진리인지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노스는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²⁵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강한 영적인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노스는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령[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²⁶ 넷째, 이노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으며, 그로 인해 성령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²⁷ 그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앙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노스는 자신의 기도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²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찾아 왔습니다. 성신의 권세로 그는 스스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노스와 같은 신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1) 하나님의 종이 말하고 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3) 의로움에 대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십시오. (4) 복음의 법과 의식 그리고 성약을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5)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도록 신앙으로 구하면서, 힘있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진실되다는 것과 끊임없이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²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역경을 통한 경험을 포함해서, 많은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년 육 개월이 된 손자를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 제 자녀들은 아직 손자의 침대를 치우지 않았으며, 그 아이가 죽은 지 [곧] 7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69세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세 종류의 암을 앓았는데 두

차례나 병세가 완화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신장에서, 그리고 그의 뇌에서, 그리고 그의 폐에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이겨 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했으며, 6년 전에는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연장되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제게 힘든 일입니다.”

신앙을 위해 제게 호소하는 이 친구에게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백혈병으로 손자를 잃은 당신의 가족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당신과 자녀들이 평화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인생의 목적에서 풀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인생의 비밀에 답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려는 진실된 소망을 지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필멸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 살며, 그리고 지상에서의 필멸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형제님의 손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8세 이전에 죽어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신앙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또는 돌보는 이들은 비극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반대로 고통을 겪는 자들이 종종 고통을 통해 신앙을 얻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³⁰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장된 날”로 신앙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의 지상 생활의 어려운 도전이 찾아오고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때, “신앙을 갖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화평, 희망, 그리고 이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다는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얻을 때,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때 이노스와 같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형제와 자매의 복지를 위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고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속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부 예언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굶주림을 채워 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시라. 이르시되,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독생자라. 네가 타락하였으매, 구속을 얻을 것이요.”³¹

“주가 야벳의 동생에게 친히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어’”³²

아빈아다이는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 바라노라 ... 참으로 저가 이같이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리니, ... [그분에게] 인간과의 중재자가 될 권세를 갖게 하시고, ... 저들을 구속하시며, 공의로우신 뜻대로 행하셨느니라.”³³

마지막으로, 요셉 스미스입니다. 14세의 소년으로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하여 예언자 야고보의 “하나님께 구하라”³⁴라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예언자의 부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지시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에게 있었던 이 첫 번째 시험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6년 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그는 구세주의 방문을 다시 받았고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니 ...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

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³⁵

신앙을 매우 갈망하는 영혼을 지닌 나의 친한 친구와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 [간구하기를]”³⁶ 권유합니다.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들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로서 성신을 통해 이 진리의 증거를 구하고, 그 후 이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운 도전들을 기쁜 마음으로 헤쳐나가며 영생을 위해 준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되는 것을 스스로 지켜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저의 특별한 증거와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신앙개조 제4조.
2. 히브리서 11:1.
3. 교리와 성약 46:13~14.
4. 힐라맨서 14:3.
5. 힐라맨서 16:14.
6. 힐라맨서 16:15.
7. 힐라맨서 16:4.
8. 힐라맨서 16:15, 18.
9. 힐라맨서 14:4.
10. 니파이삼서 1:20~21 참조.
11. 요한복음 20:25.
12. 요한복음 20:28.
13. 요한복음 20:29.
14. 힐라맨서 14:21.
15. 힐라맨서 14:27.
16. 니파이삼서 10:12.
17. 니파이삼서 11:2.
18. 니파이삼서 11:10~12.
19. 교리와 성약 95:6.
20. 로마서 10:17.
21. 마태복음 11:15.
22. 야고보서 2:26.
23. 이노스서 1:3.
24. 이노스서 1:3.
25. 이노스서 1:4.
26. 니파이삼서 12:6.
27. 이노스서 1:4.
28. 이노스서 1:2.
29. 마태복음 7:7.
30. 마태복음 26:42.
31. 모세 5:9.
32. 이터서 3:13~14.
33. 모사이야서 15:1, 7~9.
34. 야고보서 1:5.
35. 교리와 성약 110:2~4.
36. 이터서 12:41.

간증 기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과거에 제 삶에 영향을 끼쳤던 이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느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와 전세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새로 부름을 받은 베드나 장로님과 로버트 옥스 장로님에게 저의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제 가슴 속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허리케인처럼 고요하다고, 아니 그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두렵기도 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에 전적으로 영원히 영향을 미칠 부름과 성스러운 책임을 받고 난 지금,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종종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영혼에

대해 깊고도 고통스러운 성찰을 하며 아름다운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제게 사도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라는 부름을 주신 뒤, 저는 이 전혀 기대치 않은 소식을 사랑하는 아내 헤리엇에게 전하기 위해 분주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우리 둘은 피난처이자 은신처로서 우리의 가정에 깃든 고요하고 성스러운 순간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제 삶에 있어 사랑스러운 위안과 강한 지지를 전해 준 아내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삶이라는 은사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다음으로, 제 아내 헤리엇은 제 삶에 있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해 주었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사랑,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범에 대해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영원한 축복은 그 수천 마일의 거리를 연결해 주어 우리의 삶에 행복과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가족 개개인과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가르쳐 주고 봉사하며 고양시켜 주었던 많은 친구들과 교사들께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제게 보여 주신 사랑과 친절함에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곱 명의 회장 중 한

일원으로서 봉사했던 저의 청지기 직분을 마감하며, 칠십인 정원회에도 저의 사랑과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시며, 어느 누구보다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형제들입니다. 왕국을 건설하는데 자신들의 많은 시간과 재능 그리고 영적인 힘을 바치고 계신 헌신적인 형제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칠십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특권과 기쁨의 그 십 년 육 개월을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형제님들이 보여 주신 모범과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사랑,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들과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 또한 와드와 지부가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 살아 계신 예언자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시간, 정력, 그리고 정서적, 영적, 세상적인 자산들을 바치고 계신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내며 궁핍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치 않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모범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의 기적입니다.

손을 들어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의 총관리 직원들을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들은 만장일치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총관리 직원들을 지지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직원들은 그 부름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온 것임을 알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직위를 구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부름을 받아 봉사하시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부름이 중요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과 영광에 있어 그분을 돕기 위해, 즉 “모

든 인간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 (모세서 1:39)는 일을 돕기 위해 이 곳에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의 영역에서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합니다.”(“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0쪽) 또한 핑클리 대관 장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

쳐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가슴에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줍시다. [그들이] 노력하게 합시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야호나, 1999년 7월호, 118쪽)

제 삶은 50년 전에 손길을 뻗쳐 주었던 한

선택된 회원에 의해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뒤 며칠 후, 제 할머니는 식량을 배급 받기 위해 줄을 서 계셨는데, 그 때 가족이 없던 한 연로한 독신 자매님이 제 할머니를 동독의 츠비카이에 위치한 한 교회의 성찬식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제 할머니와 제 부모님들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영을 느꼈고, 회원들의 친절함에 고양되었으며, 회복의 찬송가에 감화되었습니다. 제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저의 세 형제 자매들은 모두 침례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섯 살이었기에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셨던 할머니와 잘 받아들여셨던 부모님들, 그리고 용기 있게 다가와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 참조)고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구세주의 모범을 따른 백발의 연로한 독신 자매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이빅 자매님으로, 번역하면 “영원한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모범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제 삶에 영향을 끼쳤던 이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느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다짐해 봅니다. 제 생각과 마음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니파이이서 25:26)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 참조)으로서 갖는 기회입니다.

제 약함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위안을 받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였더라.

“지혜를 구하였으매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겸손하였으매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 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1:23, 26, 28)



그리고 물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
 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그리고 구약전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시니 ... 새 사람
 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느니라”(사무엘
 상 10:6, 9, 7)

저는 이러한 훌륭한 약속들을 믿습니다. 따
 라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과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름을 알
 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실재하며, 그 속죄는
 모든 이들에게 불사불멸을 가져오며, 영생으로
 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이 지상에 존
 재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
 되고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거이
 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경전입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요셉 스미스 이후
 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지니고 계셨던 열쇠
 들, 즉 왕국의 모든 그 열쇠를 지금 이 시기에
 지니고 계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사랑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제 생각과 마음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의 힘을 입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힘을 입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마
 음은 벅차 오르며, 약간 현기증도
 나고, 다리가 너무 약해져 휘청거
 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할 만한 말을 찾
 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 간단히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신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으로부터 봉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부름을 받은 뒤로 몇 시간 동
 안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보라”(니
 파이일서 19:23 참조)는 니파이의 권고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목적 의식을 갖고 집중해서
 유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린도전서 1:27)라는 바울의
 가르침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 가운
 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큰 위안을 얻습니다.

물몬경에 있는 야곱의 가르침도 깊이 생각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자에게 구하며 많은 계
 시와 예언의 영을 지녀 이러한 증거를 가짐으
 로 하여 소망을 얻으며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
 리지 않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무를 명하
 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며, 산이나 대양의 물
 을 명할 수 있게 되리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심은, 오직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
 푸시는 자비와 위대하신 공덕으로 우리가 이러
 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야곱서 4:6~7)

형제 자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 사
 용된 자비라는 낱말에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
 니다. 성경 사전에 의하면 “자비”라는 단어는
 강화시키는 힘 또는 능력을 주는 힘이라는 뜻
 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 우리는 이 단어가 경
 전에서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의 주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도움이나
 힘의 신성한 방편이다.

“...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선을 행하는 힘과 도움을 받는 것은 바



로 주의 자비를 통해서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방편에 의지할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비는 남성과 여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는 힘이다.”(697쪽)

따라서 능력을 주고 강화시키는 속죄의 힘은 우리의 제한된 필멸의 능력으로는 결코 인식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고 행하고 선하게 되도록 도와 줍니다. 구세주의 속죄가 지닌 능력을 주는 힘이 실재한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증거합니다. 속죄의 강화시키는 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암몬의 간증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강화시키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을 때, 나의 주를 자랑하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적들을 행하였으니,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앨마서 26:12)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힘을 입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핑클리 대관장님과의 접견을 마치고 교회 본부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예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녹이 이 말씀을 듣자 주 앞에서 땅에 엎드리어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주의 눈에 들음이 어쩐 연고니이까? 저는 나이 어린 자요, 말들더디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 이러하고서도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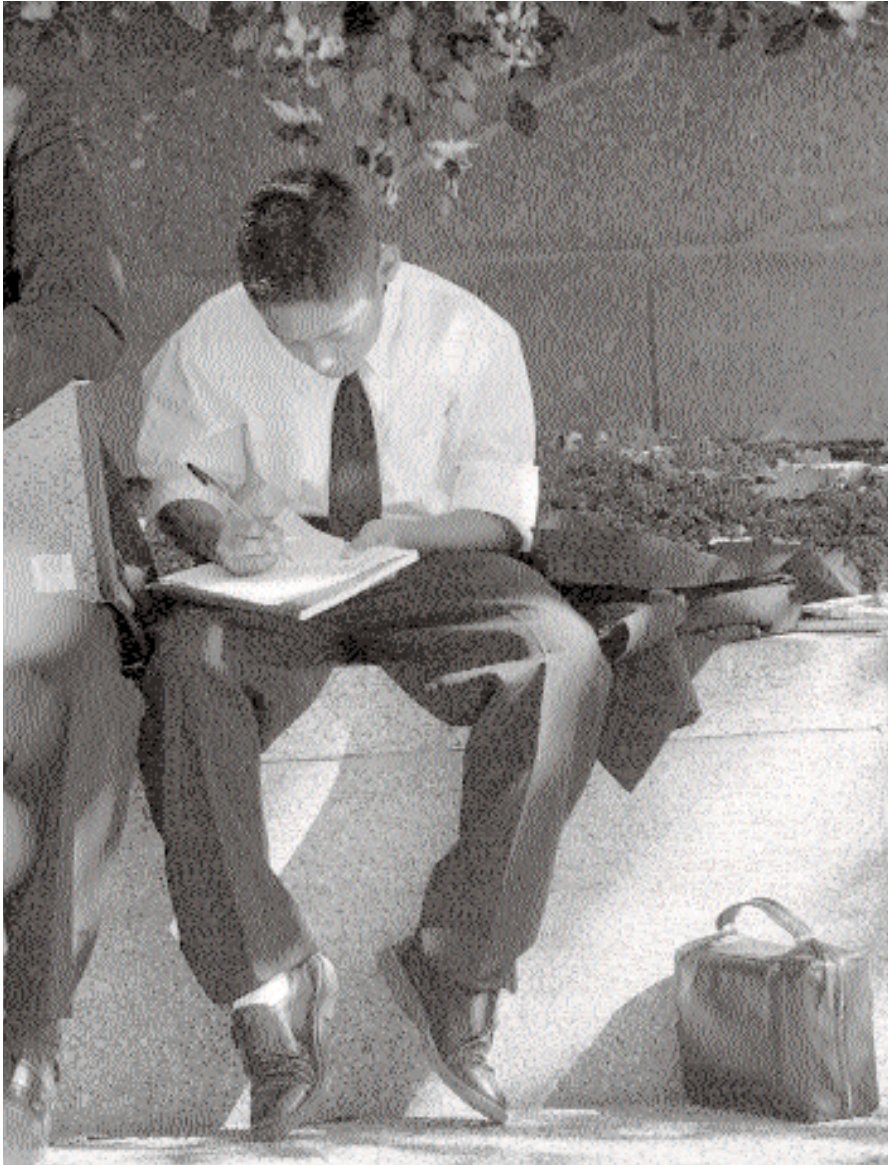
“이에 주께서 예녹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나아가 행하라. 그 어느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입을 열라. 그러하면 채워져 내가 말하게 해 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수중에 있어 내가 좋을 대로 행할 것임이니라.”(모세서 6:31~32)

새로운 부름이나 책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감당하기 어렵고,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예녹에게 주

신 약속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약속은 예녹의 시대에도 참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2000년 6월 20일 밤에 여러 동료들과 저는 아이다호 렉스버그에 있던 당시 리스 대학의 본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교정에서 있을 갑작스러운 역사적 모임과 리스 대학이 4년제 정식 학위 수여 교육 기관이 되어 그 이름이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로 바뀐다는 핑클리 대관장님의 발표를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직원으로서, 우리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책임과 도전의 기념비적인 본질을 막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 밤 함께 건물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총장님, 두렵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보니,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책임지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BYU 아이다호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도움이 있었으며, 기적이 일어났고, 계시가 있었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학교 전체로 커다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간증드립니다.

이제 저는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충실하고 확고한 제 조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은 그분들 덕택입니다.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지지와 가르침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 수잔은 유덕한 여인이며 의로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제 아내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순수함과 선함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본성, 제게 준 교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에 대해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잔과 저는 건강한 세 아들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이제 커 가는 우리 작은 가족에도 두 명의 의로운 며느리와 영리하고 예쁘고 매력적인 세 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함께 모일 기회가 있을

때면, 우리는 영원 속에서 가족 단위로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는 축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곳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여러분을 보고 세계 곳곳의 집회소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니,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헌신에 의한 축복을 느낍니다. 토요일에 여러분이 팔을 직각으로 들었을 때 저는 지지의 영향력이 제 영혼 속으로 뚜렷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은 이 부름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기꺼이 지지하고 도움을 주시길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제 온 영혼과 힘을 다해 이 신성한 사업에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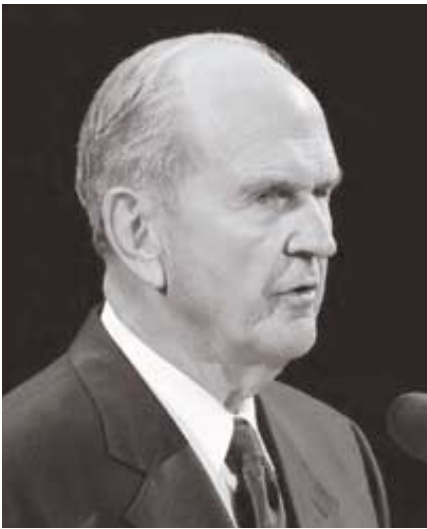
저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 지도자들께서 제게 가기를 바라는 곳은 어디든 가고, 그분들이 제게 원하는 일들을 하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힘과 그분의 자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아 모든 일들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며,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그분의 참된 교회가 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신권 열쇠와 권능과 구원 의식이 이 지상에 다시 존재합니다. 그 신권의 권세에 의해 가족은 참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물론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말일의 왕국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 드리며 말씀드립니다. 아멘. ■

부부 선교사 그리고 복음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부부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현명하며 기꺼이 일하고자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와 데이비드 에이베드나 장로를 반갑게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입니다.

금년에 저는 교회 부름을 수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 몇몇 나라의 교회는 비교적 초기 단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매우 유능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¹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었

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슴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보통 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젊은 형제와 단정히 옷을 입은 젊은 자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과 더불어, 부부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온 훌륭한 부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²

저는 부부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현명하며, 기꺼이 일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의 “걸음의 폭을 넓히십시오.”³라고 바꾸어 버릴지 모르는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의 말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회원들은 기꺼이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의 삶을 강화시키길 원합니다.⁴ 비록 그 지역의 언어를 모른다고 해도, 그들의 성과는 훌륭하며 그들의 희생 정신은 소중합니다.⁵

부부 선교사들의 봉사의 모범

한 예로 저는 다 자란 아홉 자녀의 부모이자 20명의 손자, 손녀를 둔 로이드 폴맨 장로와 부인 케서린 폴맨 자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칠레의 외딴 곳에 있는 한 작은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활동된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며 최근에 개종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 폴맨 장로 부부는 그들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성전에 대한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선교부에 있는 지부 사람들에게 음악 지휘법과 쉽게 편곡된 찬송가를 작은 전자 키보드로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폴맨 장로와 자매는 최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침례는 개종에서 첫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침례 당시 느꼈던 흥분이 가라앉고 단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현실에 계속 직면할 때, 그들은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줄 다른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는 바로 이 새로운 개종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즉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으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사업에서 끊임없는 가르침과 도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를 통해 함께 이 부름을 수행하며 그러한 축복들을 받고 있다는 축복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⁶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업에 그러한 훌륭한 부부 선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부 선교사들은 성스러운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케니스 장로와 바바라 윌릿츠 자매를 예로 들면, 그들은 가나의 아크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년도 훨씬 전에 이미 그 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가나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활기차고 열정적인 개종자였으며, 3명의 자녀와 16명의 손자, 손녀 그리고 12명의 증손자, 증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승영과 관련된 의식을 집행합니다. 윌릿츠 형제는 인봉자로 봉사합니다. 종종, 이전의 선교 사업 때 만났던 회원들을 다



시 마주치게 될 때 그들은 놀라며 즐거워합니다. 최근에는 윌릿츠 형제가 1982년에 그들이 가르쳤던 부부를 인봉하는 의식을 집행했으며, 그들의 사망한 4명의 자녀들을 이들 부부에게 인봉했습니다. 윌릿츠 장로와 자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꺼이 집과 가족을 떠나고자 했던 결심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동안 가족들은 완전하게 지지해 주었으며 많은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도록 돕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음에 겸손히 감사를 드립니다.”⁷

윌릿츠 장로와 자매와 같이 용기 있고 사려 깊은 부부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의 성전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가능하게 하며, 또 훌륭히 돕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은 가나의 아크라 성전과 같이 그 지역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전에 성전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던 곳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회원들을 위한 의식들은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경험 많은 부부 선교사들 덕분

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또한 전합니다.

금년 초에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와 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었던 그 곳에서 최초의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키예프 선교 지방부가 스테이크가 될 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 즉 잘 조직되어 시온의 스테이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 곳에서 또한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엔 몇몇 신앙심 깊은 노부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동독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자란 루디 장로와 에바 헤게발트 자매가 말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독일 말투를 약간 섞어 힘들었던 제2차 세계 대전의 날들과 그 후에 있었던 소비에트 점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박탈당한 많은 권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를 찾고 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은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민 후 그들은 5명의 자녀를 얻었고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동유럽에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헤게발트 장로와 자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적이었던 사람들의 땅에서 봉사하는 일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봉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었고 가족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고 많은 작은 기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⁸

위의 세 부부는 모두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적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한 부부는 선교사의 봉사를 통해 오는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 만약 기도와 금식으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선교사

업을 재고했는지도 모릅니다.”⁹

부부 선교사들 중 어느 누구도 선교 사업을 떠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브리감도 그리고 존과 윌포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들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길 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세우는 데 헌신한 신앙심 깊고 충실한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로부터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심지어 그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시기라 해도, 우리가 가까이 그 부름을 받아들였던 점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1925년 10월의 연차 대회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는, 원숙한 나이에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회원들은 … 선교 지역에 나가서 일하라”¹⁰고 명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필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세계의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최근의 훈련 방송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도 비슷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부부 선교사에 대한 필요도 한결같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훌륭한 봉사를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부부들이 자원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일과 관련된 희생은 그 부부,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할 것입니다.”¹¹

일할 수 있는 자격

감독들은 또한 이러한 예언적인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고 봉사 가능한 회원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며 끝이 없습니다.¹² 이러한 부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직업 경력, 언어적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고려 후에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¹³ 이 부름에 대한 자격 중 어떠한 것보다도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만나니.”¹⁴

겸손한 많은 말일성도들이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봉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는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나니.”¹⁵

나이와 체력에 따른 한계

부부 선교사들의 봉사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만, 한편 저는 봉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중요한 필요 사항처럼, 나이와 약한 체력에 따른 한계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소망이 가슴에서 타오른다면, 비록 그러한 한계를 느낀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팔과 다리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재택 시간제 선교사로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¹⁶ 어떠한 모양의 봉사도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 모두 그분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

우리 모두는 말씀과 모범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¹⁷ 예수님은 그분의 과업과 필멸의 지상 생활의 성역에 있어서 언제나 복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¹⁸

우리는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수행하실 사명이 속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지상 성역에는 그분이 행한 그 밖의 모든 것, 즉 그분의 가르침, 사랑의 표현, 의식에 대한 관심, 기도의 모범, 인내 그리고 그 외의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사셨고, 또한 자신의 성역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모범을 복음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요, ...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¹⁹ 그러므로 신앙, 회개, 물과 불 그리고 성신의 침례, 선택된 사람들의 집합, 그리고 끝까지 견뎌는 복음의 모든 부분입니다.²⁰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²¹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한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교회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말일에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분의 예언자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16:15; 또한 마태복음 28:19; 물몬서 9:22; 교리와 성약 42:58; 68:8; 80:1; 84:62; 112:28 참조.
2. 예를 들어, 고든 비 힝클리,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2~6쪽; 또한 엘 톨 페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117~120쪽; 엠 러셀 벨라드, “부부 선교사”, *성도의 빛*, 1990년 5월호, 16~21쪽; 로버트 디 헤일즈, “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8~31쪽 참조.
3. “Serving as Couple Missionaries”, *Ensign*, 1997년 9월호, 15쪽 참조.
4. 누가복음 22:32 참조.
5. 선교 사업의 4가지 고려 사항:
(1) 재정: 지금까지 가정에서 필요했던 것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다면 자녀들, 친구들, 정월회,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다.
(2) 두려움: 노년의 선교사들은 가까호호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유창할 정도는 아니라도 필요한 것은 익힐 수 있다는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에 대해, 저는 큰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먼저 제가 개인적인 특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여섯 달 전에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67년 동안 사랑해 온 동반자가 몹시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이들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날은 바로 4월 6일이었으며 이 교회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병석에서 아내를 돌봐 주었던 헌신적인 의사들과 훌륭한 간호사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과 저는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필멸의 목숨이 아내의 손가락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 벅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당시 유행가 가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제가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세기의 2/3 이상 동안 사랑하는 동반

자로 주님 앞에서 저와 동등한 사람이었으며, 실제로는 저보다 나았습니다.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아내는 다시 제가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 전세계에서 엄청난 사랑의 말이 쇄도했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꽃들을 받았습시다. 거액의 기부금이 그녀의 이름으로 영구 교육 기금과 브리감 영 대학의 학술 프로그램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많은 편지가 왔습시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 정말로 많은 편지가 여러 상자를 가득 채웠습시다. 모든 편지에는 그녀에 대한 찬사,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떠난 우리 가족에 대한 조의와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관심에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없어 송구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큰 친절을 보여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며, 답장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벅찬 일이었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슬픔의 시기에 위안의 기운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언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물론 때때로 작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누구라도 이룩할 수 있을 만큼 즐거웠다고 저는 믿습시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축복을 받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정말 여러분을 열렬히 칭찬합니다만, 결국에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있다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들은 선교사 용어를 배울 것이며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건강: 집에서나 선교부 임지에서 위험이 없는 상황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식사나 운동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다. 선교부 임지에서도 정규적인 건강 관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응급 상황에서, 타당하다면 귀환도 가능하다.

(4) 가족: 그들의 봉사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축복 받을 것이다. 주님은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보라, 너는 네 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겪어 왔도다. 그러나 나는 너와 네 가족을 축복하리라. 참으로 네 어린 아이들도 축복하리니, 네 가족이 진리를 믿으며 확신하게 되어 나의 교회에서 너와 더불어 하나가 될 날이 이르리라."(교리와 성약 31:2) 어린아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뿐 아니라 주님께로도 인도될 것이다.

6. 2004년 6월 29일자 개인 서신.
7. 2004년 6월 28일자 개인 서신.
8. 2004년 7월 1일자 개인 서신.
9. 2004년 6월 27일에 브랜트 박사와 캐롤 피터슨 박사가 열린 에이지 옥스 장로에게 보낸 서신.
10. 대회 보고, 1925년 10월, 10쪽.
11. "교회의 감독들에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감독단과 아론 신권 소유자, 2004년 6월 19일, 27쪽; 또한 고든 비 힝클리,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1996년 4월, 72쪽.
12. 그러한 것에는 지도력과 회원 사업, 가족 역사와 성전 봉사, 의료, 인도주의적 봉사나, 복지를 위한 봉사, 방문자 센터 봉사, 공보 사업, 지역 또는 선교부 사무실에서 재정과 기록 그리고 시설 부분에서 돕거나 일하는 것, 교회 교육 기구를 위해, 영구 교육 기금을 위해, 또는 교육에 힘쓰는 다른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있다. 선교사로 나올 수 있는 이들이 가진 다른 능력들도 사용할 기회가 많다. Giles H. Florence Jr., "So Many Kinds of Missions", *Ensign*, 1990년 2월호, 6~11쪽 참조.
13. 부부 선교사의 자격 요건과 준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데이비드 비 헤이트, "부부 선교사 훌륭한 자원", *리아호나*, 1997년 10월호, 26~31쪽; "Couple Missionaries: Too Wonderful for Me", *Ensign*, 1998년 9월호, 14~17쪽; "There Is Work for Us to Do", *Ensign*, 1993년 10월호, 36~41쪽; "The Impact of Couple Missionaries", *Ensign*, 2003년 4월호, 60~63쪽; "Working Miracles in Mission Field", *Church News*, 1990년 10월 22일, 3, 7쪽.
14. 교리와 성약 4:2~3.
15. 교리와 성약 4:5.
16. 추가 정보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의 "Service Opportunities for Senior Missionaries"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서 "Other Resources"를 클릭한 후 "Church Service Missionary Opportunities"로 들어가십시오.)
17. Bible Dictionary, "Gospels", 682~683쪽 참조.
18. 니파이삼서 27:13~14.
19. 니파이삼서 27:21.
20. 교리와 성약 33:6~12; 39:6 참조.
21. 교리와 성약 107:23.

동반자 관계보다 더 소중한 동반자 관계란 없으며, 또는 선악의 경우 결혼의 영원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결과를 끊임없이 봅니다. 아름다움과 비극 모두를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모세서에서 위대하고, 유일하고, 놀라운 일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창조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분의 지시 아래 사랑하는 아들, 위대한 여호와께서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는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물이 땅에서 걷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그 뒤에 동물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그러나 그 과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세기 2:20~23)

따라서 이브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 즉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놀라운 일의 원대한 최종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브의 창조에 주어진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시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부수적인 위치로 너무도 자주 격하되어 왔습니다. 여성은 경시되어 왔고, 모욕당해 왔으며, 예속되어 왔습니다. 여성은 학대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경전에 나오는 소수의 몇몇 위대한 인물은 고결



성, 성취, 신앙을 지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에스터, 나오미, 룻이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새라이아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녀는 니파이가 “모든 처녀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게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라고 묘사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이입니다.(니파이일서 11:15 참조)

그녀는 헤롯의 진노에서 아기 예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아기를 데리고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양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찢겨진 그분의 육신이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녀는 그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분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보라 네 어머니라”라고 말했습니다.(요한복음 19:26~27 참조)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녀는 첫 부활절 아침에 무덤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성을 이러한 탁월한 위치에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서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할까요?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성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그 두 개의 성별이 고상하게 표현됩니다. 한쪽은 다른 한쪽을 보완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전능하신 이의 신성한 목적을 만족시키는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 두 개의 성별은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보완적 관계와 기능은 그분의 목적에서 기본적인입니다.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가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중에는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유능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또 여러 조직에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역원으로서 봉사합니다.

일전에 저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모임 중에 있었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유능한 여성들이 그 평의회실에서 복지 원리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원으로서 우리의 위치는 그 분들이 행한 일로 인해 약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봉사하는 우리 능력이 커졌습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져다준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할 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격하

시키면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동시에 자신을 높일 수는 없다.”(Alexander Walker, *Elbert Hubbard's Scrapbook*, 204쪽)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격하시킬 때 오는 쓴 열매를 주위에서 봅니다. 이혼이 그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이 해악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혼 반려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무시, 비판, 학대, 버림을 통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6)

이 구절의 “사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이르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수백 건의 이혼 상황을 다루어 본 끝에 저는 이 비통한 문제를 푸는 데 하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그 밖의 다른 무엇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동반자의 위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끊임없이 한다면, 이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논쟁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보다는 사랑과 관심이 학대와 비열함을 대신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우리가 부르던 유행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Irving Caesar, “I Want to Be Happy”
[1924년])

정말 옳은 말입니다.

모든 여성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남성들에게 간청드리건

대, 여러분 동반자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찾아 보고 키워 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 조화와 평화가 있고 가족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랑이 커질 것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인생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 [1924년], 42쪽에서 인용; 대회 보고, 1935년 4월, 116쪽)

마찬가지로 리 대관장님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Maintain Your Place as a Woman”, *Ensign*, 1972년 2월호, 51쪽)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 친절과 관심의 표현에 있습니다. 황금률의 적용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약을 맺으면서 제단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런 다음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모욕적인 인사, 경박하고 기슴 아픈 말, 높은 음성, 모진 비난을 서로에게 할 때 그 모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이런 “천하고 보잘것없는 요소들”(갈라디아서 4:9)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신성한 성품을 서로에게서 찾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훈육하는 반면, 우리의 동반자를 훈육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생활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하면서 함께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은 특별하고 신성한 자질을 부여 받은 피조물이며 그 자질들은 친절과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게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있는 재능과 천부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 그런 손길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제 사랑하는 동반자는 어느 날 저녁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당신의 그러한 점이 좋았어요.”

지금은 사망했지만 생존해 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우겼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가족들은 신발 한 켤레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 교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의 없이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의 결과를 목격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 부친은 어머니를 칭찬하는 데 결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친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그 분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친은 어머니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의 모범에 한 없이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형제 자매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딸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잘못을 범했다면 저는 딸들 편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 들면 딸들을 그 주위에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딸들은 너무 친절하고 훌륭하고 사려 깊습니다. 제 아들들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은 영리하고 친절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 잔이 넘칩니다.”(시편 23:5 참조)

여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성 없이 그 계획은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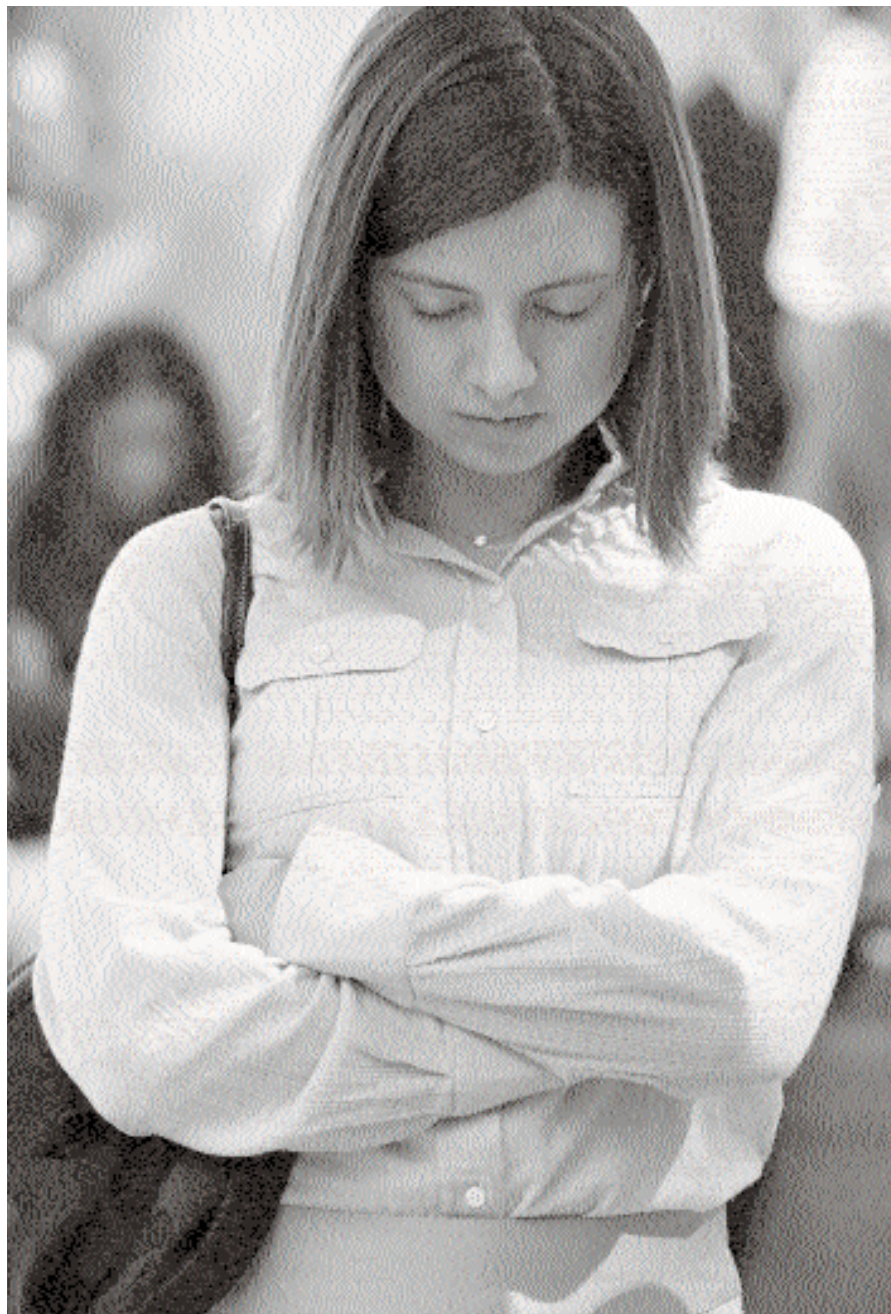
형제 여러분, 세상에는 불행이 너무 많습니다. 비참함과 마음의 고통과 비탄이 너무 많습니다. 슬퍼하는 아내들과 딸들이 흘리는 눈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태만과 학대와 불친절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신권을 주셨으며,

그 신권은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듭니다”(교성 121:41~42)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에 대해, 저는 큰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큰 사랑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광채와 아름다움, 은혜와 신앙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남성들에게도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이 우리 구속주와 주님의 복음의 정수인 존경과 감사, 격려, 힘, 양육, 사랑 속에서 그들을 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이들 중 지극히 작은 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어느 누구도 평범한 말일성도의 신앙의 힘을 과소 평가하게 하지 마십시오.



18 38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았으나 거의 인용되지 않는 계시 중에 말일성도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종 올리버 그렌저를 기억하노라. 보라 진실로 내가 저에게 이르거니와 저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신성한 기념으로 기억되리라.”(교리와 성약 117:12)

올리버 그렌저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노출로 인해 시력을 잃어” 거의 맹인이 되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08쪽) 대관장단은 그를 “가장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즉 한 마디로 하나님의 사랑”(*History of the Church*, 3:350)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파웨스트 인디펜던스와 나부에서 반복된 사건처럼, 오히오 주 커틀랜드에서 성도들이

추방되었을 때, 올리버는 그들의 재산을 헐값에라도 매각하라는 임무를 받고 남았습니다. 그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빛을 갠 일에 성실하게 다들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가 넘어질 때에는 또다시 일어나리니, 저의 희생은 내게 있어 저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보다 더욱 신성함이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교리와 성약 117:13)

올리버 그렌저는 자신의 이름이 성스럽게 기억될 만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실제로, 그리 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업적보다는 그의 인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버에게 존경을 표할 때, 아마도 그 존경의 대부분은 그의 아내인 리디아 디블 그렌저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올리버와 리디아는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마침내 커틀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난 후 몇 킬로미터도 채 가지 못하고 폭도들 때문에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나부의 성도들과 합류했습니다.

올리버는 47세에 사망해, 아내 리디아가 그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올리버가 완전해지는 것을, 심지어는 성공하는 것조차도 기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가 넘어질 때에는 또다시 일어나리니, 저의 희생은 내게 있어 저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보다 더욱 신성함이나니라. 주께서 말

씀하시니라.”(교리와 성약 117:13)

우리는 항상 성공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나니라.”(교리와 성약 137:9)

주님은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자녀에게 계명을 주어 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할 때에 저들이 나아가 온 힘을 다하고 저희 가진 것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멈추지 아니하거늘 저희 원수가 습격하여 와서 방해하며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보라, 나는 이 이상 이들 인간의 자녀에게 그 일 행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혼물을 마땅히 가납하느니라. ...

“이로써 나는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원수의 행위와 핍박으로 인하여 방해 받은 모든 자를 위로하는 본보기로 삼느니라.”(교리와 성약 124:49, 53; 또한 모사이아서 4:27 참조)

커틀랜드에 있었던 소수의 회원들이 지금은 전세계에 수백만에 해당하는 평범한 말일성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수많은 언어를 구사하지만 영의 언어를 통해 신앙과 이해심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 충실한 회원들은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예언을 믿고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을 지지합니다.

올리버처럼, 그들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지지하고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임명한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결단코 저의 처소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4:45)

교리와 성약 서문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제가 그 계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신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일렸으되, 세상의 약한 것이 나아와 능력 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혼계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다음 구절에 따르면 평범하나 합당한 남성들과 소년들에게 신권은 부여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이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또한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매 알게 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구하였으매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죄를 지었으매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 받게 하려 함이요,

“겸손하였으매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1:17~20, 23~28)

이제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나와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힘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봅니다. 음주와 마약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공부, 사교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인합니다.

주님께서 올리버 그렌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넘어질 때에는 또다시 일어나리



니, [그들의 희생은 내게 있어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보다 더욱 신성함이라.”(교리와 성약 117:13)

어떤 사람들은 수행하지 못한 선교 사업, 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혼, 또는 출생하지 못한 아기들, 또는 복음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자녀들, 또는 성취하지 못한 꿈들, 또는 나이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저는 우리가 충분히 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과 회개를 통해 없앨 수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쓸데없이 짊어집니다.

주님은 올리버에 대해 “저가 넘어진다면” 이 아니라 “저가 넘어질 때에는 또다시 일어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7:13)

몇 년 전 필리핀에서, 우리는 대회 모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명의 자녀들이 잘 차려 입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으며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식은 옥수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닐라까지의 버스 경비는 아마도 그들의 식사 비용에서 충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벽찬 감정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많은 나라에 있는 다른 가족들처럼, 그들은 십일조를 내고, 지도자들을 지지하며,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40년 이상, 저는 아내와 함께 전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백여 개 국가에 있는 회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단순한 신앙에서 힘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과 희생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존경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칭찬은 언제나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사업은 평범한 회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의 자녀나 부모님에게 올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목표로서 세상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눈에 띄도록 그들을 강요하거나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 때, 그들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요한3서 1:4)

오래 전에, 뉴잉글랜드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서, 저는 뉴브런즈윅의 프레데릭턴 지역을 떠났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였습니다. 비행기가 그 작은 터미널을 나와 움직일 때, 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흔들며 밖에 서 있는 젊은 장로 두 명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들이야. 따뜻한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속삭임인 한 계시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 두 명의 평범한 젊은 선교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그 주에서의 선교 사업을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있다고 안심하며 뒤로 기대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8주 전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윌리엄 위커 장로와 저는 오키나와 섬의 44명의 선교사들을 위해 나하에서 지역 회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의 밀즈 선교부장은 다가오는 맹렬한 태풍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지역(zone) 책임자들은 그들의

선교부장이 지냈을 영감과 위엄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안심하면서 강한 바람이 부는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일본 오사카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저는 칠십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소렌슨 회장과 다른 장로들과 더불어, 21명의 선교부장과 26명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 중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온 수반드리오 장로, 중국 베이징에서 온 추 쟈 치아 장로, 필리핀의 리머스 지 비랄레트 장로, 한국의 고원용 장로, 그리고 그 외의 22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두 명만이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언어, 민족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봉사합니다.

우리는 오키나와, 사포로, 그리고 오사카에서 스테이크를 재조직했습니다. 새로운 스테이크장 세 명 모두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전쟁에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칠십인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도 그 세대 중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보신 재난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곧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이 나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지킬 것이며, 자녀를 가질 것이며, 사회가 가족 생활을 제약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리버 그렌제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신성한 기념으로 기억되리라”라는 예언을 성취합니다.(교리와 성약 117:12)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종 올리버 그렌제를 경멸하지 말게 하며 ... 축복이 영원토록 저에게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117:15)

어느 누구도 평범한 말일성도의 신앙의 힘을 과소 평가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40)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성신은 변치 않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며 [그들의]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그들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리와 성약 121:46)

어느 것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사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흐르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힘이 여러 하늘의 운행을 막을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펴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21:33)

이에 대해 사도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송 시청을 위해 타히티의 파피에테에 도착한 존과 설라이너 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성전 사업은 우리가 하도록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교회의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년 전쯤, 남편과 저는 나부를 방문했습니다. 자이나 베이커 헌팅턴이라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옛 개척자 묘지를 걸으면서, 저는 평화스러운 정적과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며 저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어린이와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상들에게로 돌이켜졌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여 나부에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들은 안락한 집과 가족을 떠났는가? 왜 그들은 박해와 질병은 물론 죽음까지 무릅썼는가? 왜 그들

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들은 설 집도 거의 없으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성전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남겨 두고 떠날 수 있었는가? 조용히 앉아서 이런 장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게 그 답이 제 머리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라는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다른 많은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신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제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다시 한번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이 참됨을 알았으며, 그 메시지와 증거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신권의 회복을 통해, 가족이 오직 성전에서만 가능한 신권 의식으로 영원토록 함께 인봉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사업이 인간 가족의 승영과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았고, 거룩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장소로,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의 세대들이 성전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나부에 오기 전에, 성도들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이 경륜의 세대의 첫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 크게 희생했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세 명의 다른 사자들도 그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신권의 회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행해질 위대한 사업”¹에 관한 열쇠들을 회복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 일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약속과 일치하여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보라 ...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²

이 초기 성도들은 이 성구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고, 나부의 옛 개척자 묘지에서 그 아름다운 아침에, 저도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이 그 조상들에게 돌이켜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서의 우리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때,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행동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의 일이 그 영역에서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영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행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³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헌을 통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지상에 살았던 많은 고귀하고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 스미스와 부친인 하이람 스미스, 그리고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데 참여하기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나오도록 예비된 훌륭한



영들도”⁴ 보았습니다. 다른 그 훌륭한 영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세대는 이 시기에 지상에 나오기 위해 전세에서 준비를 갖추고, 그 “고귀하고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영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주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느니라.”⁵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남겨졌던 일은 “성전을 건립하여 그 곳에서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포함합니다.⁶

브리감 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뿐 아니라 수천 개의 성전이 있어야 하며, 수천의, 아니 수만의 남성과 여성들이 주님께서 나타내실 만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⁷

제가 어렸을 때, 저의 할아버지 마틴은 말

일에는 성전들이 문자 그대로 짐을 짊어주는 듯 지상 곳곳에 생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을 당시에 저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식과 느낌을 마음에 품고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교회 웹사이트의 “성전” 항목을 보았을 때, 저는 빨간 점으로 표시된 성전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까이에서 성전을 많이 지어서 성전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우 값진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⁹ 우리의 예언자는 우리가 성전 가까이 있지 않다면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날이며, 성전 사업은 우리가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교회의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며, 부정확하게 만들려는 것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점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성전이 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발전”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성전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격려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함으로써 성약을 맺고 지키게 하려고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또한 청소년들이 일지 작성, 가족 역사, 조상들을 위한 침례 의식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산다면, 합당하게 성전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교리와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과 부모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청소년이 성전에 참석하기 합당하도록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결혼이나 선교 사업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열두 살부터 성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십대 시절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축복들이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며, 이 축복들의 일부는 주님의 집에 참여하기 위해 합당하게 살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 것입니다.¹⁰

솔트레이크 성전의 침례탕은 토요일 아침에 가기에 매우 멋진 장소입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조상들 몇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으려고 그 곳에 갔습니다. 침례탕 부근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제 왼쪽 옆에 앉은 청년이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오른쪽의 청년은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단채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니요,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와 함께 와요. 그럼 한 주를 훨씬 잘 보낼 수 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다른 많은 청남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가족과 조상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축복한다는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집에서 나갈 때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 당신의 이름을 받들며 당신의 영광이 저들을 둘러 싸며 당신의 천사가 저들을 지키게 하시”¹¹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위대한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하는 데 어떤 젊은이가 이런 축복을 받길 원치 않겠습니까?

작년 10월, 신권 대회에서 파우스트 부대 관장님은 청남들에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을 도우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조상에 관해 좀더 배움으로써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도록 권고합니다. ... 여러분은 집이나 가까운 가족 역사 센터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되어 있는 방대한 가족 역사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성전 사업은 ... 필수적입니다 ...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¹²

청소년들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¹³ 그들은 지적이고 총명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선을 위해 저장된 자원입니다! 그들은 이 말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을 세상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줄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숙고해 볼 때, 저는 성전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의로운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생하게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을 위해 인봉된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¹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킨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¹⁵ 세상의 압력에 대항할 힘으로 가득 차서 성전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¹⁶ “거룩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젊은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¹⁷

자이나 베이커 헌팅턴은, 다른 수많은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

해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조상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에 찬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8:48; 또한 27:9; 110:14~16; 128:17; 138:47 참조.
2. 교리와 성약 2:1~3.
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존 에이 윌소(1954년), 406쪽.
4. 교리와 성약 138:53.
5. 교리와 성약 138:55~56 참조.
6. 교리와 성약 138:54.
7. *Discourses of Brigham Young*, 394쪽.
8. www.lds.org 참조; “Temples Throughout the World”, Friend, 2002년 7월호, 36~37쪽 참조.
9.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9쪽.
10. 교리와 성약 110:9~10 참조.
11. 교리와 성약 109:22.
12.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리야호나, 2003년 11월호, 53~54쪽;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13. 에스터 4:14.
14. 오바다 1:21.
15. 교리와 성약 2:1~3 참조.
16. 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17. 교리와 성약 87:8.



우리의 성약을 지킴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맺은 약속이나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기원전 64년경에 니파이 백성들은 지극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간악함, 불화, 음모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앨마서 53:9 참조) 그들의 정부는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레이먼 백성들과의 전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니파이인의 반대자들은 적의 군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니파이인의 도시가 공격을 받고 함락되었습니다.

이런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로나이와 힐라멘처럼 니파이 군대를 이끌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니파이인 지도자

들은 자국의 방어 능력이 주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동기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니파이인 도시들을 잃어버리고 힘의 균형이 레이먼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결정적인 시점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레이먼이었다가 암몬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함으로써 지금은 암몬 백성으로 알려져 있는 일단의 백성들이 새로운 상속의 땅과 나라와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겠다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앨마서 53:13 참조)

이들 암몬인 가족의 아버지들은 과거에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주님께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니파이인의 예언자 힐라멘은 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앨마서 53:15 참조) 힐라멘은 그런 권고를 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저들의 자손들 중에는 적을 방어함에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은 자들이 많아, 이 때에 이러한 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무기를 들고 스스로 니파이인이라 하여,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는 목숨이라도 바치기로 맹세하니 참으로 저들은 자유를 던져 버리지 아니하고 … 굳게 맹세하였느니라 …

“보라 이같은 맹세를 맺은 젊은 청년이 이천 명이라. 저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손에 무기를 들었으니,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

“힐라멘이 서해안의 남쪽 변방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돕고자 이천 명의 용사의 대열을 이끌고 진군하여 나아가니라.”(앨마서 53:16~18, 20~22)

힐라멘은 이천 용사들과 함께 가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투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니파이인들은 유리해졌습니다.

모로나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힐라멘은 이 젊은이들이 보여 준 신앙과 용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에게 전하노니,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 그토록 놀라운 용기는 보지 못하였노라.

“나의 아들들은 싸워 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목숨보다는 부모들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더라.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앨마서 56:45, 47)

형제 자매 여러분,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치른 큰 싸움에서 이천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싸움 후에 추가로 육십 명의 암몬인 젊은이가 소부대에 합류했습니다. 힐라멘은 그들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참으로 매사가 저들의 신앙대로 이루어졌”(앨마서 57:21)다고 말합니다.

이 소부대가 치른 두 번째 싸움은 첫번째보다 더욱 치열했습니다. 싸움 후에 힐라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이천 육십 명 중에는 출혈로 인하여

기진한 자가 이백 명이었으나, 하나같이 모두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며 ...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실은 모든 군사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으니, ... 신앙을 가진 때문이었다 ...”(엘마서 57:25~26)

힐라맨과 그의 젊은 용사들은 주님과 성약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역시 성스러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을 성약이라 부릅니다. 성약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맺은 약속이나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킬 때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난 이년 동안 메이너즈 자매와 저는 임무 지명을 받아 필리핀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맺은 성약을 이해하고 지키는 필리핀인 가족들과 개인들이 보여 준 많은 모범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족들 중 한 가족과 겪었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필리핀 탈리사이 스테이크 회를 감리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총회 동안에 저는 회중의 경건함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 왼쪽을 내려다보니 예배당의 앞쪽에서 뒤로 두서너 줄에 걸쳐 앉아 있는 대가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리켜 경건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가족의 본보기로 활용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경건한 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아바산타 가족을 만날 멋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에 관해 알수록,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 열일곱 명의 자녀 가운데 열네 명과 함께 한 필리핀 탈리사이 스테이크의 라니와 아이레이니 아바산타 가족.

따라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참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니 아바산타 형제와 이레네아 자매는 22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열일곱 자녀를 낳았습니다. 열일곱 자녀 가운데는 세 쌍둥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키우는 것이 이 세상 어디서나 쉬운 일이 아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바산타 가족은 가족을 양육할 수 있다는,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살아 있는 예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이 거둔 성공을 여러 면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 내내 경건하게 앉아 있는 열아홉 명의 가족은 그저 그 중 하나의 모범일 뿐입니다.

또다른 모범은 일상의 재정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바산타 형제는 전기 기술자로 일

합니다. 아바산타 자매는 딸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장신구를 만들어 내다 팝니다. 그들은 함께 일함으로써 가족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성공적으로 얻습니다.

대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에서 그들이 보인 모범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도록 가르친 방법입니다. 그들이 갖는 정구적인 가정의 밤은 가족을 가르치는 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매주 갖는 가정의 밤에 대해 언급하며 아바산타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각이나 공과를 갖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합니다.”

최근의 가정의 밤에서 아바산타 형제는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쓰는 대신 그 시간에 숙제나 경전 읽기와 같은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리아호나 잡지를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의 밤 시간 동안 자녀들은 경건하게 되는 연습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경건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보다 쉬웠



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성약을 지키는 또다른 모범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아바산타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십일조를 낸 직접적인 결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 직업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지만 제가 십일조를 충실하고 정직하게 낼 때 그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100% 주님을 믿고 정직한 십일조를 낸다면 우리는 매일 먹을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바산타 형제와 자매가 열일곱 자녀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 쌍둥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내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열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암몬, 움나이, 움너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듯이, 이제 자녀는 모두 전임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 충실하고 열심히 봉사 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필리핀 바기오 선교부에서, 움나이는 필리핀 다바오 선교부에서, 움너는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바산타 가족이 완전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성약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아바산타 가족은 생활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주님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음을 통해 주님의 신뢰를 얻으며, 그것은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성약을 지키는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신뢰를 얻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나 마음은 심히 [먼]”(요셉 스미스서 2:19)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경고하셨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라는 야고보의 훈계를 기억하십시오.

행동은 참으로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행동은 말보다도 주님께 훨씬 커다

란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교리와 성약 42:29)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힐라맨과 그의 이천 용사는 주님에게 한 자신들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들을 잘 보여 준 고대의 본보기입니다. 아바산타 가족은 자신들의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족을 보여주는 현대의 본보기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다시 다짐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철십인 정원회

몰몬경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 45년 1월 10일 저는 제 아버지의 선교부장이셨던 존 엠 나이트 형제님으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분을 뵈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분이 제 혈통을 선언하신 후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제 축복문의 맨 처음 나오는 권고는 “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고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는 주일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 날 공과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에 가시려는 아버지를 불러 이렇게 여쭙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 스미스가 그런 시현을 봤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셨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과 그 진실성에 대한 당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경험은 오늘날에도 제 마음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설명을 결코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십대 시절, 저는 아버지께서 규칙적으로 몰몬경을 공부하시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몰몬경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권고는 성스러운 기록과 함께하는 제 여정의 시작이 되었으며, 그 책은 오늘날 제게 있어 개인적인 간증의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생애 동안 몰몬경과 함께한 저의 개인적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세미나리 교사는 몰몬경이 참된 것인지 알기 원했던 젊은 선교사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베냐민 왕의 설교를 읽으며, 마음속으로는 높은 대 위에 올라선 베냐민 왕을 보며, 그가 전하는 위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던 경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영이 함께한 그녀의 간증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학에 가기 전 여름, 저는 나바호족을 위

한 최초의 고등학교 건물 건축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모뉴먼트 벨리에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집을 막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는 몰몬경을 가져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생각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늦은 밤 건축 현장의 간이 침대에 누워 몰몬경의 권세와 영을 느꼈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레이트레이크 선교부의 젊은 선교사로서 몰몬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또다른 나라의 또 하나의 증거라는 위대한 지식과 절대적인 간증을 얻게 된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 경험들로 인해 오늘날 제 마음속에는 몰몬경의 메시지와, 구세주이자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말일에 그분의 교회의 회복에 관한 신성한 간증이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축복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몰몬경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존은 일본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은 뒤 “아버지,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에 몰몬경을 두 번 읽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꽤나 어려운 목표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결의를 느낀 저는 그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일찍 몰몬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존은 “오늘 아버지를 따라잡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나?”고 제가 묻자 그는 “아버지가 읽으신 부분까지 읽었다고요.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몰몬경을 그대로 펴 놓고 나가셨잖아요.”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느 정도 분량을 읽은 후, 저는 제가 읽던 부분에서 150쪽이나 뒤에 있는 장을 봐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아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대로 책을 펼쳐 놓고, 직장에 갔습니다. 아침 회의 후에 제게 온 음성 메시지를 체크했는데 첫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저는 제 아들이 몰몬경을 읽는 것을 보았을 때,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 애의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 굳게 닦을 내렸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있었던 선교사 지역 대회(지역을 책임지는 선교사)와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앞이 안 보이고 거의 듣지 못하는 한 여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몰몬경이 참된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 순간에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대회가 끝난 후 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모임에서, 저는 그녀를 도울 방법에 관한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지역 책임자에게 “그녀에게 몰몬경의 권을 붙들고, 아주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게 하시고, 그 후, 그녀에게 그 책이 참된지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씨를 읽거나 들을 수 없었지만, 몰몬경의 권세와 영을 느꼈고,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의 메시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몰몬경의 권세와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힐라맨과 2,060명의 젊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거의 싸움을 포기하고 퇴각하려 하였으나, 보라 이들 이천 육십 명은 군세어 저들 앞에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참으로 매사가 저들의 신앙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리하여 나는 저들의 모친들이 가르쳤다고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였느니라.

“나의 이천 육십의 아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실은 모든 군사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큰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배운 대로 굳건히 믿는 신앙을 가진 때문이었다.”(앨마서 57:20~21, 26)

이 젊은 용사들을 가르친 이가 누구였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저의 첫번째 권유는 그 어머니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에 관한 앨마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이제 말씀을 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

양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에서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씨가 자라면 이는 좋은 씨앗이려니와, 자라지 아니하면, 보라 이는 나쁜 씨앗이라 버림을 받으리라.” (엘마서 32:27~28, 32)

여러분에게 주는 저의 두 번째 권유는 말, 곧 씨앗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심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엘마서 33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힐라맨은 그의 아들 리하이와 니파이에게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일을 행하라 ... 그리하여 영생의 진귀한 은사를 너희가 얻도록 하라.”(힐라맨서 5:8) 여러분에게 주는 저의 세 번째 권유는 힐라맨이 그의 아들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힐라맨서 5장을 읽고 숙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몰몬경이 번역되기도 전에 엄청난 반대가 일었고, 그 반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관하여,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쇄된 글씨들에 불과한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이기에 - 더구나 모든 내용이 깨끗하고 고무적이며 역사적, 교리적 문제에 관한 것인데 - 왜 그렇게 격렬한 적개심을 일으킵니까? 왜 사람들은 몰몬경에 반대합니까? 요셉 스미스를 반대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년], 459, 461쪽)

사탄이 몰몬경과 필사적으로 싸운 이유는



연차 대회 시청을 위해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스테이크 센터로 들어가고 있는 아버지와 딸.

몰몬경 소개 부분의 두 단락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이 책에 기록된 메시지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몬경이 참된 것인지 간구하여 보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이대로 행하며 신앙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세로 몰몬경이 참되고 성스러운 책이라는 간증을 얻을 것이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이제 주의 깊게 들어 보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성스러운 간증을 얻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며,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에 택함을 받은 그의 계시자요 예언자라는 사실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메시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지상에 다시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성령의 권세로 알게 될 것이다.”

사탄이 몰몬경과 싸워 왔고 계속해서 싸우

려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신성한 진리들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성스러운 지식을 얻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저는 제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 30년도 더 되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의 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몰몬경과 그 책의 메시지, 그리고 제가 받은 신성한 증거로 인해 저는 여러분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저의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사업을 마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과 이 사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거룩함도 더욱”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가족과 개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필멸의 삶 이후까지 가는 덕성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 차즈 장로님의 부친께서 버튼 자매와 제가 결혼 하기 전에 저희들을 접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리차즈 장로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젊은 숙녀 분이 모임 후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했는데, 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님, 좀 미소를 지으신다면 감독님의 연차 대회 말씀이 더 나아질 텐데요.” 그 자매님에게 공포와 미소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고 희망도 가져 보겠습니다.

매번 연차 대회가 끝날 무렵이면, 저는 더욱 평온한 모임, 더 많은 영의 동반, 그리고 제 영혼을 밝혀 주고 축복해 주는 더 많은 가

르침에 대한 더 큰 열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이라는 말을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적은이라는 말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얻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계 유지나 또는 삶을 최저 생활 수준에서 끌어 올리기 위해 이 세상의 부를 더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종종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어떤 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목적을 위해 모든 힘을 바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즉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무시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만족 대신 후회를 얻게 됩니다.”(리야호나, 1999년 1월호, 22쪽)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에 성공한 부모들은 종종 너무 응석 부리는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만족을 위해 기다리는 것, 정직 및 동정심 등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많은 부유한 부모들은 자제력 있고 사랑스러우며 훌륭한 가치에 중심을 둔 자녀들을 키울 수 있지만, 한도를 정하는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지금보다 더 힘든 때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녀의 청을

들어줄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세상에서 자녀가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 부모는 자녀가 더 많은 운동용품, 전자 제품, 과외 공부, 의상, 운동부 가입 등을 요구할 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흥미를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아과 협회는, 미국의 어린이들이 한 해 평균 40,000가지 이상의 광고를 보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자녀들이 사회 생활과 공부에서 이미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부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모든 사람이 봉사할 수 있으며, 삶이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결코 배우지 못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레이첼 레멘 박사는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한 부부와 그들의 어린 아들 케니와 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 집을 방문하면 케니와 바닥에 앉아 바퀴 달린 두 개의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놀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바퀴 덮개가 없는 차를 갖고 케니는 한쪽 문이 없는 차를 갖고 놀거나 때로는 반대로 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 차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장난감 차를 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진료소 직원들에게 그 주유소에 가서 차를 모으도록 부탁했습니다. 모든 모델의 자동차를 다 수집하자 그녀는 그것들을 커다란 상자에 포장하여 케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는 생활이 넉넉치 않았던 케니의 부모가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케니는 들뜬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으며 장난감 차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차들은 창틀을 채웠으며 심지어는 마룻바닥까지 늘어섰습니다. 참 많이 모았습니다! 나중에 그 가족을 방문했을 때 레이첼은 케니가 그저 창 밖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케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새 자동차들이 안 좋아?” 그는 수줍은 듯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레이첼 아줌마, 어떻게 저 많은 차들을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Owning” [2000년], 60~61쪽 참조)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을 열어본 뒤, “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 세대가 제시하는 모든 문제와 더불어 자녀에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

[치고] …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과] …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교리와 성약 68:25, 28~29)키도록 가르쳐야 할 신성한 권고가 있습니다.

더 많은 또는 더 적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적은은 실제로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많은이 더 적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적은 물질주의는 가족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물건을 주는 것은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더 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는 개념에 의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삶의 국면들이 있습니다. “거룩함도 더욱”(찬송가, 60장)이라는 찬송가는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덕성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주님 지닌 축복 더 주옵소서”라고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거니와,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48)

온유함은 좀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중요한 다른 덕성들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함이라.”(모로나이서 7:44) 온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누가복음 9:23)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끔씩 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더 온유해지는 것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온화함의 자세로 자신을 나타내고, 힘과 평온함 및 훌륭한 자기 평가와 자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널 에이 맥스웰 장로, “Meekly Drenched in Destiny”,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2~1983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 [1983년], 2쪽) 더욱 더 온유해지면 우리는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도 더욱”에 표현되어 있는 덕성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뉩니다. 어떤 것들은 거룩함도 더욱, 노력함도 더욱, 신앙도 더욱, 감사함도 더욱, 순결함도 더욱, 왕국에 적합함도 더욱, 기도의 목적도 더욱, 그리고 더욱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것들은 역경에 역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시련 가운데 온유하고, 시련을 벗어나는 것을 찬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 더욱 더 분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등이 속합니다. 나머지는 구세주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즉 더욱 더 그분의 돌보심을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더 큰 희망을 갖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 큰 기쁨



을 얻고, 그분의 슬픔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비탄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더 많은 축복과 거룩함, 더욱 더 구세주처럼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덕성은 더 많이 지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복을 가르치고 구세주와 그분의 생애, 성역, 그리고 속죄에 대한 간증을 전함으로써 그분께 봉사할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한 선교사 구역 지도자는 파커 장로가 선교 사업을 마칠 무렵, 토론을 외우는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파커 장로와 한 조가 되어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파커 장로가 가르친 토론이 너무나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토론이 끝날 무렵, 구역 지도자는 혼란스러웠으며 그 가족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파커 장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 가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신이 그와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구역 지도자가 이제까지 들어 보지 못한 가장 겸손하고 강력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마칠 무렵, 아버지를 위시하여, 모든 가족과, 장로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커 장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가족 모두 개인적인 간증을 얻도록 간구했으며 그들이 느낀 큰 사랑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2주 후에 온 가족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파커 장로는 토론을 잘 가르치지 못해 미안하다고 구역 지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매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 가족을 가르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으며 그가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영을 느끼고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다고 했습니다.(앨런 케이 버지스와 맥스 에이치 몰저드, "That Is the Worst Lesson I've Ever Heard!" in *Sunshine for the Latter-day Saint Soul* [1998년, 181~183쪽])

우리는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파커 장로가 토론을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십니까? 파커 장로가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어려움을 극복할 더 큰 힘을 얻기 위한 간구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암기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인쇄하고 시련 가운데 온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세주를 믿는 큰 신앙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였습니까? 틀림없이 그는 그랬습니다!

지난 8주 동안, 네 개의 큰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해안과 멕시코만 전역을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 카리브 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량, 의복 및 거처 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파편 더미가 도로를 가로막고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거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플로리다 주 텔러헤시에 있었는데, 이러한 비상 사태 중에 교회에서 제공한 원조에 대해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부시 주지사, 토니 제닝스 부지사, 함께 일한 적십자사와 구세군, 연방 및 주의 비상 요원들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뜻을 청소하는 일을 돕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과 인도주의적 기금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주님을 위한 봉사에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전 주말에 이어, 미국 남동부 전역에서 2천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지난 주말에 플로리다 주 펜서콜라에 모여 허리케인 이반의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집회소 바닥과 다른 교회에, 그리고 회원들의 집에서 침낭을 펴고 잤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서 수많은 작업 지시에 따랐습니다. 선교사

들은 특별히 지역 감리 교회의 지분을 푸른 방수포로 덮는 일을 했습니다. 응급 구조 대원들, 소방관과 경찰들은 그들이 없는 사이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돕도록 말일성도들이 지명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허리케인 제니가 아이티와 다른 카리브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막 상륙하던 때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축복 받고 거룩하게 되며 더욱 더 구세주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2,500명이 허리케인 제니의 복구 작업을 도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토론하면서, 저는 훌륭한 부모의 본보기로 스크루지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족과 개인이 적극적으로 이 필멸의 삶 이후까지 가는 덕성들을 좀더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신앙심 깊고 보수적인 접근 방법은 풍족한 사회에서 기다림, 나눔, 저축, 근면,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짐으로써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이 실제로는 더 적은 때와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때를 이해하는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전진하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일 때, 극심한 시련을 잘 견디어 온 특별한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종,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밤새 잠을 못 이루며 왜 그토록 외로움, 아픔, 낙담, 그리고 우울함이나 상심을 겪어야 하는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왜 내게?”라는 질문은 답하기 어렵고 종종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은 이 생애 서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본적인 교리의 하나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¹ 또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²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 이상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경의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³

끝까지 견디는 것은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을 받는 일을 통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선 후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에 관한 교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이 요구되며, 물론경의 예언자 아멜레 카이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주께로 나아와 [우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더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⁴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토양 위에 굳건히 세우고, 받아들인 교리들을 계속 지키며,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성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디는 사람들은 균형이 잡혀 있고, 한결같고, 겸손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세상적인 동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지식, 경험 및 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견디는 것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씨 뿌리는 자의 단순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망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⁵

이 비유는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는 토양의 형태를 설명합니다. 각 토양은 우리의 결심의 정도와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길가”라고 하는 첫번째 토양은 복음을 들었으나 진리가 뿌리를 내릴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형태의 토양, 즉 “돌밭”은 희생이나 시련의 징조가 처음 나타날 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토양, 즉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부, 그리고 욕망에 의해 미혹되어 발전이 멈추는 교회 회원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들의 삶이 주님의 제자임을 반영하고, 그 뿌리가 복음의 토양 깊이에 내려가며 그로 인해 큰 수확을 거두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견뎌 곧 인내의 세 가지 장애물들을 밝혀 주시는데, 그것들은 영혼을 타락시키고 영원한 진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첫째 장애물인 “세상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교만입니다.⁶ 교만은 파괴적인 많은

방법으로 추악한 머리를 끈게 세웁니다. 예를 들면, 지적인 교만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과 학구적인 업적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보다 자신들을 더 높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보다 우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지식을 살찌울 수 있으나,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영보다 우선으로 둘 경우, 우리는 비틀거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함을 찾고, 자신들의 간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⁷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옳으로 제쳐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두 번째 장애물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

다. 그것은 오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물고 다니는 차의 종류, 그들이 입고 있는 비싼 옷, 그들의 집의 크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너무 걱정하느라 더 중요한 일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⁸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영적인 것들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언급하신 인내의 세 번째 장애물은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입니다. 외설물이라는 역병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외설물은 사악한 부도덕을 불러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탄시킵니다. 외설물은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진시킵니다. 외설물은 수렁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접하는 순간 너무나 쉽게 걸려들고 정복되어 그것이 가혹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설물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면, 그것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기원할 것을 간청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원리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총관리 역원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의 맥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간증을 잃지 않고 충실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⁹ 회복[된 교회] 위대한 예언자들 중 한 분으로서 27년 동안 대관장으로 봉사한 그랜트 대관장님이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영향력과 유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의 속임수에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매일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는 뒤로 가만히





물러나 앉아 있으면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 생애 동안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¹⁰ 브리감 영 대관장의 다음 말씀은 인내를 위한 투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해의 왕국의 자리를 얻고자 소망하는 남녀는 매일 [이 성스러운 목표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¹¹

건디는 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심, 외로움,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구세주에 대한 소망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²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교리와 성약 58편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는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느니라. 그때는 아직 아니나 가까왔느니라.”¹³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하며 결국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주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여 충실하게 견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여주는 한 사람은 19세기에 살았던 초기 성도로서 워렌 엠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북부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콜로라도 강을 건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스 페리를 운영하도록 지명 받았습니다. 존슨 형제는 크고 어려운 도전들을 견뎌 냈고, 평생 동안 충실했습니다. 존슨 형제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그의 가족의 비극을 들어 보십시오.

“1891년 5월에 한 가족이 ... 친구들을 방문하며 겨울을 보낸 유타 주 리치필드로부터 이 곳 [리스 페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팽귀치에서 한 자녀를 문었으며, ... 포장마차나 자신들의 몸을 소독하지도 않고 ...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 우리는 [디프테리아]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힘든 임무를 다하면서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무사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나 나흘 하고 반 나절 만에 [큰아들이 제 팔에 안겨 죽었습니다.] 두 명이 더 병에 걸렸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체라고 생각하고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금식했으며, 저는 40시간 동안 금식했으나 아무 소용도 없이 어린 두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일주일쯤 후에 열다섯 살 된 딸 멜리나가 또 병에 걸렸으며, 그 아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으나 그 아이 역시 [곧] 죽고 말았습니다. ... 세 딸과 한 아들을 잃었으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아홉 살 된 맏딸이 지금 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대관장님께 우리를 위해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했으며, 다시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 후에 존슨 형제는 지역 지도자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전진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었으나, 저는 구원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제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쇠막대를 굳게 잡으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형제들의 신앙과 기도로써 제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¹⁴

존슨 형제의 힘든 시련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점들을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인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자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증입니다. 간증은 불가피하게 직면할 시련이나 도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데 필요한 영원한 안목을 줍니다. 히버 시 김볼이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빌려 온 빛으로는 견뎌 내기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등불로 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견뎌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시간이 올 때에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구하고 그것을 굳게 지킵시오.”¹⁵

둘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생을 잘 견디기 위해 주님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¹⁶

셋째,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영광스러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로 돌아서게 하고, 그 길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찬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에서 견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찬은 매주 우리에게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며 승영을 향한 우리의 발전을 평가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¹⁷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이 지상에 있었던 짧은 기간을 돌아켜볼 때, 직면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신앙과, 견디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을 소리 높여 외치며 기뻐할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4:13.
2. 요한복음 8:31.
3. 니파이이서 31:20.
4. 옴나이서 1:26.
5. 마가복음 4:14~20.
6.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6쪽.
7. 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8. 마태복음 23:23 참조.
9. Quoted by John Longden, in Conference Report, 1958년 10월, 70쪽.
10. 교리와 성약 58:27 참조.
11.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년), 392쪽.
12. 요한복음 14:18 참조.
13. 교리와 성약 58:3~4.
14. Quoted in Jay A. Parry and others, eds., *Best-Loved Stories of the LDS People*, 3 vols.(1997~2000년), 3:107~108.
15. In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1945년), 450쪽.
16. 요한복음 15:5 참조.
17. 로마서 8:17 참조.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가 주님의 집에 더 자주 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대회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임들이었는지. 모임을 통해 얼마나 큰 목적을 달성했는지. 우리는 예배의 영광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에 살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다른 문화 속에서, 심지어는 모습도 다르지만, 말일성도라는 이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새로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솔트레이크시티의 이 거대한 컨퍼런스 센터는 텅 빌 것입니다. 조명은 꺼지고 문은 잠길 것입니다. 전세계의 수천 개의 다른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것이며, 모두가 큰 축복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낙담과 절망

을 느낀다면 새로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복음에 무관심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친절하고, 혹은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다면 변화되기로 결심했다면 합시다. 신앙 안에서 걷는 모든 이들은 신앙이 강화될 것입니다.

극동 지역은 오늘이 월요일이며, 서반구와 유럽은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이 날은 가정의 밤을 위해 지정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주위에 불러모아 이 대회에서 들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들의 일부를 기록하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일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더 자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전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그들의 지역에 성전을 지을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그들이 계속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성전은 지금보다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성결하게 하는 주님의 영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이 기적인 영향력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가서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 대리인으로 봉사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감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식을 그들이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봉사하면서 다른 노력으로는 이를 수 없는 비이기심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속주가 모든 인간을 위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성전에서 대리 사업에 참여할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장막 저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발전할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작은 의미에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축복 받은 특권을 더 잘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성전 참석은 여러분의 성품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것

은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생기는 이기심의 껍질을 벗겨 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성결케 하는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미칠 것이며 우리가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성전에는 아름다운 해의 왕국실이 있습니다. 이 방은 해의 왕국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몇 년 전 애리조나 메사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일반인들을 위해 공개했을 때, 한 방문자는 해의 왕국실을 하나님의 거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모두 흰옷을 입고 의식의 마지막 부분에 그 아름다운 해의 왕국실에 앉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조용히 기도드리는데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크신 선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마련하

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할 힘이 있는 동안 그렇게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극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결코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요, 주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은 예언자였으며, 몰몬경은 성스러운 기원을 지녔으며, 이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저의 증거, 사랑, 축복을 남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생득권입니다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여성들을 위한 선한 목자의 우리인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 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자 매 여러분, 오늘 밤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무수한 사랑의 행동들, 항상 성장하는 간증, 그리고 끊임없는 케서롤(냄비 요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차이를 가져오며 영혼의 햇빛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저는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¹는 약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 속하지 않는 일부 자

매님들에 대해 염려합니다.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가난하다고, 또는 너무 유식하거나 너무 무식하다고 느끼더라도 속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맞다고 느끼시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들을 위한 선한 목자의 우리인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에게 맞으며 여러분은 그 곳에 속해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오래 전 1907년에 하신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젊고 생기 있고 총명한 여성들이 나이든 사람들만 상호부조회에 속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은 또한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²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제니퍼 스미스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미스 자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어, 복장,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지부의 다른 자매들과 달랐으며 그 모든 것이 큰 차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세주에 대해 말했을 때 그 차이는 좁혀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할 때, 그 곳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포용시키고 속할 수는 있습니다.”³

이 자매들은 “한마음 한뜻”⁴이 됨으로써 시온의 일면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⁵라고 말씀하십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힘이 엄청날 것”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온의 자매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속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느낌, 생각, 그리고 마음을 나눕니다.

한 와드에서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딸들이 열여덟 살이 되면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소개합니다. 한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자신의 결혼 초기부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으며, 제가 슬플 때 안아 주고, 기쁠 때는 웃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문하고, 또한 제가 그들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저의 실수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런 후 그녀의 딸에게 그들의 정원에 있는 데이지는 캐롤린이, 백합은 베니스가, 미나리아재비는 폴린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딸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나의 자매들이란다. 너를 돌보도록 그들에게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데이지, 백합, 그리고 미나리아재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돌보는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사탄은 나눔이 우리의 자매애를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단합 시켜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기심이 나눔, 단합, 그리고 시온을 파괴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악마가 우리를 갈라 놓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단합이 한 민족을 구할 것”⁷이라고 브리감 영 대관장이 말했던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단합이 우리 사회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너무 많은 자매들이 상호부조회를 그저 참석해야 할 하나의 반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호부조회에 참석한다는 생각에서 상호부조회에 속한다는 쪽으로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⁸라는 권고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속감은 일요일에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과는 우리의 공과이기 때문에 어떤 교사도 말 없이 앉아 있는 자매들에게 자신의 “주입식” 공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속한다는 것은 필요로 하고 사랑 받으며 여러분이 없을 때 그리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사랑해 주며 떠난 사람을 그리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석하는 것과 속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단지 일요일 공과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들에게 신성한 선물입니다.

제가 상호부조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현재의 제 부름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달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제 방문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는 이혼한 자매이고 케이트는 전에 월계반에서 제가 가르쳤던 자매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했을 뿐만 아

니라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저는 격려를 받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한 자매는 얼마 전 하나님 아버지께 제 이름을 대며 제가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은 몰랐지만 저의 마음은 알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방문 교사들은 최근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대며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문 교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대하고 정직하게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매들도 역시 나눌 것이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속감은 정원과 같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스미스 자매와 우리의 에티오피아인 자매들은 소속감이란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던 청년회에서 봉사하던, 활동적이든 저활동적이든, 기혼이든 독

신이든, 또는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우리 모두는 상호부조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이지만, 청년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 느낌, 그리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호부조회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상호부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되며, 상호부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매 여러분, 상호부조회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으며, “회원들은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합니다.”⁹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¹⁰ “몸은 각 지체를 필요로 하니, 모두 서로 도와 건강케 되며 조직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느니라.”¹¹

그렇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단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고 우리의 부담은 줄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상호부조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발전해 나갈 때, 우리는 함께 완벽한 상호부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호부조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가 다른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교사들을 지지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시간에 대해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의 시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용서하고 덜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방문 교사가 되고, 열성을 다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 참석하며, 상호부조회의 좋은 점을 찾아 발전시키십시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시온 건설을 위해 활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 사업, 즉 상호부조회를 붙잡으십시오.”¹² 만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호부조회가



그분의 조직 곧 그분의 우리 안의 양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맞는지 안 맞는지 묻기를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이는 함께 시온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일년 전 캘리포니아 주 파사데나에서 제니스 버고인 자매가 암으로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대한 자매였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고 그녀의 집을 청소했으며, 그녀의 두 어린 아들들을 돌보아 주었고, 그녀의 남편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소파 뒤의 오래된 토스트 조각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니스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들이 그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차편을 제공해 주고 그들의 숙제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피아노를 쳐 주었으며, 침대를 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불평 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며칠이고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나눔은 그 자매들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제니스 자매는 죽기 전에 한 상호부조회 자매에게 감사와 감동 어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상호

부조회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상호부조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생득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팔에 안고 여러분과 함께 상호부조회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상호부조회로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능, 은사 그리고 개성을 가져오십시오.

저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그분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¹³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호부조회가 주님의 사업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산을 가로질러 굽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초원을
아시며,
주님은 들의 백합화가 자라도록 하시고
그분의 우리 안의 양들을 먹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금처럼 만드십니다.”¹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38:30.
2. 대회 보고, 1907년 4월, 6쪽.
3. 개인 편지.
4. 모세서 7:18.
5. 교리와 성약 38:27.
6. “군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7.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354쪽.
8. “상호부조회”,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73쪽.
9. 고린도전서 12:25.
10. 고린도전서 12:26.
11. 교리와 성약 84:110.
12. 대회 보고, 1907년 4월호, 6쪽.
13. 엘마서 5:60.
14. 로저 호프먼, “Consider the Lilies”.



작은 일에서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아야 하고 초조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적절한 시기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주제를 선택한 이후로 모임 개최 시에 불렀던 회복에 대한 그 장엄한 찬송가의 가사들은 제 마음과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온이 아름다움 속에서 일어나게 하라,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네 ...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네.”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문 찬송가, 41장) 주님이 돌아오실 약속된 때를 생각하면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우리 각자가 준비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생각하면 엄숙해집니다. 그러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결심을 볼 때면, 우리가 성도로서 종종 느끼는 것만큼 부족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면서, 확신과 희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832년 9월은 초기 성도들이 분주하게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예언자는 오하이오 주 커

틀랜드 남동쪽에 위치한 존 존슨의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미주리 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요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64편에 나와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미주리 주로 가는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 다음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2~33)

이 구절들은 우리가 “위험한 시대”(디모데후서 3:1 참조)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준비시킬 때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아야 하고 초조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적절한 시기에” 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큰 일이 “작은 일”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작은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저수지를 매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결점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을 만들어 제 친구가 지적하는 것같이 마치 “독서”처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선은 일종의 방대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필요 사항을 제공하고, 학교에 참석하고, 노후나 악화된 건강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성은 해야 할 일이 적힌 긴 목록에서 종종

맨 밑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경전 공부와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경전을 읽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단지 의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시간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전적으로 생산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한 시간을 내어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숙고하고, 느끼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매일 시간을 낸다면, 우리를 강화시키시고, 고무시켜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63 참조)

자매 여러분, 봉사하고 싶다면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고 싶다면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열여섯 살이었을 때, 저는 당시 유년 주일학교라 불리는 반에서 세 살 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그 당시에는 그런 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명의 부산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의지와 탁자 위 아래를 오르내리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험이 전혀 없었고, 처음 몇 주 동안, 부름을 받은 것이 올바른 일이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가르쳤으며, 얼마 안 되어 제가 배운 것은 도움을 얻기 위해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활동 및 이야기, 그리고 공과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여러 가지 대체 계획들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년 후, 제가 유년 주일학교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새로운 교사들을 돕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인도하는 법과 부름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름들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부름은 다른 부름보다 쉬웠지만, 저는 각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이라는 문구 때문에 긴장되십니까? 저도 걱정했었습니다. 최근 저는 요셉 스미스가 그 주제에 대해 말한 내용을 인용했던 몬슨 부대관



장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부름과 관련된 봉사를 단순히 행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60쪽) 자매님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매들이 ‘부름 때문에 녹초가 되어 버렸어’ 또는 ‘봉사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유인물과 멋진 탁자 장식을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문 교육을 할 때 자매들에게 항상 무엇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나쁜 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좋은 공과 메시지는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옵니다. 복음 원리들과 우리의 학습 지도서의 자료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추가적으로 만든 자료, 즉 우리가 준비하느라 너무 지쳐 부름을 수행하는 데 소비한 시간들에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토의를 통해

흥미 있는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해임 날짜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봉사입니다. 92세이신 우리 스테이크의 로이스 보니 자매는 65년 전 결혼했을 때부터 방문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충실히 봉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벨스 부부와 유타에서 온 엘스위스 부부 선교사는 미주리 주의 성장 단계에 있는 작은 와드에서 자매들을 가르치고, 조언해 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통해 봉사의 기쁨을 배우고, 경험에서 나오는 그 분들의 지혜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연령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점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일조와 금식 헌금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우리의 세속적인 자원을 기꺼이 바치라고 권고하십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의는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들 중 하나입니다.(대니얼 에이치 러들로우,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제2권. [1978년], 2:46 참조)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요구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브스 알 맥콩키, “순종, 헌납 및 희생”, *Ensign*, 1975년 5월호, 50쪽 참조) 저희 부부가 살던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장님은 회원들에게 그들의 금식 헌금을 두 배로 내고 그로 인해 올 축복에 대해 준비하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후하게 내는 일에서 진실되고 충

실하다면 주님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한 영성,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후한 십일조 및 헌물, 이것들은 새로운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큰 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교리와 성약 64:34)을 요구하십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는 결점과 약점과 불완전한 태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 놓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구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구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히라맨서 10:4)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배운 다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님들, 선을 행하는 데 지지하십시오. 인내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에게 이것은 진로를 약간 수정하기를 요구하여 우리가 정방향 곧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정 작업은 바로 그 “작은 일”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세력이 우리의 나침반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복극성의 당기는 힘입니다. 그것은 분향으로 인도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딸들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실재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자 우리의 삶을 조화시킬 때, 우리는 시온의 빛이 일어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재림에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 걸으며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상호부조회에 속한 성약의 여성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진실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밝고 생기 있게 하며,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봄날 아침, 첫 동녘 햇살이 산자락을 비출 때, 켄과 저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교사 동반자로 새로이 지명 받은 우리는 둘 다 늘어난 가족들을 돌보느라 바쁜 일정에 쫓기는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당시 켄의 가족은 우리 와드로 갓 이사를 왔고, 저는 그녀와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집 근처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우리는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맨 처음, 우리의 대화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와 지역 학교에 대한 가벼

운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차차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서로의 영적인 생각들과 경험들을 깊이 나누면서 진리의 정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운동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멋진 운동이 정말 좋았습니다.

켄과 함께한 여행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며 그 교훈들은 지금도 제 마음을 밝히고 제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38:30 참조)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저는 켄이 수년 전에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 어떤 결정들을 내렸고 이제 그 내리막길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가슴에 품은 열망은 스스로를 준비해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인봉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니파이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화합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걸으며, 시험의 날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그 길을 걷기”(니파이서서 33:9) 원하는 한 가지 소망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젠이 물문경에 나오는 라 모나이의 아버지처럼 “[주님을] 알아 [그녀의] 모든 죄를 버리”(엢마서 22:18)기로 굳게 결심한 후,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몇 차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의 시련들과 마주했습니다. 젠은 뇌암 진단을 받았고, 남편은 실직했으며, 가족들은 집과 차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젠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신앙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산길을 걸으면서, 저는 주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과 매일매일의 영적인 준비가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두려움을 정복하게 해주는지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할 만큼 현명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Standing for Something* [2000년], 178쪽)

젠은 끔찍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예언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젠은 결코 개인적인 영적 준비를 멈추지

않았으며 두려움 없이 하루에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빛나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젠이 회개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때, 저는 그 이른 아침 함께 걸었던 길에서 문자 그대로 “동트니 날이 밝[고] ... 찬란한 아침이 [오는]”(“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 놓이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그녀가 화평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 찬송가의 가사가 실제로 그녀가 느꼈던 것과 그 후에 그녀의 삶에 미친 속죄의 권세에 대해 제게 말해 준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는 나의 빛 내 힘 되시니
주 능력 안에서 영원 승리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약함 없애리
또 믿음으로 걸으면 주 축복 넘치리”
(“주는 나의 빛”, 찬송가, 48장)

그녀의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인해 주님의 속죄는 젠에게 매일 거듭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젠은 한 번에 **하나씩 기도와 성구와 봉사의 행**

위로써 자신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젠이 삼십 대의 나이로 죽기 얼마 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그녀와 함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원히 인봉될 때, 조용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습니다.

젠으로부터 배운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교훈은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하며 구”(교리와 성약 4:5)할 때 풍성한 영적인 통찰력을 경험하고 깊은 영적인 힘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했을 때, 젠과 저는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모사이아서 18:21) 우리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서로 매우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간증으로 서로를 들어 올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었으며, 서로를 강화하고 위로했습니다

젠과의 우정을 통해 저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얼마나 성스러운 친족 관계로 묶여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처럼, 젠과 저는 방문 교육 동반자라는 임무를

통해 자매로서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에 속한 성약의 여성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진실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밝고 생기 있게 하며,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20여 년 전에, 젠은 그녀의 삶의 방식을 통해 제가 구세주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제가 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저의 죄를 위한 구세주의 속죄가 주는 경이로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매일의 새로운 날들이 가져올 일들을 신앙으로 고대하고, 상호부조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깊은 영적인 관계를 즐기도록 저를 격려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아침에 걷습니다. 지금도 잠시 멈춰 서서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세주의 구속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젠의 강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산책하는 동안 느낄 수 있었던 영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매일 아침 땅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자신에 관하여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니라”(교리와 성약 11:28)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저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 자신을 매일 준비시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젠과 같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이르는 길을 찾고 무한한 속죄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주는 천상의 축복들 중 하나는 주님에 대한 같은 간증을 지닌 여성들 간의 결속된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빛을 향해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혼란스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종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여러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인공 위성 방송을 통해 모임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제가 남성으로서 많은 자매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큰 대도시에서 사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찾아온 어떤 수줍음 많은 시골 사촌이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오랜만에 친척집을 찾았

기 때문에 한 어린 소년이 벨소리에 대답했을 때 놀랐습니다. 소년은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편안히 앉은 후, 그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사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쪽의 사촌이란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선 안 좋은 편에 속하시느군요!”

저는 오늘 이 곳에서 바른편, 바로 주님의 편에 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제6와드에서 주일학교 반의 사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1905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땅아 묶은 한 사랑스런 소녀가 앞 줄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벨 스미스였습니다. 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된 벨 스미스 스탠포드 자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성들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이보다 더 활짝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이고, 신나고, 도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삶의 참된 가치를 배우고, 현명하게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면

그 보상이 풍성할 것입니다.”¹

상호부조회 조직은 문맹 퇴치를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예지를 무디게 하며, 희망을 퇴색시키는 검은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은 이러한 절망의 구름을 걷어 내고 하늘의 신성한 빛이 여러분의 자매들에게 비출 때 그것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한 지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루이지애나 먼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교회 회원인 한 사랑스런 흑인 자매가 다가오더니 만면에 미소를 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제가 교회에 들어와 상호부조회 회원이 되기 전에는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제 가족 중에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린 모두 가난한 행상이었습니다. 부대관장님, 저의 백인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백인 자매들에게 어떻게 읽고 쓰는지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성경을 펼쳐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의 큰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²

그날 루이지애나 주 먼로에서 저는 상호부조회가 문맹 퇴치를 돕는 숭고한 목적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보석 상자와 금계가 있더라도
당신이 나보다 결코 부유할 수 없어요
내게는 책을 읽어 준 어머니가 있었거든요³

다른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의 운명을 생각해 보라
그의 태도는 온유하고, 그의 성품은
부드러워라
그도 역시 특별한 필요를 갖고 있었으나
읽을 수 없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도다⁴

어디서나 부모들은 자녀들과 그들의 영원한 행복에 대해 염려합니다. 이것이 무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뮤지컬 중의 하나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에 나타나 있습니다.

관객들은 러시아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한 유대인 아버지가 십대의 아름다운 딸들이 가정으로 몰고 들어와 그에게 강요한 시대적 변화에 맞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흥겨운 춤, 음악의 리듬,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등 그 모든 좋은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인 테베가 그 뮤지컬의 메시지가 되는
 엄숙한 말을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테베는 사랑하는 딸들을 옆에 불
 러 모으고, 농부다운 간결한 어조로 딸들에게,
 딸들이 장래에 대해 생각할 때, “너희들 모두
 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신에
 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거라”⁵
 라고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누
 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려
 분의 과제는 여러분이 책임 맡고 있는 모든 사
 람들이 이 진리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 교회의 상호부조회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위한 최초이자 가
 장 으뜸가는 기회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⁶ 참
 된 말일성도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어하시는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라고 백케
 이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⁷

우리 가정이 그런 묘사에 적합하게 하기 위
 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만이
 강한 간증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
 다. 자녀들이 부모의 확신이라는 옷깃에 의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선언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그들을 가르
 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공부하고 스스로 간증을 얻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⁸

구세주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이름에 대한 경
 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경은 간증이
 자라기에 비옥한 모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간증을 하고, 가족을 인도
 하는 것은 좀처럼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삶
 의 여정의 특징은 도로에 튀어나와 있는 요철
 부분, 바다의 큰 파도, 심지어는 우리 시대의
 혼란입니다.



오래 전에 호주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방
 문하는 동안 저는 간증이라는 보물이 어떻게
 가정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
 해 주는 송고한 모범을 목격했습니다. 호러스
 디 엔사인 선교부장과 저는 비행기로 시드니에
 서 다원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그 도시 최초의 예배당을 기공
 해야 했습니다. 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마운트 아이시라는 이름의 외진 광산 마을에서
 연료를 급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과 두 어린
 자녀들이 다가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디스 로우든이라는 교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자녀입니다. 우리는 두
 분이 이 비행기에 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분이 기다리시는 동안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
 니다.” 그녀는 남편이 교회 회원이 아니며, 그
 지역에는 회원이 자신과 두 자녀뿐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했
 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다시 탑승을 준
 비할 때 로우든 자매는 몹시 쓸쓸하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교회가 너무 그림습니다.” 갑자기 안
 내 방송을 통해 기계적인 문제로 30분간 출발
 이 지연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로우든 자

매가 속삭였습니다. “제 기도가 금방 응답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매주 가정
 에서 갖는 초동회 공과에 남편을 참석시켜 그
 것이 복음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이 되게 하라
 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용 교회 잡지를
 구독하도록 해주고 가정의 밤 공과에 쓸 다른
 자료들을 보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남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
 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운트 아이시를 떠난 후 다
 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에 찬 느
 낌을 전해주고 감사와 작별의 손을 감미롭게
 흔들어 준 그 아름다운 어머니와 그 소중한 자
 녀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해 뒤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가진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말씀을 하는 동안 저는
 가정에서의 복음 공부의 중요성과 복음에 따른
 생활과 진리대로 생활하는 모범의 중요성을 강
 조했습니다. 저는 로우든 자매의 이야기와 그
 녀의 신앙과 결심이 제게 미친 영향을 그 곳에
 모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우든 자매님의 남
 편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
 내보다 더 훌륭한 귀감을 찾지는 못했을 것입

니다.”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저는 리차드 로우든이라고 합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 자녀들은 제 아이들입니다.(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집념과 인내로 인해 우리는 지금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눈물을 흘리는 광경만이 침묵을 깰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종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언젠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여러분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육을 추구하고 유용한 기술을 배워서 그런 상황이 닥칠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을 부양할 준비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성의 역할은 독특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수필가, 소설가, 역사가인 워싱턴 어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 더욱 통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 있다. 자신의 기쁨보다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더 좋은 사람이 하나 있다. 어떤 경우엔 자신의 명예보다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의 뛰어난 탁월함이 자신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이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자신의 결점보다도 더 충실하게 숨겨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감각을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부드러움, 헌신의 느낌 속에 몰입시키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성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힘으로, 우아함으로, 평화로, 선함으로, 덕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신성한 것을 여성의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질들 모두가 지닌 가장 참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표현이 어머니의 역할에 있습니다.”⁹

어머니의 역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몇몇 기록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훈계하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어머니가 노쇠했다고 무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¹⁰

경전은 또한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웠던” 힐라맨의 이천 용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¹¹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안 계신 자매님들이 상호부조회에는 많이 계십니다. 죽음, 이혼 또는 결혼할 기회가 없었기에 많은 경우 홀로 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올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홀로 설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외로움이 느껴지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잠잠한 순간에 평안과 확신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호부조회 여성이 자매로서 함께 나란히 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의 필요 사항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자매의 상황에 민감해져서 어떤 여성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모든 여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상호부조회의 사랑스러운 여성 여러분들의 힘을 나타내는 여러 해 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조직 150주년이었던 1980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각 사람은 50년 뒤인 2030년에 교회 자매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를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헬렌 리 고우츠 자매가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980년의 우리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매일 신앙을 갖고 생활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으며 오늘날 우리 예언자의 권고에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고 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150년 전에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느껴 온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평안하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¹²

헬렌 리 고우츠 자매는 2000년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임종하기 직전에 몬슨 자매와 저는 암 투병 중인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고 이미 앞서 가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고우츠 자매는 말일성도 여성의 고귀함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녀는 여러분의 주제인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¹³는 말씀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인생의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여러분께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A Woman's Reach(1974년), 21쪽.
2. 마태복음 11:28~30.
3. Strickland Gillilan, "The Reading Mother", The Best 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 sel. Hazel Felleman(1936년), 376쪽.
4. Elizabeth Ware Pierce가 1992년 4월에 추가.
5. Great Musicals of the American Theatre, 제2권, ed. Stanley Richards(1973~1976년), 1:393.
6. Priesthood Home Teaching Handbook, rev. ed.(1967년), ii.
7. Gospel Ideals(1953년), 169쪽.
8. Gospel Standards, comp. G. Homer Durham(1941년), 155쪽.
9.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1997년), 387쪽.
10. 잠언 1:8; 10:1; 23:22 참조.
11. 엘머서 56:47.
12. 상호부조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한.
13. 교리와 성약 88:30.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계획할 때, 지도자들은 자매들의 필요사항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신권 지도자들과 상의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모임에 양육 및 가족 관계에 관한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학습반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가족 지도서(물품 번호, 31180 320)와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수법 지도서(물품 번호, 35865 320)를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주제 발표**	소규모 반 주제를 위한 아이디어**
영적인 발전 (교성 8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전 예배 ☑ 개인 기도 및 경전 공부 ☑ 안식일 준수(교성 59 참조)
가사 기술 (잠언 3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 요리, 식품 저장 ☑ 집 정리 및 청소 ☑ 일의 가치
결혼 및 가족 관계 (말라기 4:6; 모사이야서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그리고 경전 공부 ☑ 육아 기술
강화시키는 관계 (마태복음 5:38~44; 2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및 갈등 해결 ☑ 회개와 용서 ☑ 효율적인 지도력
자립 (교성 88: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비축 및 비상 대책 ☑ 교육 및 자원 관리 ☑ 건강 및 위생
봉사 (잠언 31:20; 모사이야서 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이웃에 대한 봉사 ☑ 교회에서 봉사함 ☑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모사이야서 4:27; 교성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및 영양 ☑ 스트레스 관리 및 오락 ☑ 주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함
개인 발전 및 교육 (교성 88:118; 130: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복사의 축복 ☑ 재능과 창의력을 키움 ☑ 평생 교육
문맹 퇴치 (다니엘 1:17; 모세서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문맹 퇴치 ☑ 역사 및 간증 작성 ☑ 초기 자녀 교육 및 자녀 도서
문화 예술 (교성 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음악의 중요성 ☑ 문화와 예술 ☑ 다른 문화를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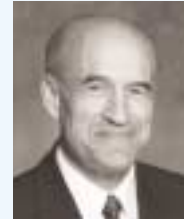
*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위한 지침은 1999년 9월 20일자 대관장단 서한과 함께 배부되었다. 이 지침은 영어의 경우, 인터넷 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클릭한다. "Serving in the Church", "Relief Society", "Home, Family, and Personal Enrichment", 그리고 "Guidelines for Home, Family, and Personal Enrichment Meeting".
 ** 주제 발표와 소규모 반 주제를 위한 자료에는 복음 원리 교재(물품 번호 31110 320)와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과 제2과정(물품 번호 31113 320, 31114 320)이 포함된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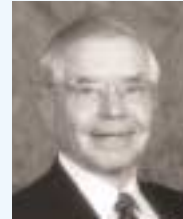
주일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왈드
제2보좌

청남



딘 알 버게스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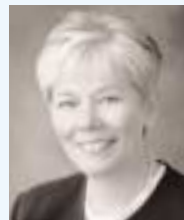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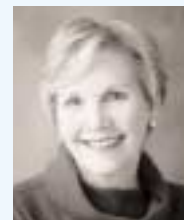


마이클 에이 네이더
제2보좌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회장



앤 시 핑그리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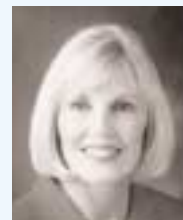
청녀



줄리 비 벡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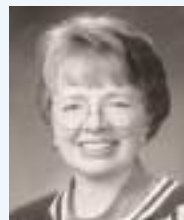


수잔 더블류 테너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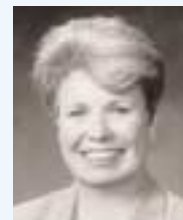
초등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제1보좌



콜린 케이 멘러브
회장



게임 엠 클레그
제2보좌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연차 대회를 삶의 일부로 삼음

20 04년 10월 연차 회의의 말씀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적용할 때, 개인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해 다음 제언들을 활용할 수 있거나 스스로 질문이나 활동 또는 토론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쪽 수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어린이란

1. 아이들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에 참여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힌트: 29쪽의 사진 참조)

2. 두 개의 새로운 성전이 건립될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성전들이 지어지면 성전의 총수는 어떻게 됩니까?(힌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찾아 본다, 4쪽)

3. 새로 부름 받은 두 분의 십이사도들의 이름을 말한다. 그 분들에 대한 흥미



13번 참조

로운 사실들을 한 가지씩 찾아본다.(힌트: 리아호나의 중간쯤에 있는 총관리 역원 도표를 살펴본다. 125쪽~126쪽에 있는 두 분에 관한 이야기 참조.)

4.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님이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그 분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몇 주간 허리케인으로 인해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버그 장로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로써 그 분이 발견한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힌트: 9쪽 참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몇 가지 축복들을 나열한다.

5.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라고 네드 비 루에시 장로님은 말씀했다.(30쪽 참조) 최근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교회에 참석하도록 그 친구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청소년란

6. 외설물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가? 이것을 위험한 중독이라 표현한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악한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다.”(59쪽 참조)

7. 여러분의 유희은 어디로

부터 오는가? 자신을 불필요하게 유희과 기만의 길에 두고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거짓 말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43쪽 참조)

8. 여러분은

역경으로 고난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신에게 “왜 내게?”라고 자문해 본적이 있는가? 조셉 비 워스런 장로님은 물어볼 수 있는 더 나은 질문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101쪽 참조)

9. “제가 회개 했지만,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양심의 평안을 찾는 것에 관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을 읽어 보기 바란다.(15쪽 참조)

10. 자신의 간증의 힘에 관해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님은 “보다 확실한 [자신들의] 간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37쪽 참조)

가정의 밤 또는 개인 학습란

11.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가 여성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해 말씀하셨다.(82쪽 참조)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어머니, 부인, 여자 형제, 고모 또는 할머니에 관해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열하게 한다.

11번 참조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말씀이나 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페이지의 대화 말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사도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여성, 6쪽
 남태평양에서 거의 아사 지경에 이른 그로버그 장로, 9쪽
 배가 전복되었을 때 바다로 던져진 그로버그 장로, 9
 평원을 횡단한 눈먼 웨일스 개종자, 18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난 브리감 영과 히버 시 김볼, 23쪽
 아이다호 댐이 무너진 뒤 조치를 취한 신권 지도자들, 26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재활동화된 회원, 30
 저활동 회원들 둔 자매를 도와주는 상호부조회 자매들, 34
 상호부조회에서 많은 것을 배운 페루 자매, 34
 브라질의 한 버스 안에서 간증을 전한 형제, 40
 팔이 절단된 고통을 이겨낸 젊은 디스 장로, 52
 한 남성에게 복음을 가르친 학교 건물목 안전 당번, 56
 할머니를 돌보는 청년, 67
 어린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가족을 교회로 초대한 나이 든 자매, 74

전세계에 걸쳐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들, 79
 경건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복음을 나누며 사는 필리핀의 한
 대가족, 92
 물문경을 읽는 리차즈 장로와 그의 아들, 95
 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98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교회, 98
 네 명의 자녀를 잃은 슬픔을 참아내는
 아버지, 101
 함께 걷고, 이야기 하며 우정을 쌓아간
 여성들, 111
 남편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도움을 준
 한 오스트레일리아 자매, 113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상호부조회 자매, 113
 2030년에 살고 있을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는 여성, 113

어린 시절에
 비둘기를 길렀던
 몬슨 부대관장, 56



너무 많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년, 98

12.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라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말씀하셨다.(67쪽 참조) 외관상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 자신이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13.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경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말씀하셨다.(18쪽 참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나쁜 습관에는 어



2번 참조
 현재 건축중인 다섯 개의 성전 가운데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아바 성전.

떠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기부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 와드 또는 지부, 혹은 이웃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바칠 수 있는가?

14. 올리버 그렌저는 누구인가? “... 저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신성한 기념으로 기억되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적용되는가?(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의 말씀 참조, 86쪽)

15.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43쪽 참조) 이번 호에 실린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공부한다.(4, 59, 82, 104쪽 참조) 힝클리 대관장님이 하신 권고 가운데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목록을 만든다. 오늘 시작한다.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멜 기세텍 신권 및 상호 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대한 다음의 유의 사항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 과정** **유의 사항**, 2005~2008년과 2004년 5월호 **리아호나**에 나오는 유의 사항을 대체합니다.

매달 멜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계속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사용할 것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모든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가장 최근의 **리아호나**의 특집호에 실린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는 각각 5월과 11월에 발행됩니다. 또한 인터넷 www.lds.org에서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장 또는 지방부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거나,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방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들은 멜기세텍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분들이 가장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꼭 구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공과를 준비하는 데 도움될 제안 사항

☞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들과 교리들을 찾으며 말씀(들)을 검토한다. 또한 말씀에 포함된 것으로 원리들과 교리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헬싱키 제2 와드에서 대회 방송을 시청중인 핀란드 헬싱키 스테이크의 회원들.

이야기, 경전 참조 및 문구들을 찾아본다.

☞ 여러분이 원리들과 교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한 개요를 만든다. 개요에 포함시킬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반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르치게 될 말씀(들)에 포함된 교리와 원리들.

-원리와 교리들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본다.

-반원들이 원리들과 교리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력, 제언,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이러한 원리들과 교리들을 반원들의 삶에 적용시킨다.

☞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의

31~32장을 검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원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교수법 지도서[2001년], 12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cur-development@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달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4년 11월~ 2005년 4월	2004년 11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말씀
5월~2005년 10월	2005년 5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말씀

*인터넷 www.lds.org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다 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교재 3과 청년 교재 3에 나와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대체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원수 지도서를 말한다. 개인 발전은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책자를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에 있는 부분들을 공과 시간에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원회 회원들이나 반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언들을 “*리아호나* 활용하기”와 *교사-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부활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화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 지도서를 인터넷에서 찾을 경우 www.lds.org로 가서 세계 지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언어를 선택한다. “*리아호나*”를 클릭한 뒤, 2004년 11월호를 클릭한다. 지도서들은 “Instructional Resources(참고 지도서)”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 상의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장래의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리아호나*(일부 언어)를 인터넷 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아론 신권 교재 3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1~25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과: 신화

고든 비 힝클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리아호나*, 1998년 3월호, 2쪽. 신화에 관한 힝클리 대관장의 간증을 활용해 공과를 마친다.

델린 에이치 옥스, “배도와 회복”,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3쪽. 신화에 관해 현재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공과의 소개를 보충한다.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24장.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1번.

제2과: 구원의 계획

듀엔 비 제라드, “구원의 계획: 인생의 비행 계획”,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77쪽. 청사진 유추를 비행 계획서 유추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3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프리 알 홀랜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쪽. 공과 소개를 위해 첫 두 단락을 나눈다.

에스 마이클 윌콕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리아호나*, 1998년 2월호, 26쪽.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소개하기 위해 저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4과: 나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쪽. 선택의지의 사용과 신권을 명예롭게 하는 것에 관한 제언을 나눌 것을 고려한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22쪽. 질문을 이용해 토의를 시작한다.

제5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악마의 목구멍”,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1쪽.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유추 활용을 고려해 본다. 청년들에게 사탄의 가장 “매혹적인 메시지들”의 예를 들어보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6과: 아담의 타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선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출산의 능력”을 사용한다.

제스 엘 크리스티슨, “필멸의 삶을 시작케 한 선택”,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38쪽. 아담의 타락을 소개하기 위해 3막짜리 연극의 유추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제7과: 속죄는 사망과 지옥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쪽.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와 연관시킨다.

엠 러셀 벨라드, “속죄와 한 영혼의 가치”,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4쪽.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해 공과를 소개한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제8과: 부활과 심판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공과의 말미에 사용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우리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판단에 관한 부분을 끝맺도록 한다.

“주님 다시 부활했네” 찬송가, 123장.

제9과: 공의와 자비

러셀 엠 넬슨,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쪽.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토론을 “아버지에 대한 변호인” 부분으로 대체한다.

제10과: 큰 변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빛*, 1990년 3월호, 2쪽. 신실한 슬픔에 대해 토론할 때, 경전에 나온 이 설명과 예들을 포함시킨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듭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8쪽. 제인의 이야기 대신에 아티아티의 이야기를 활용할 것을 고려한다.

제11과: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주님의 등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쪽. 매튜 카울리의 이야기를 “신앙으로 삶을 설계하십시오” 부분으로 추가시킨다.

테니스 이 시먼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3쪽. 필란 토론 후, 농구 이야기와 신앙의 정의를 사용한다.

제12과: 회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영광의 관을 받고자”,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2쪽. 회개가 어떻게 치유로 이끄는지 보여주기 위해 유추를 사용한다.

제이 이 젠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쪽. 기사를 이용해 회개의 과정을 검토해 본다.

“여러분의 행동을 정리하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37쪽. 공과의 초반부에 이 포스터를 전시하고 그것에 관해 토론한다.

제13과: 우리가 용서하는 대로 용서 받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영광의 관을 받고자”,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2쪽. 용서와 회개에 관한 토론을 보충하기 위해 벤에 관한 이야기와 기사와 절레에 관한 예를 나눈다.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용서”,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6쪽. “제자의 표식” 부분의 일부로 이 비유를 나눈다.

제14과: 성찬식

러셀 엠 넬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0쪽. 개인적인 참여 부분을 활용할 것을 고려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7쪽. 아론 신권 소유자가 성찬식 집행시 갖추어야 할 복장에 관해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1번.

제15과: 끝까지 견딤

닐 에이 맥스웰, “잘 견딤”,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0쪽. 본 기사를 이용해 “끝까지 견디는 방법을 보여주신 구세주” 부분을 보충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6쪽. 벤슨 부대관장님이 목록 끝부분에 끝까지 견디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에 관한 아이어링 장로님의 말씀을 추가하도록 한다.

제16과: 세상의 생명과 빛인 예수 그리스도

로버트 디 헤일즈,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7쪽. 공과를 마칠 때 한 명의 청년을 초대해 자전기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1번.

제17과: 성신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44쪽. 성신의 영향력에 관해 가르칠 때 처음 다섯 가지의 요지를 포함시킨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름”,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25쪽. 공과에 있는 진실 또는 거짓 질문 대신에 기사에 있는 질 의 응답을 활용하도록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5번.

제18과: 기도

조셉 비 워스킨,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6쪽. 토론에 기도에 대한 패턴을 포함시킨다.

마지드 에이 키르페트릭,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24쪽.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신권 의무와 표준”, 3번

제19과: 금식

조셉 비 윌슨,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쪽. 이 공과의 말미에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제언들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데이비드 더블류 백맨, “가장 위대한 설교”, *성도의 벗*, 1995년 2월호, 26쪽. 매튜 카울리의 이야기 후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정원회 활동”, 2번

제20과: 십일조-영적인 시험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쪽. 학생들을 초대해 공과의 퀴즈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보게 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물댄 동산처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7쪽. 질판 토론에 십일조를 바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신권 의무와 표준”, (집사), 7번; (교사, 제사), 8번

제21과: 정원회의 역할

고든 비 힝클리, “개종자는 모두 소중합니다”,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8쪽. “정원회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킨다.

머빈 비 아놀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6쪽. 아라우호 페르란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정원회 활동”, (집사), 4번; (교사), 5번

제22과: 제사의 의무

“신권의 기적”,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26쪽. 제사의 역할에 관한 토론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추가한다.

“회복된 신권”,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30쪽. 반원들이 자신들의 제사로서의 경험을 나눌 때 기사에 나와 있는 제사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1번.

제23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신권 안에서 성장함”,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3쪽. 신권 성약과 맹세에 대한 토론에 이 경험을 추가시킨다.

러셀 엠 넬슨, “개인의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4쪽. 넬슨 장로님이 가르친 방법을 활용해 청남들이 자신들의 제사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넬슨 장로님의 다섯 가지의 개인적인 목적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4번

제24과: 예언자를 따름

엠 러셀 벨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쪽.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오는 축복에 관한 기사에 포함된 목록을 만든다.

엠 러셀 벨라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3쪽.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벨라드 장로님을 말씀을 나눈다.

제25과: 모든 청남은 선교 사업을 해야 함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쪽. 장대를 높이는 것에 대해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을 연관시킨다.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가르침”, *리아호나*, 2004년 6월호, 8쪽. 영로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정원회 활동”, (교사), 4번; (제사), 3번

하나님에 대한 의무, “영적인 발전”, (집사), 9, 10번; (제사), 11번.

청녀 교재 3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1~25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과: 하나님 아버지

고든 비 힝클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리아호나*, 1998년 3월호, 2쪽. 간중에 대한 발표를 이 기사에 있는 일부를 활용해 시작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쪽. 공과 소개를 위해 첫 두 단락을 나눈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1번.

제2과: 구세주를 알게 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읽”,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2쪽. 공과 요약에 나열되어 있는 방법에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방법들을 추가할 것을 고려한다.

제3과: 매일마다 복음대로 생활함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주님께 가까이 가는 느낌에 관한 여섯 가지 “우”를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3번

제4과: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준비함

데이비드 이 소렌슨, “성전 사업의 교리”,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30쪽. “영적인 준비” 부분에 있는 자료에 본 기사를 추가한다.

“상호 향상 모임을 잘 활용함”,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24쪽. 공과 반이나 다음 번 상호 향상 활동에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 가운데 하나를 활용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2번

제5과: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여기에 나와 있는 열 가지 미덕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가정에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토의 한다.

엠 러셀 벨라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1쪽. 공과의 후미에 신앙의 요새를 세우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6과: 여성의 가르치는 책임
델린 에이치 옥스, “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4쪽. 토론에 교수법에 관한 여섯 가지의 원리를 포함시킨다.

제7과: 인생의 목적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쪽. 기사에 나온 이야기에 “우리가 받은 지시에 따라 행할 우리의 책임”을 보충한다.

리처드 지 스코트,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쪽. 첫 번째 단락과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와 “우리는 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로 시작하는 단락을 활용할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1번.

제8과: 영원한 가족

앤 엘든 테너, “오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쪽.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구를 이용해 공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쪽. 성전 및 “영원한 가족의 삶이라는 축복은 성전에서 얻을 수 있음”이라는 기사가 포함된 성전 축복에 관한 부분을 토론할 것을 고려한다.

제9과: 가족의 단합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한 가정의 표시”,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2쪽. 어떻게 네 개의 “표시”가 가족들이 단합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할 것을 고려한다.

디 레이 토마스, “가족의 강화를 위한 조언들”,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30쪽. 인생에 관한 여덟 가지 조언을 가정에서 적용해 볼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제10과: 즐거운 가족 활동을 장려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쪽. 공과를 끝내기 전, 결론의 일부로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제언 몇 가지를 토의 한다.

제11과: 대가족 관계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53쪽. 이 말씀을 공과에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브루스 시 하렌,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 줌”, *리아호나*, 1998년 6월호, 16쪽. 한 청녀에게 기사에 나온 아들의 이야기를 말해 주도록 부탁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5번

제12과: 신권의 축복

“회복된 신권”,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30쪽. 이 기사를 이용해 제사 직분에 관한 토론을 보충하도록 한다.

브렌다 윌리엄스, “끔찍하고 두려운 날”,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22쪽. 신권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관한 토론에 이 기사를 추가할 것을 고려한다.

제13과: 신권을 통해 가족들이 축복 받을 수 있음

엘 톰 페리, “아버지, 영원한 부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9쪽.

청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할 때 아버지들의 역할에 관한 가르침을 이용한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신권, 열쇠와 축복의 권세",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50쪽. 사례 연구 대신 베이트먼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한다.

제14과: 훌륭한 유산을 받음

고든 비 힝클리, "신앙의 네 모퉁잇들",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2쪽. 모퉁잇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회복에 관한 토론을 보충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8쪽. 배도와 회복에 관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본다.

제15과: 이스라엘 지파의 축복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18쪽. 본 기사를 이용해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가르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6번

제16과: 성전 엔다우먼트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40쪽. 본 기사를 이용해 성전의 축복에 관해 토론한다.

제17과: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함

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쪽. 두 명의 청녀를 초대해 "성전에 가기 위한 신체적 준비"와 "성전에 가기 위한 영적 준비"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가장 중요한 단계",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34쪽. 준비에 대한 토론 보충 자료로서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 부분을 사용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활동", 다섯 번째 항목.

제18과: 성전 결혼

고든 비 힝클리,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2쪽. 영구인 부부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성전 결혼식 준비하기",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39쪽. 성전 결혼의 축복에 대해 토론 할 때, 이 기사 내용 일부를 사용한다. 태머리 리덤 베일리, "성전 참석 유행",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6쪽. 이 과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세 가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제19과: 유산

델린 에이치 옥스, "회개와 변화",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7쪽. 이 글을 할라맨서 15장 7~8절과 함께 활용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자녀를 위한 기도",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5쪽. 기사에 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에 관한 부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조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토의를 보충자료로 활용한다.

개인 발전, 2 "신앙 가치관 경험", 2번.

제20과: 선교사의 책임을 이해함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쪽. 이 기사의 제언들과 함께 이 과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가르침", *리아호나*, 2004년 6월호, 8쪽.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이 기사의 일부를 사용한다.

제21과: 복음 나누기를 배움

엠 러셀 벨라드,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2쪽. 회원 선교사업에 대한 토론에 이 기사의 제언들을 덧붙인다. 리차드 엠 롬니, "땅 끝까지",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26쪽. 기사에 나온 청소년들의 경험에 관해 말해 준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7번

제22과: 영원한 관점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쪽.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토론에 이 기사의 제언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엘 라이오넬 켄드릭, "역경에 맞서는 힘",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8쪽. 시련을 겪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6번.

제23과: 고난을 이겨냄

조셉 비 워스틴, "안전한 항구를 찾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1쪽. 실물 공과로서 나비의 개념을 사용한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22쪽. 공과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이 기사를 사용한다.

제24과: 자유의지(선택 의지)

린 지 로빈스, "자유의지와 분노",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80쪽. 이 기사의 첫번째 부분인 "선택의지는 권세이자 선택하는 자유이다"를 사용한다. 새론 지 라슨, "축복이자 짐인 자유의지",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쪽. 계명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녀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기사를 사용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1번.

제25과: 순종

제임즈 이 파우스트, "순종: 자유에 이르는 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53쪽. 계명은 속박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기사를 사용한다.

도널드 엘 스타헬리, "순종-위대한 삶의 도전",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81쪽. 이 과를 소개하기 위해 개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5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설교단 앞)과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새로운 사도, 새로운 성전의 발표

한 사람은 비행하기를, 다른 한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어야 하는 그들의 새로운 부름과는 그렇게 거리가 먼 직업 같지는 않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최근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사망으로 생긴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부름 받았다.(새로운 사도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인 로버트 시 옥스 장로가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십이사도 부름에 따라 생긴 칠십인 회장단의 공석을 채우도록 부름받았다.

신임 두 사도의 발표는 2004년 10월 2~3일에 열린 교회 제 174차 반연차 대회와 토요일 오전 모임에 있었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개회 말씀 서두에서 언급되었다. 그 발표는 교회 회원들에게 중요한 여러 발표들 가운데 하나였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꾸준한 회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전 두 개를 아이다호와 솔트레이크 밸리에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이다호 트윈 펄스 성전은 아이다호에서 네 번째 성전이 되며,

브리감 영 대학교-아이다호 교정 인근의 아이다호 렉스버그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올해 초의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아이다호에는 366,000명 이상의 말일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다.

솔트레이크 밸리의 새로운 성전의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타에서 12번째가 될 그 성전은 17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솔트레이크



20,000명 이상의 성도들로 가득 찬 컨퍼런스 센터

밸리에서는 3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의 회원이 예상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네 번째 성전이 그 지역에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성전과 함께 전에 발표된 성전이나 현재 건축중인 다른 성전들을 합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회는 130개의 성전을 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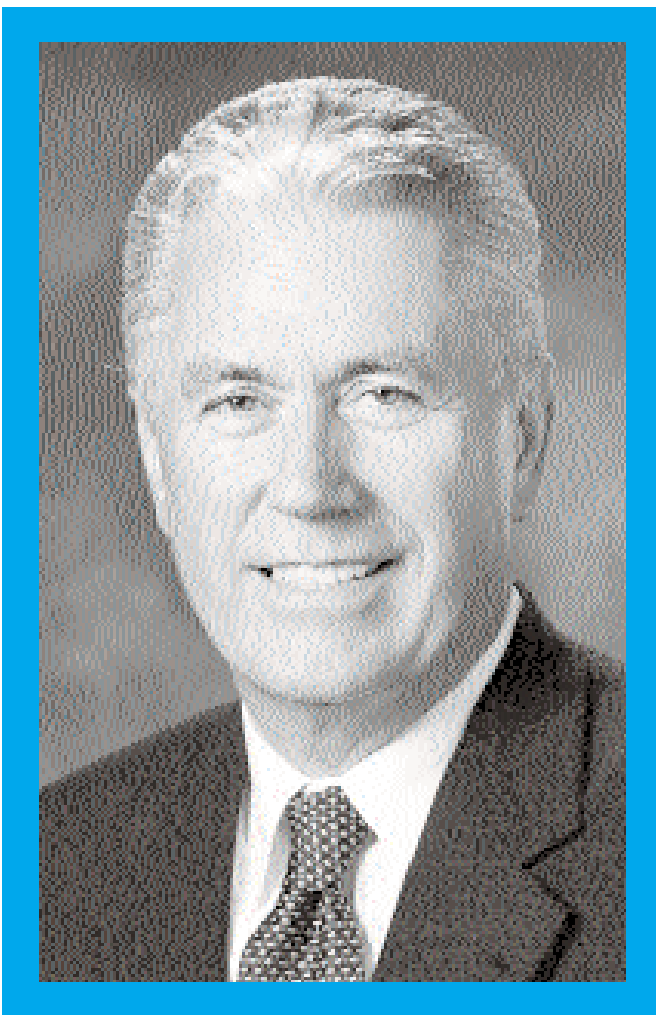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성전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회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례 없는 건축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현재 건축 중인 집회소가 세계적으로 451개에 달한다고 회원들에게 말했다.

“이 거대한 건축 프로그램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이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건축 가운데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독창적인 걸작품 중의 하나”인 템플 스퀘어에 있는 역사적인 솔트레이크 태내내클도 포함될 것이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137년 된 이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하여 44개의 사암 기둥과 기초를 보강하고 다리 건축술을 이용한 그 유명한 지붕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18개월의 보수공사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문닫을 예정이다.

대회 동안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6명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17명이 해임되었다.(“교회 역원 지지”, 22쪽 참조) ■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 해전에 Friend와의 대답에서 디터 프리드리히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35년을 즐겁게 회상했다. 그는 구름과 별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싫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국가들 및 문화들 간의 차이점에 대한 그의 인식이 커졌으나, 교회 회원으로서 그는 복음이 문화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다

고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는 여러분의 전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 모든 문화와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칠십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4)

가장 최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두 사람 중 한 일원

으로서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그런 확신을 다시 강조했다. 비록 문화와 배경이 다를 수 있으나 “과제는 똑같습니다.”라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그리고 그런 과제들에 대한 대답을 복음 원리의 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복음은 너무도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1940년 11월 6일에 체코슬로바키아 마호리쉬오스트라우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란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50년 만에 미국 밖에서 태어나 부름을 받은 최초의 사도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특정한 무리를 대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확언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대표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속죄 및 그 안에 있는 치유하는 권세에 관해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성장했던 어린 아이로서 그는 “폭격으로 파괴된 집에서 놀았으며, 눈에 보이는 패전의 결과와, ... 조국이 많은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했던 때를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어 모든 인간을 무덤에서 구속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기쁜 소식은 저의 삶에 다시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치유 능력이었습니다.”(“예언자의 음성으로 축복 받는 세계적인 교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쪽)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면서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지를 아는 것과 항상 올바른 길에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공기 기장으로 승객 386 명을 보잉 747 기에 태우고 대서양을 지났던 비행을 회상했다. 어느 한 지점에서 그는 다른 두 대의 제트 비행기가 남긴 비행기 기류가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그는 위로 600미터, 아래로 600미터에 있는 두 대의 제트 비행기 사이에서 비행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아름다운 비행기들을 따라잡으면서 제 동료 조종사는 우리 비행을 시작할 때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가 항법 장치에 입력되어 세 대의 제트 비행기가 고도만 달리 하여 같은 항로를 정확하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와 인사를 나누는 디터 우흐트도르프 장로

게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
냐고 말했습니다. 만일 승무원들
이 같은 목적지로 이어지는 동일
한 항법 위치들을 사용한다면 우
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될 것
입니다.

“이 말의 진실성과 또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
즉 우리 모두는 목적지를 알고 있
으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
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비행 계획을 준비하셨으며
그것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Happy
Landing”, *New Era*, 1995년 5
월호, 4쪽)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공학 교
육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경영학
및 국제 경영을 공부했다. 사회
경력 마지막 7년 동안에 그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비
행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과 수석
조종사로 근무했다.

1962년 12월에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해리에트 라이히와 결혼하
여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인봉 받
았다. 그들은 두 자녀와 다섯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우흐트도
르프 장로는 스테이크장, 여러 지
역의 지역 회장단의 일원,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 칠십인 정원회 회
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그의 자
매는 그의 새로운 부름이 오직 주
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그는 “그런 커다란 책임
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
다.”라고 말한다. “교회가 참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계신 예언
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
다면, 우리는 그 점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고, 또 고든 비 힝클리 대
관장이 오늘날 참된 예언자임을
압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이 옳다
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 석에 자리를 잡은 후에 서로를 붙잡아 주고 있는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오른쪽)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삶의 전환을 불러온 부
름을 받기 한 달 전
데이비드 앨런 베드나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아이다
호의 교정에서 대학교 총장으로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
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아이
다호를 “DPC”, 즉 Disciple
Preparation Center(제자 양성 센
터)라고 부르며 이 학교가 마치
MTC(선교사 훈련원)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이 특별하고 신성하고 성별된

장소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녀야 할 헌
신을 발전시키고 그 깊이를 깊게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여러 영적 자원들을 접하고 있습니
다.”라고 말했다.(브리감 영 대학
교-아이다호의 영적 모임에서
2004년 8월 31일에 행한 말씀)

브리감 영 대학교 아이다호(전
에는 리스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
직했던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제
자들을 준비시키려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서 봉

사하는 열 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제 베드나 장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한 준비와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당시 리스 대학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대학 학장이 되는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21년 동안 대학 교수였기 때문이다. 그 해의 첫번째 영적 모임에서 그는 학생들로 가득 찬 강당을 엄청난 강의실로 바꾸어 놓고는 학생들에게 경전을 펴서 메모를 하라고 부탁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아이다호에 오기 전에 베드나 장로는 페이에트빌에 있는 아칸소 대학교의 교수였다. 그곳에서 그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경영 의사결정 연구실의 책임자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경영 대학의 대학원 과정 부학장으로,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경영학과 조교수로 일했다. 그는 또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텍사스 텍 대학교의 조교수였다.

베드나 장로는 재능있는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발휘하여 1994년에는 뛰어난 교수법에 대한 벌링턴 노던 재단 상을 받았다. 그는 학술 잡지에 게재된 여러 편의 논문을 썼으며 자신의 연구 분야인 조직 행동에 관해 두 권의 책을 공동 집필했다. 1980년에 퍼듀 대학교에서 조직 행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6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사 학위를 그리고 일년 후에 조직 커뮤니케이

션으로 석사 학위를 받아 졸업했다.

베드나 장로가 프로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을 때 그는 학위 이상의 것을 가지고 떠났다. 바로 장래의 아내 수잔 케이로빈슨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다. 그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그들은 같은 학생 와드에 참석했다. 어느 월요일 밤에 그들의 가정의 밤 그룹은 풋발 축구 게임을 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수잔은 고등학교 시절 축구 팀에서 쿼터백이었던 베드나 장로의 긴 패스를 받았다. 그녀가 받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던 그는 그것이 그녀의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공을 잡았던 때라는 걸 알지는 못했다. ("I'm a Teacher Who Is Now a College President", Summit, 1997년, 10쪽 참조)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1975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그들은 아들 셋에 손자 손녀 셋을 두고 있다.

베드나 장로가 오래 동안 소망

했던 전화를 받았던 것은 결혼 한 뒤인 1970년대 말이었다. 캘리포니아의 집에 와서 직접 침례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베드나 장로는 1952년 6월 15일 캘리포니아 샌리엔드로에서 앤소니 조지 베드나와 라비나 휘트니 베드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 자녀의 막내였고 바로 위 형제와는 15년 차이였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정직하게 믿었습니다. [부친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분이 회복된 복음을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의 부친은 정직하고 성품이 곧은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 내내 어린 데이비드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으며, 소프트볼 팀을 감독했고, 스카우트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그는 독일로 선교사업을 가는 베드나 장로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어린 아들에게 "나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알게 될 때 그렇게 할 거란다."라고 말했

다. (Summit, 1997년, 9~10쪽)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으며, 그 중 많은 것들은 교회 부름과 관련된 경험에서였다. 30세에 베드나 장로는 아칸소에서 스테이크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다음 감독으로, 스테이크장으로 두 번, 나중에는 지역 대표, 지역 관리 역원, 그리고 칠십인 지역 관리로 봉사했다.

10월 1일에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베드나 장로에게 사도의 부름을 주었으며, 그것은 전세계 곳곳의 회원들에게 지지를 묻기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수백 아니 수천 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름에 명예롭게 응했습니다. 저는 봉사하고 싶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엘 톰 페리 장로 및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함께 연단을 떠나고 있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중앙).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변경 발표

이 달부터 넷째 주 일요일의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이 2004년 10월 1일자로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과 지시 사항에 따라 가장 최근의 *리아호나*의 연차 대회 특집호에서 가르치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에 따르면, 이 변화는 연차 대회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주었던 권고를 뒷받침하는 것이다.(단편 소식 참조)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전의 연차 대회를 정기적으로 참조함으로써 연차 대회의 영과 총관리 역원들이 주는 가르

침을 회원들의 삶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장과 지방부장은 매달 어떤 말씀을 또는 말씀들을 사용할지 선택할 권한이 있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린 잡지를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렉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가져가기를 권유합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홀런드 장로는 2004년 7월 18일에 대관장단이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들의 가정에 교회 잡지가 비치되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구절을 인

용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인쇄물과 시각 자료와 맞서 싸우고 있는 세상에서 영감적이고 흥미 있고, 고상한 자료를 우리 손위에 가져다 주는 교회 잡지에 대해 저는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홀런드 장로는 말한다. “우리 잡지에는 가장 어린 사람에서부터 가장 나이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것이 있으며, 교회에서 커다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잡지나 자료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모든 가정에 교회 잡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안에 있는 가르침대

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에 있는 회원들은 ldscatalog.com을 통해 인터넷으로 또는 1-800-537-5971로 전화를 해서 교회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의 회원들은 해당 배부 센터 또는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차 대회 말씀을 또한 11월 중순까지는 인터넷에서 19개 언어로 www.lds.org의 “Gospel Library”에서 구할 수 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번호의 120쪽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제언을 찾을 수 있다. ■

70개 언어로 통역이 된 연차 대회

2004년 10월 연차 대회 방송 동안 약 600명의 사람들이 연사의 말씀을 2004년 4월 대회보다 3개 언어가 많아진 70개 언어로 통역하는 일을 도왔다. 새로이 추가된 언어는 파피아멘토어, 슬로바키아어, 우르두어이다.

통역사들은 통역 부스에서 통역할 때 방송을 보고 듣게 된다. 현대 기술 덕분에 영어로 말씀이 주어지고 회원들이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번역된 말씀을 듣는데는 사실상 시간 차이가 없다.

지난 달에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회를 지켜보며 번역사들이 15개 언어로 통역을 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언어로 연차 대회를 듣도록 도움을 준 통역자들.

이에 따라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교회는 앞으로 원거리 통역을 하는 언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

현대의 예언자들이 연차 대회에 관해 하신 말씀

“연차 대회가 우리 생활에서 맞이되며, 삶의 안내자가 ... 되기를 기원합니다.”(고든 비헝클리 대관장, “새로운 시작”,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6쪽)

“현대의 예언자들은 교회 잡지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읽는 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학습에서 중요하고도 정규적인 부분으로 만들 것을 권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 대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리와 성약의 보충 부분 내지는 연장이 됩니다.”(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The Heavens Are Open”, Come unto Me, 교회 비디오, 1988)

“앞으로 육개월 동안 여러분의 연차 대회 특집호인 Ensign [또는 *리아호나*]는 여러분의 표준 경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며 자주 참조되어야 합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91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설교단 앞)과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